

우리 땅의 풍경 잘 누비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청소년 자전거 여행 사회사업



전재성 권대익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차례

격려 글	1
머리말	3
저자 소개	5
참여 청소년소개	7

준비

단기 사회사업

단기사회사업 소개	12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18년 여름 단기사회사업 소개	15
김세진 선생님 단기사회사업 특강	18

선행연구

배경이론 : 복지요결	23
「우리가 날던 날」을 읽고	28
「복소리를 올려라」을 읽고	34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을 읽고	39
「나가 놀자」을 읽고	44
「내가 여행하는 이유」을 읽고	50
「토영살이」을 읽고	56
이준화 선생님과 최선용 선생님 만남	61

당사자 면접

중학생 당사자 면접	66
고등학생 당사자 면접	72
합동 연수 77	

자전거 여행 실천 이야기

인사

마을 인사 다녔습니다	104
-------------------	-----

여행 준비

첫 번째 모임: 우리들의 여행 시작해 볼까요?	112
두 번째 모임 : 아라뱃길 사전여행 준비하기	119
세 번째 모임 : 아라뱃길 자전거 여행	123
네 번째 모임 :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네요.	132
다섯 번째 모임 : 새로운 다짐	138

여섯 번째 모임 : 기쁨은 진지하게 말할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48
일곱 번째 모임 :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 삶에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158

춘천 자전거 여행

여행 첫째 날 : 우리땅의 풍경 잘 누비고 왔습니다.	165
여행 둘째 날 : 선생님 바로 춘천으로 가요	178

삼척 바다 여행

여행 첫째 날 : 더 놀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188
여행 둘째 날 : 선생님, 다음에 같이 여행하러 와요.	199

마무리

당사자와 함께하는 수료식 이야기

수료식 준비	207
수료식 이야기	217
감사 인사를 통해 지역사회 공생성이 늘어납니다.	226

복지관 수료식

관장님과 함께하는 수료식	236
방화11 단기사회사업팀 수료식	238
구슬 합동 수료식	239
수료사	261
수료증	271

못다 한 이야기

노는 날

곡성 도립사 계곡 물놀이	277
철암 여행	279
장봉도 여행	286

여러 이야기

복지관 소개	290
과업 발표	303
희망 나눔	305
강점 나눔	309
격려글 나눔	312
글쓰기 특강	313
김성천 교수님과 만남	314

맺음말	316
-----------	-----

격려 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YMCA에서 처음 개관부터 변함없이 24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5년이 넘는 법인의 시민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바람직한 복지관 정체성 실현을 위해 동 중심 조직개편을 시도한 것입니다. 기능별 조직구성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이자 바람직한 복지관 역할 수행을 위한 걸음입니다.

동 중심 조직개편의 시작은 작년 여름 단기 사회사업 덕이 컸습니다. 복지관 정체성 고민을 더 깊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사회사업은 지역 조직,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기능에 구분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기능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사업 방법이 그렸습니다. 단기 사회사업 경험이 동 중심 사업 추진 결단과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었던 이번 여름, 방화동과 공방동에서는 일상생활기술학교, 친구야 놀자, 우리들의 여행을 주제로 단기 사회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명의 실무자와 12명의 실습생이 뜨거운 열정으로 여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 부모, 이웃 어른, 지역사회까지 그 열정이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중학생 자전거 여름 여행 '우리 땅의 풍경 잘 누비고 왔습니다'는 권대익 주인과 전재성 학생이 함께 했습니다. 중학생 청소년과 함께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준비, 진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직접 모든 일을 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부탁하고 기다렸습니다. 사회사업 가치를 붙잡고 인내하며 실천했습니다. 재성이 뿌린 사회사업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지역사회에서 꽃피울 겁니다. 이 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주어 고맙습니다.

단기 사회사업 참여로 복지관에서 여러 덕을 봅니다. 복지관의 바른 정체성 구현, 실무자의 성장, 주민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이웃의 정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 단기 사회사업 제안하시고 도와주신 김세진 선생님, 귀한 가르침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끌어 주신 한덕연 선생님과 여러 도움 주신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정유진 학생과 이번 단기 사회사업으로 만난 인연이 귀합니다. 이번 실습으로 배운 많은 것을 잊지 않고 현장에 나와 실천하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머리말

학교 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된 단기사회사업 강연을 들었습니다. '나가 놀자!'의 저자인 강민지 선생님 강연의 사진 속 아이들은 주도성을 갖고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살 만한 사회, 지역사회가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면 꼭 하고 싶었습니다.

김동찬 선생님의 권유로 구슬 팀 알게 되었습니다. 6개의 복지관 중에서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자전거 여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했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18년 6월 23일부터 18년 8월 17일까지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민준 준기 세진 승리와 함께 만들어진 '청소년 자전거 여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화동에서 방화중학교 친구들과 활동했으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이들이 많은 돌레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계획·진행·평가까지 이루기에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쫓았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진행하기에 빠듯했지만, 선생님, 동료들과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며, 아이들과 회의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돌레 사람들 덕분에 잘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독 가장 더웠던 여름,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 만들어 주겠다는 열정 하나로 하루하루 채워나갔습니다.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처음 했기에 더욱 다사다난했나 봅니다. 처음이라 더욱 열심히 했고 하나하나 모든 활동이 소중했습니다. 소중한 기억과 추억 모아 글을 써봅니다.

김세진 선생님의 글쓰기 특강을 들으면서 “기록을 잘해놔야 다음에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글도 역시 앞으로 단기사회사업 활동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자 소개

전재성



희망 나눔 사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수영선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떨어져서 부모님과 논의 후에 수영선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학기가 시작되던 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마칠 무렵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의 권유로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양

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의 길잡이가 되어준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결과 원했었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제 신념은 굳건했기에 먼저 실습한 동기들이 “가서 편하게 일하다가 와, 어렵지 않아, 그냥 하면 돼”라고 말하면 그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하게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렵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일반실습을 하려던 찰나에 다슬이의 권유로 단기사회사업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소개를 듣자마자 자연주의 사회사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주저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단기사회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선생님과 동료와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고 기록하며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기사회사업 경험이 현장에 나가야만 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열정이 넘치고, 정직하게 활동하는 사회사업가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참여 청소년 소개

김민준



자전거 여행 팀장 김민준

방화중학교 2학년 민준이는 반에서 체육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자전거 동아리에서 활동할 만큼 자전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 팀에서 자칭 팀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럴만한 자격을 갖춘

친구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준기와 세진이 집중하지 못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숫기가 없어 친구들 앞에서 감정표현이 서툴지만, 저와 단둘이 있으면 감정표현을 잘 해주고, 말 잘 듣고 생각이 깊은 친구입니다. 활동 내내 옆에서 잘 도와주어 활동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준기



자전거 여행 에너지저 이준기

방화중학교 2학년 준기는 민준이의 권유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좋아하며 탁월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며 가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팀에서

회의가 치질 때 준기의 특유 개그로 민준이와 세진이를 웃게 만들어 줍니다.

민준이와 반대로 굉장히 활발하며 장난이 많고, 감정표현이 솔직한 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네”라고 말하는 준기의 긍정적인 모습에 반해버렸습니다.

전세진



자전거 여행 최고의 서포터 전세진

세진이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더불어 똑똑한 머리와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자전거 여행 선두로 달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네비게이션을 놓지 않고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춘천으로의 자전거 여행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앞에서 달려주어 무사히 여행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제일 고생했을 세진이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

단기사회사업 소개

단기사회사업은 사회복지대학생이 방학 중 4~5주간 사회사업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정보원이 주선하는 단기사회사업은 '복지요결' 방식으로 실천하는 기관이 함께 합니다.

- ① 대학생이 복지 당사자와 함께 한두 가지 단위 사업을 기획부터 평가까지 수행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사회사업 근본 곧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을 공부하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 살이'에 감동하여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다. '사회사업이 이렇게 재미있고 귀한 일구나!' 하게 됩니다.

목적

- ① 실무 지원 : 실무를 거두고 좋은 자극과 기운을 줍니다.
- ② 인재 양성 : 사회사업 현장을 지키고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웁니다.
- ③ 정서 지원 : 사회사업 재미와 감동, 우정과 낭만을 누리게 합니다.

주체

- ① 사회복지대학생 : 사회사업 뜻있게 즐겁게 제대로 잘하고 싶은 학생, 실무를 기획부터 평가까지 직접 실행해 보고 싶은 학생
- ② 사회사업 기관 : 이런 학생을 찾아 기관의 인재로 사회사업 지도자로 키우고 싶은 기관, 이런 학생과 함께 몇 가지 단위 사업을 기획부터 평가까지 '실제로' 실행할 기관

과정

- ① 복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단기사회사업으로 할 일을 선정하고 모집부터 평가까지 전체 과정을 대략 구상해 봅니다.
- ② 홍보 : 학교 수업 시간이나 특강 시간에 사례를 발표하고 방학에 이런 사회사업을 함께 해 보자 합니다.
- ③ 지원서 : 지원서로써 학생을 돕습니다. 탈락자 서류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감사 축복하는 편지를 씁니다.
- ④ 면접 : 당사자가 면접을 준비 진행합니다. 지원자가 면접으로 사회사업을 배웁니다. 당사자와 어울리고 지역사회를 누립니다. 탈락자 서류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감사 축복하는 편지를 씁니다.
- ⑤ 격려 글 : 면접까지 합격하면 격려 글을 받습니다.
- ⑥ 연수 : 「복지요결」 본문과 해당 분야 사회사업 편을 읽고 실천 사례를 공부합니다. 단기사회사업 실행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예비 보고서를 나누고 가상 출판 기념식을 합니다.
- ⑦ 사회사업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⑧ 평가와 수료 : 추억 사례 배움 강점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수료사를 낭독하고 수료증을 줍니다.

⑨ 보고서 : 단기사회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당사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냅니다. 도서등록번호를 받아 인쇄 제본합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18년 여름 단기사회사업 소개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뜻있고 바른 사회사업 실천을 지향합니다. 그리하여 전 직원이 함께 만든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사업 잘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잘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년 여름부터 단기사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겨울에 이어 이번 여름에도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여러 기관과 학생들이 합동 연수를 했습니다. 복지요령 강의와 단기사회사업 실천 사례를 들으며 각 기관에서 실천한 과업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올해부터 동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복지관이 만나는 방화동을 넘어 그동안 잘 만나지 못한 공향동에 이르기까지 활동합니다. 복지관이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변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마을 안에서 사회사업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향점에서 단기사회사업도 동 중심 사회사업을 이루어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5명의 실무자와 12명의 사회복지 대학생이 뜨거웠던 여름을 동네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방화동에서는 크게 일상생활기술학교와 친구야 놀자, 어린이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공향동에서도 일상생활기술학교와 친구야 놀자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과업	내용
방화동	일상생활기술학교	집안일 배우기
		목공기술 배우기
		텃밭 채소 키우기
	친구야 놀자	골목에서 흙에서 숲에서 물에서
	여행	3~4학년 여름 여행
5~6학년 여름 여행		
중학생 자전거여행		
공향동	일상생활기술학교	요리 배우기
	친구야 놀자	골목에서 흙에서 숲에서 물에서

한 달 동안 동네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놀고 어울렸습니다. 정겨웠습니다.

방화동 여행팀은 권대익 선생님과 3명의 사회복지 대학생이 각각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전재성 예비 사회사업가는 중학생 자전거 여행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행 장소, 이동방법, 일정, 숙소 등을 아이들이 직접 이루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여행 준비물을 도와주셨고 여행 후에는 감사 인사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책은 전재성 학생이 한 달 동안 중학생 여행을 도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활동이 사회사업 근본을 배우고 뜨거운 열정과 가슴 벅찬 감동을 가슴에 담았기를 희망합니다.

7~8월 단기 사회사업 진행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7/2~7/4(2박 4일) 단기 사회사업 합동연수 (전국)		7/18 복지관 소개	7/19 복지관 소개 및 과업 발표	7.20 비전 나눔 및 팀별 회의	
7/23 마을 인사 1차 모임 (규칙 정하기, 연습라이딩 날짜 확정, 전체 일정 소개해주기)	7/24 마을 인사 2차 모임 (여행 조사는 방법 알려주기, 자전거 선생 님 섭외하기)	7/25 아라뱃길 사전 라이딩	7/26 3차 모임 (춘천 여행 경비, 잠자리, 먹거리, 물놀이, 루트 정하기) 철암 출발	7/27	7/28 철암 대학생 여행
7/30 4차 모임 (개별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7/31 5차 모임 (세부적으로 여행 일정 다듬기, IXT예매, 민준이 어머니께서 음식 대접, 세진이 집 방문, 골목 아지트로 방문)	8/1 6차 모임 (멘트 작성 및 펜션 예약, 장보기, 출정식 준비)	8/2 사전거 여행	8/3	8/4 장봉도 대학생 여행
8/6 7차 모임 (여행 회계 경리, 감사 인사드릴 분 정하기, 수료식에 관해 이야기하기)	8/7 8차 모임 (민준이와 수료식에 쓸 PPT 만들기) 친구야 놀자 팀과 수료식 회의	8/8 수료식 PPT 마무리하기, 탁구 동아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기	8/9 삼척 바다 여행	8/10	8/11 자체 수료식
8/13 9차 모임 감사 인사드리기	8/14 기관 수료식, 김성천 교수님 방문, 수료사 나눔	8/15	8/16 합동 수료 연수	8/17	

*당사지와 함께한 날은 색 표시를 했습니다.

김세진 선생님 단기사회사업 특강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숲 공원에서 반갑게 맞이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화장실 가는 동안 짧은 담소를 나눴었는데, 그 부드러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김세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면접 그날 날 특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세진 선생님이 들어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개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기사회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1.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가?

질문을 받고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잘 놀기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답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사회복지현장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들은 공무원으로 나가고, 현장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순적으로 현장 실습을 경험하고 나면 더욱더 현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많은 친구가 현장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현장에 나가는 학생은 5% 내지이고, 하나둘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으로 나가려고만 합니다.

“나는 현장에 나가서 일할 거야”

“일이 힘들고 보수가 적은데, 왜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 거야?”라며 친구들은 말합니다.

친구들이 경험한 실습을 들어보면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꿈을 키우며 실현하기 위한 곳이 학교인데, 꿈을 잃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의 경험은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에게 현장의 소중함과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가와 왜 현장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현장의 느낌을 알고, 진정성 있는 실천가로서 많은 친구가 현장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다움" 사람을 사람답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삶을 살며 과업을 진행하는 동안 주체가 되어 활동한다면, 주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잘 도운 것입니다."

단기사회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돕는다고 하면 대상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어야 잘 돕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강을 통해 주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해준다면 단순한 수혜자에 그치고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활동을 함께하되,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를 잘 주고 묻는 게 잘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단순히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인 질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 잘 묻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주체성과 잠재력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인격적인 관계로, 자세로 대하라

특강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사회사업을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세진 선생님이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실 때, 따뜻한 마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둘의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더 심층적이고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친해지는 것 이상을 넘어 아이들을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같은 눈높이로 대할 때, 비로소 주체성을 높일 수 있으며 활동에 진정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활동한다면 누구보다 당사자와 가까워질 수 있고,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생 간직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강 질문 시간에 권대익 선생님께서 김세진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왜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김세진 선생님을 인정하는지, 찾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김세진 선생님이 하시는 특강에 찾아가고,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면접과 특강을 열심히 준비해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단기사회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후배들을 위해 뜻깊은 특강을 해주신 김세진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물해준 경험 잊지 않고, 배운 그대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전

- ☞ 현장에 꿈을 갖고 준비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번 여름 활동에서 뜻있게 현장을 준비하는 좋은 동료들과 그렇게 실천하는 사회사업가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 네트워크가 현장을 준비하는 좋은 힘이 될 겁니다.

☞ 가만히 앉아서 실습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찾고 움직이고 실천하기를 바라요.

배경이론 : 복지요결

「복지요결」 줄거리

- 1) 사람다움 사회다움 :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 2) 사회사업 개념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 3)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 사회사업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사회사업 윤리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적어도 해치지 않는 겁니다.
- 4) 사회사업 이상 : 사회사업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리는 복지를 지향합니다.)
- 5) 사회사업 철학 : 사회사업은 복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하고, 바탕이 살게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6) 사회사업 주안점 : 사회사업은 생태 강점 관계, 곧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살핍니다.

7) 사회사업 방법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 사회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8) 사회사업가 정체성 : 사회사업가는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연계하고 주게 하는 사람, 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지요결」에서 정의하는 사람과 사회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싶습니다. 사회를 사람 사는 사회 같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야 사람답다 하며 사람 사는 사회 같다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은 이 '사람다움 사회다움'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합니다.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고 이로써 좌우됩니다. 이리므로 먼저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에서 또는 사회사업으로써 잘 살릴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다움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사회사업가가 이루어 주다 보면,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기 쉽습니다.

2)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따르모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둘레 사람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사회사업가가 해주다 보면, 둘레 사람이 멀어지기 쉽습니다. 심하면 무심해집니다.

사회다음

1)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 세계나 다름없습니다.

①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같은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따르모 사회사업은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게 주선합니다. 갈수록 더 다양한 일반 복지 수단을 더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돕습니다.

약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약자와 일반 복지 수단이 서로 멀어지고 약자가 일반 사회로부터 분리되기도 합니다.

②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입니다.

이따르모 사회사업은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이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에서 함께하거나 돕게 주선합니다.

약자를 따로 떼어 복지를 이루어 주면서 ‘와서 봉사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를 도울 일은커

녕 만날 일조차 없게 되기도 합니다.

2) 사람 사는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 사는 것 같다 함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리므로 사회사업은 지역사회에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이웃과 인정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인정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지 않고 복지기관에서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이웃과 인정이 없어집니다.

「복지요결」에서 정의하는 복지관 정체성

1) 복지관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회사업 기관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2)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사회적 복지’를 위한 기관 곧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사회사업 기관입니다.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이로써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이웃과 인정이 있어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지역사회를 이룹니다.

「복지요결」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① 소극적 복지는 나쁜 것을 해소 완화 보완 예방 억지하여 이루는 복지 곧 ‘나쁘지 않은 것 또는 나쁘지 않은 경지’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소극적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는 대개 문제를 찾거나 문제를 접수하여 문제를 다루는 문제 중심 사업입니다. 문제나 약점 같은 나쁜 것을 해소 완화 보완 예방 억지하려는 일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문제를 두드러지게 하여 당사자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낙인을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거나 사회사업가는 대단해 보이고 당사자는 구차해 보이기 쉽습니다. 문제를 굳히거나 키우고 좋은 것을 해치기도 합니다.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② 적극적 복지는 좋은 것을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고 개선 강화하여 이루는 복지 곧 ‘좋은 것 또는 좋은 경지’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적극적 복지를 이루고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좋은 것을 살리는 일, 곧 좋은 것을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고 개선 강화하는 일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당사자의 격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 사는 맛,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부러워 보이게 합니다. 지역사회의 가치를 올립니다. 문제를 해소 완화 예방 억지하거나 문제를 감당 극복하게 하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적극적 복지를 이루고 누리는 경험이, 적극적 복지가, 문제를 희석 상쇄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던 날」을 읽고

우리가 날던 날 주인공인 장백철, 윤동우 박영철, 신경숙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책을 읽으며 누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동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성장했습니다. 결국, 당사자와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중년들은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수줍어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관계의 소중함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중년들이 주체로써 활동한 내용으로 구성된 책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책 한 권 가슴에 담고 갑니다.

“합동 연수에서 미리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다른 팀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정희 팀장님의 말이 와 닿는다.” 26쪽

아직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를 하는 내내 기대감과 불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아이들의 삶, 그 방식대로 맞춰 간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을 어른 노릇 하실 수 있게 돕는 방법에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야기 속에는 어르신의 삶이 있기에 그 삶을 존중해드리기 위해서 잘 듣는 것이다.” 27쪽

공감과 경청은 대상을 막론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감과 경청을 통해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스밀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성훈 씨가 할 수 있는 만큼 거들어 주고 싶다” 29쪽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은 당사자분들에게 모든 과정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105쪽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활동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가 주체가 된다면 당사자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주체가 된다면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여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당사자의 마음을 걱정하고 조심스러워하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삶,

경험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스스로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만 잘해도 사회사업 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경청 훈련, 이거 하나만 잘 해도 사회사업 실력은 태반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요결」 ‘사회 사업과 경청’ 45쪽

“약자 곁에서 일하려는 사회복지사로서 당사자의 상황을 공감하려 애쓰는 과정으로 생각해요.” 49쪽

“사회복지사에게는 당사자의 아래에서 당사자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86쪽

이 구절을 읽는 내내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구절입니다. 특강이나 선생 님들이 말씀하시기도 당사자와의 소통과 공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위나 옆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아래에서 존중을 통해 바라보아야 비로소 잘한 실천입니다.

당사자의 위에 서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당사자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우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위치 그 아래에서 생각하며 이해하는 자세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되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뜻이 있었 습니다.” 61쪽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라는 말을 들으며 배워왔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클라이언트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시다.

이번 경험을 통해 복지 요결에서 강조하는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중점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배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를 하는 것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07쪽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면접 후기 쓰기 전에 권대익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행연구를 하면서 조금씩 실천에 있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게 된 이유도 후대 왕이 기록을 보고 본으로 삼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김미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천기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길을 찾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도 그렇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성실히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냥 여쭙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드린 뒤 여쭙니다.” 123쪽

“두물머리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일을 당사자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논의하고 부탁드렸으면 어땠을까?” 129쪽

김세진 선생님 특강에서도 잘 묻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묻고 잘 듣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정보를 드린 뒤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보나 시간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주체성 위주로 활동하다 보면 ‘잘하고 있구나!’라고 만족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정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사업은 그저 묻기만 하지 않고 또한 의논합니다.” 170쪽

복지 요결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선생님들은 묻고 부탁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고, 당사자와 의논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렵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요결에서는 의논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3가지 과정을 명심하며 활동할 것입니다. 당사자와 사회사업가의 의견이 다를 때는 당사자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거나 당사자의 의견과 다르게 도와야 할 만큼 당위성이나 실익이 있는지 충분히 헤아린 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근본 있는 사회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188쪽

제 인생에 있어 단기사회사업은 처음입니다. 유능하신 선생님들께 많이 배워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천천히 알차게 배워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 있는 사회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슈퍼비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아이들의 삶, 그 방식으로 맞춰 간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사람 사는 세상에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여행도 마찬가지로요? 여행 장소와 일정을 정해도 당일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바뀌기도 하지요. 활동의 목적이 여행이 아니라 과정과 관계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복지요결에서 강조하는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중점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배울도록 하겠습니다.

☞ 많은 서비스보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 재성은 공부하면서 먼저 배우고 있군요. 실천에서도 그렇게 해봅시다.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구절입니다. 특강이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당사자와의 소통과 공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경험과 자세를 자세히 보았군요. 재성은 잘 할 겁니다. 응원해요.

「북소리를 울려라」를 읽고

‘북(Book)소리를 울려라’라는 6명의 아이와 4명의 선생님이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 묻어나는 성장 이야기, 선생님들의 열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까지 전해진 북소리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무튼, 이 작품을 읽어주고 나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뻔할 것 같았는데 뜻밖에 많았다. 책을 읽어주고 활동을 해서 오히려 더욱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선행 사례 연구 중 31쪽

아이들이 가진 생각들은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과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입견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로 인해 당사자 주체가 되는 활동이 아닌, 내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가는 자세로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음식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 음식, 불을 쓰지 않는 음식, 소박한 음식, 몇 개의 기준으로 음식을 정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 각자 집에서 비빌 재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불 쓰지 않고, 소박하고, 음식 실력 들통나지 않고도 풍성한 잔치상을 누렸습니다.” 선행 사례 연구 중 34쪽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배려를 느꼈습니다. 자원을 지원해주는 뜻에서 부담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고,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주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부담 갖지 않게 하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박하게 준비해서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선행 사례 연구 중 34쪽
훌륭한 장비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토대로 즐겁게 활동하며 풍성하게 누려 보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부모님께 아이의 변화를 알립니다.” 선행 사례 연구 중 34쪽
“준비하고 전화 거니 아무지게 잘하던걸요? 활동할 때 읽을 책 목록도 현지가 직접 부탁했어요. 관장님이 칭찬 많이 하셨어요!” 복소리 아이들의 사전 탐방 준비 중 87쪽

김세진 선생님 특강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강점을 칭찬해줌으로써 여행 경험, 아이의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여행을 구실로 아이들의 기분이나 삶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여행도 부모와 아이,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가장 좋은 답을 알려줍니다.” 복소리 단과 면목 7동 새마을 문고 사회사업 실천 이야기 중 48쪽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 활동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

다. 거기에서 나온 답들은 그 어떠한 답 보다는 훌륭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귀담아듣는 자세를 갖고 활동하겠습니다.

“활동 철학” 북소리 단과 면목 7동 새마을문고 사회사업 실천 이야기 중 58 쪽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정한 철학입니다. 우리가 정한 철학을 만든다면 활동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길 것과 동시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싶은 학생을 직접 면접 보고, 선발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북소리 단과 면목 7동 새마을문고 사회사업 실천 이야기 중 42 쪽

“아이들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소리 단과 면목 7동 새마을문고 사회사업 실천 이야기 중 66쪽

“어른들이 아이들 감정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북소리 단과 면목 7동 새마을문고 사회사업 실천 이야기 중 78쪽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활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록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면 더욱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활동의 주체는 아이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 기분보다 다른 일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이들을 먼저 신경 쓰고, 아이들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그 전에 홍보지를 작성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날짜, 시간, 하는 활동을 정확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에 고마워졌습니다.” 실천 이야기 초대장 만들기 중 141쪽

글을 읽으면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점차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아이들을 믿어주는 선생님이 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같이 활동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할 줄 알도록, 상황을 두루 살펴보도록, 벗과 함께 즐길 수 있게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걸 넘어 모르는 것입니다.” 실천 이야기책 구하러 가자 중 137쪽

모르는 척하며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아는 척하게 됩니다. 알 때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르는 척한다면 무의식적으로 가슴속에 있는 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합니다.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러 흐르게 합니다, 바탕이 살게 합니다.” 7월 13일 합동 연수 둘째 날 중 200쪽

“당사자가 구차해 보이지 않도록, 사회사업이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도록, 우물과 시내처럼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7월 13일 합동 연수 둘째

날 중 200쪽

복지 요결은 사회사업 이상의 철학을 배우는 과목 같습니다. 복지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움 사회다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활동한다면 사회사업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 요결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진행될 우리들의 여행이 우물과 시내처럼 흐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를 읽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네 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두 분이 직접 준비하고 떠난 소중한 겨울 여행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마을 장터를 통해 경비를 마련하는 사랑과 광길, 눈썰매를 타며 해맑게 웃는 서연, 다음 여름 여행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어진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선생님 봄인가 봐요. 제 마음속에 봄이 왔어요.”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 사랑이가 전한 말은 매서운 한파가 무색해질 만큼 모두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순수한 그 마음 지켜주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승리, 준기,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서주찬, 김혜선 선생님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여행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의 본질적인 목적

“캠핑 여행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경이와 둘레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좁혀지고, 잘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영 살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 33쪽

합동 연수 계획표 일정에 되돌아가 여행을 가기 위한 계획에 초점을 뒀는지, 아이들과 둘레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관계보다 여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거들뿐입니다. 여행을 못 가더라도 일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제안하며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여행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주체성을 갖고 활동하며, 둘레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묻는 것의 중요성

“너무 열심히 하면 몸이 고장이 나요. 힘든 일이 있거들랑 선임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이 여쭙어요. -「우리가 날던 날」 83쪽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 35쪽

지인의 소개로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사회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실습을 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활동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옛날부터 묻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숫기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수시로 묻는다면 상대방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더욱이 부족한 저로서는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께 묻고 피드백 받아야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묻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께 배움의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묻고, 배워 훗날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려고

합니다.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기

“그러게요, 연습하니까 더 잘하네요, 다음번에 면접 볼 때는 연습 더 해야겠어요.

사랑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겁니다. 집에 가서 많이 칭찬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 65쪽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말 한마디에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방황의 길을 걷다가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에 강점을 발견하여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으로 인해 생겨난 장단점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점을 칭찬해줌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수시로 강점을 기록하여 부모님에게 알려주면, 집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이야기가 오가고 관계가 더욱 애뜻해집니다.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아이들의 강점을 부모님에게 칭찬해주기를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 있게 활동하며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강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좋아요. 광길 말이 따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 133쪽

경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리거나 낮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행동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전거 여행 친구들에게 광길이 했던 말 듣고 싶습니다. 다시 복지 요걸 경청 부분을 읽어 봅니다. 활동 중 휴대전화를 함부로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보게 된다면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청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멋진 여행을 위해 경청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어리니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같은 인격으로 바라보고 경청하겠습니다.

작은 물결이 퍼져 나가서 세상을 바꾼다.

“이곳 철암에는 가슴 따뜻한 동네 이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암 도서관이 동네에서 이웃과 인정을 생동시키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온 봄」 242쪽

오늘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현실을 보면, 산업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면서 과거처럼 집단적이고 협업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단독적이며 공동체가 매우 약화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가족 간의 밀착된 관계에 틈이 생기고, 공동체의 끈끈한 연대가 약화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합동 연수 사례특강 중, 방화동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주신 김미경 팀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역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수시로 왕래를 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하기 위해 복지가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주어진 대로만 활동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활동합니다. 철암 도서관의 작은 물결이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바꾼 것처럼 방화동의 사회사업이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물결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가 놀자」를 읽고

2018년 겨울,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4번째 골목 야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는 아이들이 만나는 장소이자,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요즘에 동네에 가보면 골목과 놀이터,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만날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놀 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공부에 대한 생각은 버리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준비하고 신나게 뛰어놀았던 1박 2일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공부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선행연구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배울 수 있었던 점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놀이의 중요성

“정말 무서운 것은 게임에 가까워질수록 동무와 형제와 같은 사람과 멀어진다는 것이다. 삶이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 가슴 아프다는 것, 힘들다는 것, 눈물겹다는 것, 관계라는 것에서 멀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25쪽

“도환은 앉은 지 몇 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먹고 일어섭니다. 밥보다 놀이 밥이 더 고픈 아이.” 140쪽

“안전 요원으로 온 고등학생 봉사자들도 1시간 만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154쪽

초등학생 때, 아파트에 살았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이자 놀이를 제공했던 곳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이용해 경찰과 도둑을 했으며, 골목을 이용해 축구를 했습니다. 놀이의 과정에서 싸우고 화해하는 법, 친해지는 법, 친구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부터는 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놀기보다는 공부의 중요성이, 1등만 중시하는 사회 풍습으로 친구 개념보다는 경쟁 상대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모순적으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놀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놀이에도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질 좋고 값비싼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끄는 것은 놀이가 아닙니다. 일시적일 뿐이며, 아이들 자신이 주인 노릇 할 때 그것이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그것이 아이들 놀이입니다.

어린 시절 신나게 놀았던 경험을 한 저로서는 아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으로 관계에서 나오는 정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놀지 못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다면, 더욱 냉정해지는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두렵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놀이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주체가 되어 활동을 꾸려가며 책임감을 기르며, 할아버지와와의 대화에서 삶을

배우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라고 합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며 내가 정한 기준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 자유를 느끼며 마음으로 놀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여행을 구실로 친구와 지역주민 간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유년 시절에 간직했던 소중한 추억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될 겁니다. 여행을 통해 한층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전거 여행 잘 꾸려가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물어주는 어른이 필요하다.

“우리 그 두 가지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기획단끼리 만들면 뭐가 좋을까? 만약 다 같이 요리하면 어떤 게 좋지? 걱정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 82쪽

선행연구를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물어야 잘 묻는 것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하여 아이들의 주체성을 흐트리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문제에 잘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강경희 선생님은 아이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지 궁리하고 또 궁리한다고 합니다. 궁리하는 과정을 통해 해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스스로 궁리하고 의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생각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구실로 때와 곳 상황을 잘 살펴 적절

하게 묻는 말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으로 활동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잘 들어주기가 아이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때와 곳, 상황을 살펴 묻습니다. 검토 궁리 의논해 보거나 알아볼 시간이 필요한지, 설명이나 정보 지원이 필요한지, 헤아려 알맞게 조치하고 묻습니다.” 「복지 요결」 79쪽

곳곳에 돌레 사람의 손길이

“골목 야영은 기획단과 제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아이들의 삶터에서 함께 살아가는 돌레 사람들의 친절 도움 배려가 있었기에 골목 야영 활동 이룰 수 있습니다.” 105쪽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들의 자주성을 살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업을 구실로 돌레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주성과 공생성 이 두 가지가 사회사업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가족 외에 돌레 사람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접 찾아가 도움을 청할 일과 만나면 인사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삭막해진 사회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웃에게 도움받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논평을 준비하고, 직접 찾아가 말합니다. 도움을 구실로 아이들은 마을 어른들을 만나 부탁하고 감사하며 관계 맺는 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인사가 자연스러운, 감사함이 일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단기사회사업이 밑거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지역사회에 흐르는 우물이 되어 주민과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거두고 싶습니다.

제가 짠 일정대로 하니까 신나요

“네! 당연하죠. 저 또 할거예요. 다음에도 제가 일정 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73쪽

“호호~ 기분 좋다. 맞아요. 제가 다 했죠! 이번에는 선생님 도움이 별로 없고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174쪽

다른 활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획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새하얀 백지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인지 알게 해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과정을 알았다면 아이들은 조금 더 집중하고, 재미있게 참여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공부하고 부탁하며 채웠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친구와 의논한 대로 계획하여 진행되는 그 과정이 재미있고 다음에도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에 지속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의 여행을 가기 위해 2주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2주 동안 아이들이 계획하는 즐거움 그 속에서 관계의 소중한

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훗날 자신의 삶에 있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잘 거두고 싶습니다.

빈틈은 아이들이 채워주더라고요

선행연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알아 좋기도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로 인해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에 꼼꼼히 책을 읽으며 부족한 부분을 붙임쪽지에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빈틈은 아이들이 채워주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235쪽

이 구절을 읽으며 불안함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 빈틈이 채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하여 아이들이 오롯이 아이들의 것으로 빈틈을 채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내가 여행하는 이유」를 읽고

월평빌라는 장애인 서른두 명, 열한 가구가 사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장애인은 시설 안에만 있어 틀에 맞춰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월평빌라 거주자들의 나이대는 다양하며 하교 후, 퇴근 후 아르바이트, 요가, 공예, 탁구, 승마 등을 한다고 합니다.

밥할 수 있으면 밥을 하고, 가족이 보낸 반찬이 있으면 그것을 먹고, 장 봐서 요리할 수 있으면 요리를 합니다.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행하는 이유에서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엇인지 성훈 씨, 선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가이드 북과 강점 노트를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여행 일정을 설명하고 여행을 다녀와서 둘레 사람들에게 추억을 자랑합니다. 사람 사는 것,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다.가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다.” 31쪽
면접과 합동 연수를 마치고 선행연구를 공부해오면서 세운 계획들을 보며 ‘이 정도면 아이들을 돕는데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

다. 아이들의 주체성과 공생성을 생각해오면서 세운 계획이었지만 이 구절을 읽자마자 지금까지 세운 계획들이 허투루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고, 복지 요걸을 통해 배운 자세를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에게 해줄 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풍성한 활동을 만들고 싶습니다는 제 욕심이 컸나 봅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체성, 공생성,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숙지하고 있어야 당사자를 아래로 보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계획하여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별로 만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애가 정상이 아니니 그러니 잘 알아서 봐주세요.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해요.” 58쪽

할머니가 손주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 적어봅니다.

정신보건복지론, 장애인 복지론을 들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별과 무시에 대한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와 질병,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더는 차별이 아닌 단순한 차이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과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방송에서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뿌리박힌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장애 비하는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는 동시에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함께하는 사회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선으로 배려할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나아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본다면 모두가 그를 위해 보듬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인해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뼈아픈 고통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물론 혼자서 활동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거들어 준다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스스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월평빌라 사례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고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연스럽게 장애인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택배기사 아저씨에게 성훈 씨 이름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102쪽

“선영이 하고 후 농협에 들러 합천 숙소 경비를 입금했다. 입금 후 문제로 쿠팡이 왔다. 선영이가 원하는 방을 골랐다. 대학생 팀은 예약자 ‘정선영’과 같이 가는 언니이자 둘레 사람일 뿐.” 179쪽

‘당사자가 주체가 되도록’은 사회사업 방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소소한 것으로부터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여행이다.’라고 느낍니다.

내 여행이라고 느낄 때, 진정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내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둘레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행연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 방법으로 가는 것을 다 고려해 봐도 비용면에서 일정 면에서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답을 주는 동시에 아이들의 주체성을 흐트리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최희정 선생님은 당사자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결정했다고 해도 꼭 그렇게만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을 권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거드는 일은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주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선택과 생각의 폭을 넓혀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겠습니다.

당사자의 강점을 바라봅니다

“성훈 씨가 지금까지 잘했던 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일, 응원과 지지 그리고 격려의 글, 한쪽에는 글을 적고 다른 쪽에는 사진을 붙입니다.” 143쪽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싶은지, 바라보려고 하는지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사자를 대하면 당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의 강점으로 당사자를 본다고 합니다.

선행연구를 하면서 회의록을 만들었습니다. 회의록 항목에 ‘친구들이 잘한 일’을 추가했습니다. 강점 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록에 친구들이 잘한 일을 각자 적고 말합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보려 노력할 것이며 자신감이 상승하고, 관계가 진전되며 감사와 감동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구실로 만남을

월평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러 활동을 하며 삶을 살고 있지만, 큰 여행을 혼자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행을 구실로 사회사업을 하고, 여행을 구실로 네 자매가 모일 수 있었고, 할머니와 처음으로 여행을 가봤다고 합니다.

아이들 온다고 미역국 끓여주시고, 떡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큰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 민준, 준기가 활동하며 둘레 사람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둘레 사람 모두 잘 어울려 만남에서 감사할 줄 알고,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통해 훗날 동생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토영 살이」를 읽고

불별더위가 지속하는 여름을 이겨내고 9명의 아이와 강보경 선생님은 용남면 지도섬으로 ‘자전거 캠핑 여행’ 다녀왔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둘레 사람들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적장애 인인 보경이와 친구들의 자전거 여행을 위해 둘레 사람들 전체가 도왔습니다. 실습생의 욕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보경이와 둘레 사람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보경이와 둘레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욕심이 아닌 보경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놀이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에 집중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니 둘레 사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둘레 사람 힘으로 만든 자전거 여행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중요한 건 당사자의 주체성입니다

“보통 복지관을 보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짜고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주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9쪽

이번 주 토요일 학교에서 열리는 방학 중 실습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실습하는 친구들과 교수님이 문제나 고민을 토의하는 시간입니다. 실습생들의 궁금한 점을 칠판에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에

서 복지 요결에서 배운 ‘당사자 주체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선의관악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예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수록 관계가 소홀해지고 더불어 사는 일이 줄어듭니다. 선의관악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이 복지이며 앞으로도 지속하여야 합니다.” 대학교 방학 중 세미나 중 교수님 말씀

복지 요결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기사회사업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래 OO 복지관은 3년 동안 우수기관 타이틀을 포기하고 당사자에게 중점이 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고 그로써 사람들과 어울리게 돕는 사회사업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복지를 이루고, 주체의식과 역량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인사의 중요성

사회사업에 관한 책을 보면 동네 인사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당사자, 지역사회에 두루 인사를 다닙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되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고 서로를 이해하

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보경이에 대해 하나씩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을 알아갑니다.” 63쪽

사회사업은 사회사업가에 의해 복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의 복지를 보이지 않게 이루게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통해 당사자의 강점을 알게 되고, 지역 정서와 문화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복지가 된다고 합니다. 인사 다니며 만나는 사람과 보고 듣는 것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 반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인사하여 잘 듣고 잘 녹여 스며드는 복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부리지 말자

선생님들이 보경이와 만남에서 자전거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보경이가 거절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보경이에 게 큰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싶어 많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아이들에게 부담되지 않는지'에 대해 잘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열심히 계획한 자전거 여행이지만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활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게 한다면 활동을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내 욕심이 아이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 살이’이게 도우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높아집니다.” 「복지 요결」 50쪽

복지 요결을 다시 봤습니다. 사회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 살이’ 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추구하지 말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렇게 여기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게 돕고 싶습니다. 잘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일하는 현장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은 발바닥을 통해서 옵니다. 사회사업하는 열정 지혜 자신감 저력, 모두 발바닥에서 나옵니다.” 「복지 요결」 97쪽

자전거 여행을 준비하던 선생님들은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보경이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잠자리, 먹거리, 보경이와 가까워지기 등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돕고자 실무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 치료사 선생님, 마을 대표님, 해피프로보노 대표님 등 보경이의 둘레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학생 선생님들은 성실히 돌아다니며 둘레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박진한 대표님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집을 내주셨고, 자전거 전문가인 박진석 대표님은 아이들과 1박 2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입원 중에도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함께하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며 말씀하신 이장님은 용돈을 주었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며 음식, 과자, 과일을 싸다 주신 부모님으로 인해 이번 여행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며 관계를 형성해 놓은 선배님들의 노력과 그 노력을 다시 한번 두텁게 만들어 준 대학생 선생님들이 열심히 발로 두루 다닌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사업은 발바닥을 통해 온다고 합니다. 발바닥이 닳도록 두루 다니며 인사하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지 않고 안에서 일만 한다면 이러한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선배님들이 형성해 놓은 관계 제 두 발로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사회사업가의 역할이자 진정한 사회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준화 선생님과 최선웅 선생님 만남

합동 연수 2일 차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서 선행연구를 통해 알게 된 이준화, 최선웅 선생님과 대화 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4주 계획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 꼭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방화11 여행팀과 서귀포 여행팀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준화 선생님 이야기

호숫가 마을도서관 자전거여행 선행연구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의 노력과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 허투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행연구를 했을 때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길에서 숙박하기 위해서는 코펠과 버너,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코펠과 버너, 여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함께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음식을 해 먹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당연히 라면과 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떻게 조리할지에 대해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하면서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야 여행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이 시작되었다면 저는 아이들의 주체성을 무시할 뻔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묻기보다 ‘라면과 쌀을 준비해가면 어떨까?’라는 일반적인 답을 제시할 뻔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음식 조리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무엇을 먹을지 정해야겠습니다. 부탁하더라도 아이들의 주체성을 신경 써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이 정말 중요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여행의 즐거움도 떨어집니다.”

호숫가 마을도서관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꾸준히 운동한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체력은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대장정 여행을 떠나기 전 운동을 열심히 했고, 결국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탄다기에 당연히 체력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행 도중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져 중간에 그만두게 될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바로 계획서로 달려가 체력에 대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아이들과 의논을 통해 우리의 체력을 확인하고, 체력을 기르고, 체력에 맞춰 경로를 구성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온종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감사 잘하고 싶습니다. 사회사업 감사만 잘해도 절반이란 말이 와 닿는 하루입니다.”

둘레 사람들은 바쁜 시간을 내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통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주시는 이웃분들 덕분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을 넘어 신경 써주는 부분까지 감사함을 표할 것입니다.

최선웅 선생님 이야기

“장비, 경험, 재주도 없는 데 간다.”

3가지의 조건이 없다면 여행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여행을 갔습니다. 가진 자원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훌륭히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행 전, 여행가자! 외쳤던 아이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이 막막함을 이겨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두려움을 떨치고, 일정을 계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비와 재주가 없으니 직접 구하러 다니면서 둘레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둘레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구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장했고, 관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배우고, 관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여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거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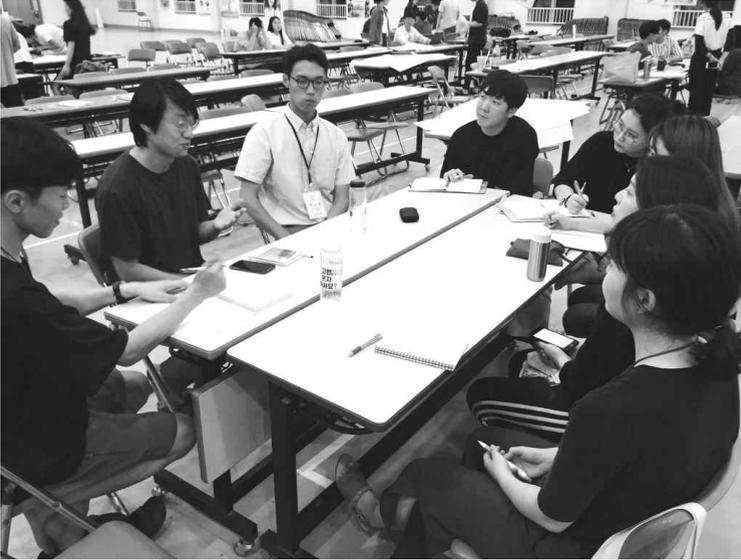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자전거 고치는 법을 알려주신 아저씨는 자전거에 대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직접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마도 선생님과 아이들의 진심이 전해졌나 봅니다. 아이들은 또 다른 둘레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정식, 환영식, 환송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출정식 때는 아이들이 직접 PPT를 제작하여 둘레 사람들에게 여행에 관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환영식에는 모르는 둘레 사람들까지 나와 아이들의 여행을 축하해준다고 합니다. 환송식에서는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둘레 사람들에게 잘 보였나 봅니다. 선생님께서 옆에서 거들며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나 봅니다. 스스로 계획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가는 모습 배웅해주고, 오는 모습 마중 나왔나 봅니다. 아이들의 땀과 터질 듯한 근육을 보며 고생했을 생각에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찬물을 뿌려주며 땀과 눈물이 섞이고 자연스럽게 둘레 사람과 아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지 요결에서 배운 사회사업의 본보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둘레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둘레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아낌없이 감사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숫가 마을의 사례가 둘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우물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여행을 만들도록 잘 거들겠습니다.



이준화 선생님, 최선웅 선생님과 만남

슈퍼비전

☞ 모험도감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한 번 책을 찾아봅시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여쭙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철암도서관 인택, 호숫가마을도서관 신의도 자전거 여행이 과업이에요. 두 동료의 글도 살펴보면 좋겠어요.

☞ 중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만났지요. 한 명 한 명 체력도 살펴보고 훈련을 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재성이도 훈련을!

중학생 당사자 면접

6월 23일, 단기사회사업을 함께 진행할 친구들과 선생님 간에 첫 만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친구들과 활동 하고 싶었던 저로서는 면접이 떨리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면접 날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가고 싶었지만 기대감과 긴장으로 인해 잠에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기에 단정하게 준비했습니다.

시간에 맞춰 나왔지만, 버스가 막히고 지하철이 오질 않으니 마음이 다급해지고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첫 만남을 망칠 수 없었기에 마음을 다잡으며 왔습니다.

까치산역에 도착할 무렵 권대익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재성 유진 채령 민정 성은 광재 지연 7명은 10시 50분에 김포공항역에서 인사 나눈 후 5호선 방화행 열차를 타고 오세요."

연락을 받고 의아했습니다. 개화산역에 모여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0시 50분 정확히 7명의 선생님이 모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권대익 선생님께 연락한 후 개화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첫 만남이라 그런지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개화산에 도착하여 출구로 나오자마자 건너편에 많은 친구와 선생님들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방화 친구들의 정이자 면접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말입니다.



개화산역 환영 풍선 들고 있는 민준 준기 승리

인사를 나눈 후 저와 유진이의 풍선을 들고 있던 준기, 승리, 민준 이를 만났습니다. 환영 인사를 해준 것만으로도 벅했는데, 얼굴 사진이 있는 풍선까지 준비해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풍선을 주면서도 수줍어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아마도 유진이기가 있어 더욱 수줍었나 봅니다. 풍선을 들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 대화했습니다.

"남자 선생님보다 여자 선생님이 좋죠?"

아이들의 대답은 '네' 였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고 12명의 선생님은 각자의 면접 대기실로 향하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메뉴판이 보였습니다. 색연필로 토박토박 쓴 글씨를 보니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노력과 정성이 보였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일찍이 와서 고생한 아이들을 생각하니 대견스럽고 고맷습니다.

대기실에서 유진이와 대화를 하고 있을 무렵 승리, 준기, 민준이가 메뉴판을 보여주었고, 메뉴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달콤한 블랙커피를 주문했고, 정성스레 타준 커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면접을 준비하러 갔고, 첫 번째로 면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마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긴장되어 준비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진심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기소개를 마치고, 아이들이 준비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용 자전거 갖고 계세요?"

"자전거를 잘 타시나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리더란 어떤 모습인가요?"

"체력은 좋은가요?"

글을 쓰다 보니 유진이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비슷함을 느낍니다. 아마도 같은 질문을 받았나 봅니다. 면접하면서 준기와 민준이는 자전거 동아리를 할 만큼 상당한 실력을 갖췄고, 승리를 포함해서 개인용 자전거(픽시)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면접 후 아이들과 대화

3명의 아이는 자전거를 사랑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굉장히 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꼭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힘이 쭉 빠졌습니다. 민준, 승리, 준기는 대기실로 왔고,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으러 3층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냄비와 김치, 라면 10봉지를 준비해주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역할을 맡아 뒷정리를 하고 아이들은 면접실로, 유진이와 저는 대기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인사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유진이와 저에게 편지를 써주었고,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이 만남이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만 즐거웠던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승리, 준기, 민준이가 누구를 뽑든 간에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박토박 쓴 글씨를 보며, 그 정성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느낍니다. 저도 편지로 감사함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서 승리, 준기, 민준이는 누구를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제 마음이 전해졌나 봅니다. 마음을 알아주어 고마웠습니다.

여러 면접을 봐왔지만,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면접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긴장되었지만, 아이들의 미소가 제 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에 대한 노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진심으로 움직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년 자전거 여행 당사자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준 승리, 준기, 민준 그리고 권대익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면접실 벽면

슈퍼비전

개화산에 도착하여 출구로 나오자마자 건너편에 많은 친구와 선생님들의 환한 미소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방화 친구들의 정이자 면접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말입니다.

☞ 두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풍선 아이디어도 직접 내고 꾸몄지요. 표현을 잘 못 하지만 그 마음은 전해졌지요?

또박또박 쓴 글씨를 보며, 그 정성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느낍니다. 저도 편지로 감사함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정성이 담긴 선생님의 편지. 얼마나 좋을까. 고맙습니다.

고등학생 당사자 면접

서로의 시간대가 맞질 않아 자전거 여행과 설악산 여행 두 차례 나눠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보경과 지우가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면접 날짜는 24일이었지만 보경과 지우는 20일부터 모여서 준비하였습니다. 보경과 지우도 선생님이 누군지 이해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고 파악한 후에 여러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0개의 질문이 만들어졌고, 친구들이 압박 질문을 해도 되냐는 말에 긴장되었지만, 이렇게 질문을 알려주는 것 또한 면접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고,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질문에 잘 대답하고 싶어 일찍 도착하여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4시 50분까지 개화산역에 모여 유진이와 함께 오세요."

예상보다 20분가량 일찍 도착하여 나가려는 순간 권대익 선생님께서 문자 왔습니다. 첫 면접 때처럼 고등학생 친구들도 우리를 반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50분에 유진이와 함께 개화산역에서 만나서 나오려는 순간 권대익 선생님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개화산역에서 복지관까지 걸어오세요, 고등학생은 마중 나가지 않는대요."

아쉽지 않았습니다. 보경과 지우가 매우 수줍었나 봅니다. 복지관 입구에 도착하고 권대익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이 매우 부끄러워 나오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문 뒤에서 저희를 환영해 줌과 동시에 깜짝 놀라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만 깜짝 놀랐습니다.



환영 카드 작성 중인 보경

수줍게 환영카드를 들고 반갑게 인사해주니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분위기는 좋아지고, 부담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한 후에 어제처럼 대기실에서 정성껏 준비한 메뉴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커피 말고 메밀차를 부탁했습니다. 보경과 지우는 잘 못 탄다고 했지만 저는 그 어떠한 차보다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면접 전 서로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직은 낮가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이 넘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유진이의 면접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줄 알았는데 인사를 하고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경과 지우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했습니다. 자기소개 부분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리고 싶어 천천히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친구들이 준비했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척 활발한데 감당하실 수 있나요?"

"등산 중에 어려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음악을 배운다고 하셨는데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질문들에 심도가 있어 준비한 대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히 대답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 권대익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애들이 수줍어하지 않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수줍어하는 모습이 익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낯선 사람을 대 접하는 과정에서 먼저 와서 준비하고, 환영해 주고, 차를 대접하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잘 해주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선생님과 면접 합격 여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쯤에 보경과 지우가 소식을 알려주러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두 분 합격입니다. 축하드려요!"



합격 소식을 전하는 보경과 지우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둘 다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믿어주어 고맙웠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 끝까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바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친구들과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면접과 같이 두 번째 당사자 면접 또한 넘치는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준 보경과 지우, 권대익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면접 후 단체 사진

친구들과 인사를 한 후에 선생님과 잠깐 선행연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선행연구를 열심히 해야 프로그램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체성을 갖고 면접을 진행하는 아이들의 노력, 아낌없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권대익 선생님의 열정을 보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서로에게 뜻 있는 결과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당사자 면접은 저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심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비전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체성을 갖고 면접을 진행하는 아이들의 노력, 아낌없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권대익 선생님의 열정을 보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 좋은 욕심이네요. 이런 욕심은 더 키워도 괜찮아요^^

합동 연수

합동 연수 길에 오르기 전에

2018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라북도 남원시 지리산 유스캠ป์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될 합동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며 교제할 연수입니다.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슬이가 권유하지 않았다면 전 일반실습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연수 또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수의 길에 오르게 해준 다슬이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선행연구를 하면서 문득 합동 연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첫 실습이자 첫 연수였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해보던 중에 사회복지 정보원에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만 보던 한덕연 선생님과 면접날 특강을 해주신 김세진 선생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회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 기대되었습니다.

연수를 위해 선행연구를 하고, 명찰과 엽서를 만들었으며 내가 맡은 사회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4주 계획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하며 커진 마음의 불씨를 갖고 지리산 합동 연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리산유스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 한 차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따로 준비된 차를 타고 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탑승한 차에는 방화실무자 선생님들과 대학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옆에서 사랑을 주시던 김미경 선생님, 가는 길 지루하지 않게 노래를 부르던 권대익, 손혜진 선생님, 떠들다가 깊은 잠에 빠진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리산유스캠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잠에서 깨보니 지리산,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복지관에 사람들이 와있었습니다. 연수가 아니었다면, '언제 이렇게 많은 복지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라부라 짐을 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과 김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밥과 김치만 제공됩니다.”라고 했기에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복지 요절을 받아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방화11 팀이 일찍 도착했나 봅니다. 강당에 도착했을 때, 식당에서 보았던 사람들보다 3배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실감이 납니다. 서로 몰라도 인사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 어설프지만, 다들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방화11 현수막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방화의 열정이 사방에 퍼지고 있는구나’ 느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기 전, MC용 선생님의 주도 아래 복지예술단에서 개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은 복지인’, ‘몽계구름’, ‘바위 처럼’ 등 다양합니다.

복지인 노래 18개의 곡을 추가하여 듣고 다녔지만, 한 장소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듣고 부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다 외우지 못했지만,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하루 전날 와서 준비해준 복지예술단 분들께 감사함 전합니다. 이어서 사례특강을 들었습니다.

김세진 선생님 사례특강

‘구슬 꿰는 실’ 김세진 선생님께서 기관별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김청옥님이 이루는 이웃 초대 집들이, 안산 상록장애인복지관 2016 여름 단기 사회사업, 김자영 선생님과 박유진 선생님의 실천 이야기였습니다.

“면접-> 마을 인사-> 요리, 율동-> 집 정리-> 집 정리 초대장-> 중간평가(2주)-> 초대장 전달-> 집 정리, 장보기-> 집들이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김세진 선생님 특강 중

김청옥님의 사업 진행 과정입니다. 이것을 예로 사회사업 어떻게 진행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자주 성과 사업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사업을 담당한 선생님들은 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김청옥씨가 둘째 사람 간의 관계를 주선하며 활동을 꾸려간 모습이 훌륭했습니다. 결국, 이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업이 여기서 끝이 아닌 지속 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박시현 선생님 사례특강

박시현 선생님은 월평빌라에서 중증장애인을 돕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설 지원의 중요한 점은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개별로 지원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단기사회사업을 구실로 개별로 지원하는 방법은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전성은 씨는 떨어진 가족과 만날 수 있었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세 명의 손녀들은 할머니에게 밥 한 끼를 차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속해서 운영될 거라 약속했습니다.

아저씨가 양복을 입고, 발바닥에 물집이 터질 때까지 걸어 다니는 건 쉬운 일
이 아니다. 3주 동안 30곳 다녔고, 사장님 마음에 들어 일주일에 3번 일하
기로 약속했다.” 박시현 선생님 특강 중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일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을 구실로
시설입주자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당사자가 주체성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사회사업 하신 내용 들으니 앞으로 사회사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자전거여행 4주 동안의 계획이 조금씩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
습니다.

다시 한번 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방법을 잘 실천하여 우리의 여행
이 잘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사업가 한덕연 선생님 특강, 복지 요결

식사송을 부르며 밥과 김치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휴식 후 한덕
연 선생님의 「복지 요결」 강의를 들었습니다. 합동 연수 전 복지 요결을
읽으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 요결」의 개념, 가치와
윤리들을 잘 필기하며 들었습니다. 졸림을 무릅쓰고 들으니 시간이 훌
쩍 지나갔습니다.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다움과 사회다움” 「복지 요결」 11~12쪽

선행연구를 하면서 많이 거론되었던 문구였습니다. 혼자 복지 요결을 공부하며 생각했던 느낌을 되풀이하며 강의를 듣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한다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다고 합니다.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 세계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여러 조직 서비스, 문화 등 약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마음가짐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주체성을 위해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둘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회사업은 더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을 나누는 사회보다 사적인 공간이 발달한 사회, 특히 관계와 소통이 줄고 있는 도시에서 이웃과의 인정을 살려 사회사업 하고 싶습니다.

대신하는 복지 말고 이웃과 인정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지를 하고 싶습니다. 당사자들이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정을 나누고, 이웃이 정을 통해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동 청소년 가족 사업, 여행, 순례를 읽고” 「복지 요결」 114쪽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마음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가능성을 열어주려고만 했지 아이들이 직접

정보를 찾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주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직접 자료를 찾게 해준다면 그만큼 훌륭한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특강을 들으며 바로바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아이들과 선행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해결책이 생길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주 동안 계획을 세웠지만, 강연을 들으며 하루빨리 아이들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개별 상담, 일대일 데이트를 설명하시면서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랑 따로 만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속에서 내가 몰랐던 아이들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정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시간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강점과 장점, 고마운 일을 정리하여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모두 열정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구슬 팀은 따로 모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11시에 가까워졌습니다. 피곤했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잊고 싶지 않아 가방 메고 다시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활동을 했던 실무자 선생님께 강연을 듣는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복지 요걸을 펼치고 노트북에 옮기면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배울 게 많은 책이었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더욱 성숙한 사회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사업 활동이 끝나도 하루의 일상으로서 가슴에 복지 요걸을 품고 다녀야겠다는 다짐으로 첫날 마무리하였습니다.



합동 연수 첫날 방화11 단체 사진

복지 요걸 특강으로 시작한 둘째 날

오전 6시 30분 눈꺼풀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7시까지 샤워를 마치고 잔디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힘든 기색 내지 않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밥과 김치를 먹으면서 어제 다른 기관에서 과자를 사 먹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취지에 어긋나고 싶지 않아 참고 참았습니다.

준비를 마치자마자 복지 요걸을 들고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지예술단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인데도 어찌 저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파이팅 넘치게 춤을 추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 요걸을 듣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졸리면 자라는 한덕연 선생님의 농담으로 조금은 졸음이 가셨지만, 끝날 때까지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복지 요걸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회사업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부분까지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배우고자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합니다.” 「복지요걸」 51쪽

‘복소리를 울려라’ 선행연구를 할 때 체크 했던 부분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강연을 통해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복지를 단순히 제공하는 서비스라 생각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함께 흘러 갈 수 있는 우물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중점을 두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느낌으로 인해 당사자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사회복지사가 중점이 되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를 지역사회에 흐르는 우물로 여겨 누구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우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하여 흐를 수 있습니다. 둘레 사람들은 우물을 통해 만나고 함께 가꾸어 가는 과정을 통해 정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통해 정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행연구 초기에는 와 닿지 않았지만, 강의를 통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복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여행이 지역사회의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사업에서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름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라고도 합니다.” 「복지 요결」 56~63쪽

복지 요결을 접하기 전, 강점에 대해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기억은 잘 나질 않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당사자 보다 사회복지사의 강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사자의 강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당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당사자의 장점을 살려 복지를 이룹니다. 그러면 장점은 곧 강점이 되고 단점은 보지 않기 마련입니다. 복지 요결 강의 들으며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인해 장점, 단점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장점,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사업가로서 이중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덕연 선생님 복지 요결 특강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점을 활용하여 진행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강점에 집중하다 보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

성을 해치기 쉽고, 활동의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의미가 있는 사회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저 함께 거들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강점보다는 당사자가 가진 강점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자세로 복지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사업 방법 중, 인사, 감사, 문기 의논하기 부탁하기...” 「복지 요결」
79~86쪽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인사 다니면 당사자와 지역사회
의 복지 바탕이 살고 이런저런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복지 요결」 79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구절은 복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도움이 되는 말 같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서슴없이 먼저 다가가 밝게 인사하고 포용하고 하이파이브를 쳤습니다. 다들 밝게 받아주고 거절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와 포용했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인사뿐만 아니라 한마디 건네주었습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연수는 어때요?, 많이 피곤하시죠.”

처음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지만 인사 하나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건네니 어느새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인사 하나로 몰랐던 사람과 대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인사를 밝게 하고 들어가면 아주머니께서 서비스를 더 주십니다. 그만큼 인사의 힘은 어떤 힘보다 크다는 걸 느꼈

습니다.

지역주민도 처음 보는 대학생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학생들은 밝은 미소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인사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듯이, 더 큰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이번 활동, 인사를 통해 지역사회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사업 반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웅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둘레 사람 열 분이 함께했다.”

사회사업의 목적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쪽에 돌리는 감사가 많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많은 관심을 두고,共生성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많은 둘레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전해주는 소중한 가치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감사를 통해 둘레 사람들과 많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활동했던 과정을 둘레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빛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잘 알고 결정하게, 두루 알아보고 서로 의논해 보게,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함이 잘 묻는 겁니다.” 「복지요결」 82쪽

강연을 듣고 잘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잘 묻는 것은 정해진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의논하여,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함이 잘 묻는 거라고 합니다.

잘 묻고 싶어 4주 계획표를 구성하면서 ‘잊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을 작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싶어 조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복지 요걸을 통해 배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잘 묻고 잘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당사자 의견을 존중한다고 당사자가 원하면 다 좋다는 식으로 그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습니다.” 「복지 요걸」 83쪽

당사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주체성이 어긋남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책에서는 제안 설명하고 절충 타협 설득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존중하며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마땅히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따르라고 합니다.

내 의견을 말하되 당사자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함과 둘레 사람과 문헌 연구를 통해 당사자가 수공할 때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잘 의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신중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사자가 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를 이루는 과정을 세분하고 당사자의 강점을 살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 요걸」 84쪽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인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활동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아이들의 부탁이 아닌 내가 해결하는 일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주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을 최소화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주도하에 활동을 채워나가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아낌없이 강의해주신 한덕연 선생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복지 요걸 수업을 들으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러 갔습니다. 이번 일정은 사례특강을 듣고 각자 궁금했던 점을 여러 선생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무자 선생님과 대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

강민지 선생님의 나가 놀자, 김별 선생님의 일상생활기술학교, 김미경 선생님의 우리가 날던 날, 정우랑 선생님의 골목 놀이터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행연구를 통해 몇몇 주제는 숙지하고 있었지만 몰랐던 주제를 들으니 새롭게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랑 선생님의 '부모님 설명회' 내용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활동의 취지와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점 등 설명회를 해봄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이가영 선생님께서는 활동에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책과 논문을 통해 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다면 활동이 더욱 의미가 있고, 부모님과 둘레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여행을 하는지 소개할 때에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 느꼈고,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지 선생님 사례특강

구체적인 사업기획

저녁 시간 뒤 팀별로 단기사회사업 세부 일정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로 각자 위치에 모여 앉았습니다. 유진, 성미와 함께 강당 위에

았었습니다. 권대익 선생님께서 각종 필기구류와 전지를 갖다 주셨습
니다.

일정표를 그리려고 할 때 김세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
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 것은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
다.”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진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합동 연수 전 고심하며 짜왔던 계획안을 갖고, 복지 요결에서 배운 대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토대로 권대익 선생님과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계획표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
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꼼꼼히 읽으시며 물으시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정
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팀별로 모여 회의를 하며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뜻있는 활동을 하
기 위한 목표 하나로 열정을 쏟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니 두 날개
가 달린 것처럼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
억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하루하루 일정을 살피고 또 살피
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뭔가 부족한데... 이걸 추가할까...?’ 끊임없이 지우고 고민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있을 무렵 정우랑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내일 여러 사람에게 브리핑 과정을 통해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쉽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기로 하고, 내일 피드백 과정을 통해 다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표 계획하기

벌써 시간이 3시가 넘었습니다. 완성된 계획표는 아니지만 뿌듯했고, 기분 좋은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아직 여러 실무자 선생님들과 대학생 친구들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논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같이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노력이 있기에 지역사회가 살 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일정표 브리핑

아침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아쉽고 섭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계획표를 많은 선생님께 발표하는 시간과 김세진 선생님의 보고서 특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선생님과 친구들이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기관의 선생님 성함이 기억나질 않아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기억에 남는 말을 적어보려 합니다.

“이렇게 뻑뻑하게 구성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랑 함께 활동하다 보면 제가 생각한 계획안은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만나 아이들이 좋겠네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이 사업 잘될 것 같아요, ”

울컥했습니다. 공부를 해오고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노력이 물거

품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대 (전 재 선)	방화 11	중학생회								
지역인사	7/25	7/26	7/27	7/28	7/29	7/30	7/31	8/1	8/2	8/3
당사자 인사	7/25	7/26	7/27	7/28	7/29	7/30	7/31	8/1	8/2	8/3
계획하기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D-DAY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수료연수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실무자 선생님, 동료들 앞에서 발표한 일정표

시간이 비어 옆에 있던 기웅이가 설명하는 것을 듣던 중 한덕연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자전거 여행 가네요.”

“네, 이번에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꼼꼼히 작성했네, 1박 2일만 가기에는 아쉬운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시간이 비니 새로운 것을 해보야겠습니다.”

방화11의 자전거 여행 외에도 철암, 서귀포에서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 한덕연 선생님께서 자전거 여

행팀을 불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마이크에서 자전거 팀을 소집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달려갔습니다.

자전거 여행 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덕연 선생님께서 자전거 여행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간다는 생각 말고, 여행 가는 길에 주제를 정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당일치기라도 좋으니 주제를 정해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일정이 조금 빨리 시작되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한덕연 선생님의 조언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의논해서 합의된다면 실천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에도 철암팀, 서귀포팀, 다른 제주도 팀에서 제 자전거 여행에 신경 써주셨습니다. 다들 제 계획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좋은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또한, 잘 배워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다 적고 싶지만 제 기억력의 한계로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대신 이렇게라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설명해야 했기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자리를 비워 다른 친구들의 계획안을 보러 갔습니다. 다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고생했을 거란 생각을 하니 괜스레 마음이 짠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사업 잘 이루어 합동 수료연수에서 하루빨리 각자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김세진 선생님의 보고서 특강

계획서 브리핑이 끝나고 합동 연수 보고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글 쓰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다시는 피하지 않고, 마주 보며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한 줄을 쓰기 전에 백 줄을 읽자” 책 한 권 쓰려면 백 권을 읽어야 합니다. 읽기가 안 되니 쓰기가 안 됩니다.

단기 사회사업 기록은 창조? 모방!,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풍부한 자료 뒤에 영감이 따라옵니다...”보고서 특강 중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써봐야 한다고 합니다. 한 줄을 쓰기 위해 백 줄을 읽는 것에 비하면 글을 쓰기 위해 오래 걸렸던 시간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행연구를 참고하며 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까 봐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책을 읽고 선행연구 공부를 성실히 하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한 권 쓰려면 백 권을 읽어야 한다는 것과 풍부한 자료 뒤에 영감이 따라온다는 말 명심하겠습니다.

합동 연수를 마치며

보고서 특강을 마치고 나서 한덕연 선생님, 김세진 선생님, 박시현 선생님, 김동찬 선생님이 합동 연수 소감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시현 선생님의 눈물을 보고 단기사회사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느꼈습니다. 우리와 사회사업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3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 속에서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 복지예술단,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는 선생님들, 열정으로 보답하는 학생들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를 많이 신경 써주신 방화11 실무자 선생님들과 이 모든 경험을 함께 공유한 방화 실습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훗날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뜻을 두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소중히 여기며,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방화11종합복지관의 실무자 선생님들과 실습생

슈퍼비전

정을 나누는 사회보다 사적인 공간이 발달한 사회, 특히 관계와 소통이 좋고 있는 도시에서 이웃과의 인정을 살려 사회사업 하고 싶습니다. 대신하는 복지 말고 이웃과 인정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지를 하고 싶습니다. 당사자들이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정을 나누고, 이웃이 정을 통해 '사람다움과 사회다움'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이웃과 인정으로 사회사업 하겠다는 마음, 대신하는 복지 말고 관계로 실천하겠다는 마음. 고맙습니다. 그렇게 실천해봅시다.

다양한 정보를 주고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직접 자료를 찾게 해준다면 그만큼 훌륭한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 때로는 직접 정보를 찾고 선택하도록 해도 되겠지만 자전거 여행에 참여하는 중학생 아이들은 직접 정보를 찾고 계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아이들과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여행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강점보다는 당사자가 가진 강점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 아이들과 동네 이웃이 자전거 여행에 관여하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공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팀별로 모여 회의를 하며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뜻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목표 하나로 열정을 쏟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니 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 꼼꼼하게 메모하고 궁리하던 재성의 모습이 떠올라요. 두 날개 달린 것처럼 날아갈 것 같았다는 표현에서 재성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도 이리하겠지요? 재성이 옆에서 거들고 중학생 아이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궁리하면 중학생 아이들의 마음도 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갈 겁니다.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자신감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더는 피하지 않고, 마주 보며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 함께 글 쓰는 일에 힘써봅시다. 잘 도와줄게요.

여름 여행 실천 이야기

마을 인사 다녔습니다

격려 글 나눔 마치고 방화동 팀, 김미경 선생님 권대익 선생님과 마을 인사 나섰습니다. 첫인사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는데 선생님들께서 마을 인사 목적과 인사하는 방법 알려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다니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살고 이런저런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인사 자체가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인사받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존심 얽치 체면 예의 품위 차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 합니다. 사람 구실, 주인 노릇, 어른 노릇 하게 됩니다. 이해 옹호 협력 늘어나고 오해 비난 견제 멀어집니다.” 「복지요결」 79쪽

방화 12단지 11단지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하시는 일 중단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 말해주셨습니다. 도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방화11과 12단지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경로당에 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실무자 선생님들 오래 근무했다. 배울 게 많다. 여물 지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김미경 팀장님께서 ‘우리가 날던 날’ 여행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 했습니다. 방화 팀 여행도 도와주겠다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성실히 배워 잘 실천하겠습니다.

탁구 회장님 정가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목공과 자전거 여행에 많은

도움 주고 계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따로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주 온 누리 약국에 갔습니다. 할머니님이 직접 만드신 수세미를 약국에 팔고 있었습니다. 수익은 온전히 할머니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더운 날 고생한다며 비타 500 주셨습니다. 지역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관 내 탁구 동아리 인사 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유일하게 자주 가는 곳입니다.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십니다. 이쁘다며 칭찬해주고 함께 활동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십니다. 탁구 회원분들은 이미 사회사업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일상생활기술학교 목공 선생님님이 있고 자전거 여행 선생님도 계십니다. 탁구 하러 자주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주 온 누리 약국 마을 인사

약국 위층 방화지역아동센터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셨습니다. 많은 아이가 기관과 센터를 이용합니다. 두 기관이 연계하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단지 11단지 관리사무소, 장수경로당, 미주 온누리약국, 방화지역아동센터, 탁구 동아리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단기사회사업 방향성과 각자 맞는 과업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실습생들 같은 인격으로 대하며 허투루 듣지 않고 경청해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다고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구실로 찾아가서 인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하며 지역사회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며 서로를 도와주려 합니다. 복지요결 그대로 인사만 다녀도 이런저런 복지 이루어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고 싶어 인사 더 열심히 다녀야겠습니다. 아이들과 찾아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병숙 이만우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아라벳길 사전 라이딩 같이 가고 싶어 주병숙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아쉽게도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한다고 해도 날씨가 너무 덥고 몸 관리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같이 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병숙선생님께서 미안하셨는지 허민우선생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전거 잘 탄다고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 라이딩에 탈 자전거가 없다고 하니 흔쾌히 빌려주셨습니다. 아쉽게도 허민우선생님은 연락이 오지 않아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활동 끝나고 감사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만우회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아이들과 사전여행 함께 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몇 시에 출발할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직접 부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합니다. 내일은 선생님께서 자전거에 필요한 준비물 챙겨오신다고 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춘천여행 때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 고맙습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모든 직원분이 환대해주셨습니다. 2층에 자리 마련해주셔서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도 주셨습니다. 인사하러 왔는데 넘치게 대접받았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지역 보물입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자기 건강 잘 챙겨야 복지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복지 챙깁시다.”

방화11복지관이 방화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을 통해 주민들 직접 찾아뵙고 위기상황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복지관과 센터가 협력하여 방화동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안아주셨습니다. 김미경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신들이 건강해야 복지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 챙겨가며 활동하세요.”

건강 챙겨가며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 마을 인사

주민센터에서 나와 방화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침마다 아이들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생활복지 실천과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업에 관해 설명할 때 경청하며 열심히 적으셨습니다. 과업 이름 모두 거론하며 아낌없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말에 집중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청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 축복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을 맞추고 듣습니다. 진지하게 듣되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끄덕임으로, 때로는 어렵다는 표정으로, 적절히 반응합니다” 「복지요결」 87쪽

오늘 교장 선생님이 보여주신 경청의 자세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청 훈련만 잘해도 사회사업 태반은 갖추었다 합니다. 열심히 훈련하여 좋은 사회사업가 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 생각하셨습니다. 활동이 잘 진행되어도 아이들이 다친다면 소용없다고 합니다. 자전거 여행 안전모 꼭 쓰고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정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일상생활기술학교는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 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빅토리 체육관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복지관이 단기사회사업 진행할 때 많은 도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진이의 설악산 여행 학생들 모집할 때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체육관에 다니는 4학년 친구가 일상생활기술학교 활동을 합니다. 관장님께 직접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음료수 잘 마셨습니다.

복지관 가는 도중 황제떡볶이 사장님 만났습니다. 지역복지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신 분입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만 보였는데 우연히 만나니

신기하고 기뻐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기에 설악산, 춘천 다 갔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여행 활동 공감하며 들어주셨습니다.

여행 계획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점과 아이들이 가진 기준점이 다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여행에 관한 정보 많이 알고 있으니 찾아오라 하셨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며 유진 성미와 감사 인사드리러 방문하자고 말했습니다.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 사랑의교회 인사드렸습니다

우리가 날던 날 선행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대절하러 갔던 어르신과 선생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여행에 맛있는 간식 사 먹으라 여비를 주신 기억이 남습니다.

목회실로 들어가서 간식과 마실 것을 대접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더욱까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많은 실습생이 교회에 들렀나 봅니다. 작년보다 실습생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습생들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환대해주셨을 생각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실습생들의 사업 이야기를 경청해주셨습니다.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선생님 역할도 흔쾌히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복지관에 돌아가는 길 끝까지 배웅해주십니다. 따뜻한 마음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여 방화11 선

생님들과 실습생들이 만들어 놓은 관계 잘 이루고 싶었습니다.



정신 사랑의교회 목사님과 만남

첫 번째 모임 : 우리들의 여행 시작해 볼까요

오후 3시 첫 회의를 하기 위해 민준 준기 세진이 복지관에 왔습니다. 마중 나가 한 명씩 꼭 안아줬습니다. 꽤 더운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시원한 자람터로 함께 갔습니다.



첫 번째 1차 모임 간단한 자기소개

규칙을 정해볼까요?

각자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어디로 갈지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춘천으로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자전거 경로요, 잠자리요, 규칙이요”

아이들이 하나씩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날부터 경로를 조사한다면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게 거들고 싶어 춘천까지 가는 경로와 잠자리 먹거리를 간단하게 알아와서 내일 회의하면 어떨지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약속하고 민준이가 앞서 말한 질문 중 활동규칙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궁리해도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에 각자 2개씩만 말해서 8개의 규칙을 만들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좋다고 했고 돌아가며 1개씩 말해 자전거 여행 8가지 규칙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치지 않고 돌아오기- 민준

기술금지- 민준

피해 주지 않기- 준기

개인행동 금지- 준기

집중하기- 세진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세진

감사 표현하기- 재성

재미있게 놀기- 재성

아라뱃길로 가요!

규칙이 정해지고 회의 중 권대익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사전 라이딩을 같이 가주시기로 한 자전거 선생님이 시간상 수요일 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레 일정이 변경되어 아이들과 의논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라이딩을 어디로 갈지부터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강에 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사전 라이딩에서는 아라뱃길에 가려 했는데, 아이들 선택을 무시할까 봐 말하기를 고민했습니다. 다른 방향성도 알려주고 싶어 아라뱃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라뱃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로 아라뱃길 안다고 말합니다. 차를 타고 가봤지만 자전거 타고 가보진 못했다고 합니다. 아라뱃길에 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한강에 가야 할지 아라뱃길에 가야 할지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사전 라이딩에 함께 가는 선생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라뱃길에 같이 가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라뱃길로 가자고 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졌지만,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라 제 계획대로 흘러간 느낌을 받아 미안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말해야겠습니다.

사전 라이딩 목적지가 정해지고 선생님께 어떻게 감사를 전할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같이 가주시니까 감사함을 표하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보화 시대니까 문자로 하면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순간 ‘문자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표현이 익숙지 않을 수 있기에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문자도 좋지만 간단하게라도 편지 써서 전해주면 어떻게 생각해? 정성이 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좀… 그럼 편지 써서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할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편지를 직접 써서 드리는 게 매우 부끄럽나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하는 법을 잘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옆에서 잘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편지쓰기로 했습니다. 믿어준 아이들 고맙습니다.

회의 마무리로 전체 일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서 출정식과 수료식, 자기소개서를 말했을 때 아이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굳이 출정식과 수료식을 해야 하는지, 자기소개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했기에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보다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더 논의해보고 옆에서 잘 도와주겠다고 말하니 해보겠다고 합니다.

오늘 첫 만남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이들 모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었습니다. 완벽히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옆에서 열심히 거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친하다 보니 회의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손혜진 선생님이 올려주신 글을 봤습니다.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통제, 제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고마운 점이나 부탁할 일을 I-message로 말하고, 다른 좋은 표현이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장난스러운 아이 중

아이들을 인격적인 자세로 대하며 회의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기에 방법에 대해 고민하여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민준준기 세진의 자전거 여행 (1)번째 회의록			
일시	2018. 7. 22	기록자	전세진
모인 사람	전세진, 이준기, 김민준, 전지영, 전성남		
회의 주제	회의아젠다		
의논할일	연습 라이팅 분야 화장, 감사편지 타원산 씨, 활동기록, 다채로운 활동하기, 기술하기, 현생생활 활동기, 잡담하기, 표현하지 않기, 재미있게 놀기, 개인행동 금지, 감사편지하기		
고마운분	자전거 할아버지		
부탁할일			
다음 회의 일시 및 장소	복지관, 오후 3시		
다음 회의까지 준비하면 좋은 일	경호		

세진이 1차 회의록

아이들의 강점을 칭찬해주세요

아이들과 활동을 마치고 어머님들과 통화했습니다. 세분과 통화하기

아이들 여행과 관련하여 전화하고 싶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통화 해달라고 답장 주셨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활동이 갖는 의미->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의 내용-> 아이들의 강점-> 단톡방 여부-> 시간이 되면 찾아 배도 될지 차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세세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의 강점 하나 이상 꼭 말해주며 칭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님 모두 이번 기회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꼭 부탁드립니다며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들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슈퍼비전

준기의 규칙을 긍정문으로 바꿔보아요. 피해 주지 않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생각한 걸까요? 개인행동도 어떤 행동을 염두에 두었는지...

세진이가 말한 집중하기도 이어지겠죠? 세진이는 자전거 타는 일에 집중하기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번 활동에 집중한다는 말일까요?

아이들이 2개씩 규칙을 정했을 때 비슷한 규칙은 묶어도 좋겠어요. 부정문으로 말하더라도 그 의도를 파악한 후에 긍정문으로 제안해도 좋아요.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자전거 지도를 찾아볼 수 있지요?

오늘은 자전거 경로를 함께 찾아보며 이야기 나눠봐요. 잠자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고 함께 궁리해봐요. 아이들과 묻되, 의논하는 과정도 있어요. 복지요결 방법편을 읽어봅시다.

사전 라이딩 장소, 춘천까지 가는 길에 한강을 지나치니 가보지 않을 아라뱃길을 가는걸 제안한 거지요?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재성이 결정해준 게 아니라 함께 의논한 거잖아요. 아라뱃길을 제안했고 선택은 아이들이 한 거니 그것도 좋습니다.

이만우 선생님, 주병숙 선생님.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할아버지보다 선생님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두 분께 직접 여쭙어 봐도 좋겠어요. 감사 제안해주어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 : 아라뱃길 사전여행 준비하기

항상 신경 써주시는 주병숙, 이만우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사전 라이딩 가고 싶어 주병숙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아쉽게도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한다고 해도 날씨 가 덥고, 몸 관리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같이 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병숙선생님께서서 미안하셨는지 허만우 선생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잘 탄다고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 라이딩에 탈 자전거가 없다고 하니 흔쾌히 빌려주셨습니다. 아쉽게도 허만우선생님께서서 연락이 오지 않아 함께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활동 끝나고 감사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만우회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아이들과 사전여행 함께 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디서 몇 시에 출발할지, 필요한 물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직접 부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합니다. 내일은 선생님께서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 챙겨오신다고 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춘천 여행에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부탁했습니다

오후 3시 민준 준기 세진 자람터로 모였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여행 준비를 해오기로 했는데 아무도 해오지 않았습니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니다. 아이들 스스로 조사해오지 않는다면 계획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니다. 왜 안 해왔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해오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조사하길 바란 제 욕심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얼마나 타면 좋을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잠은 어디서 잘지 큰 그림부터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텐트에서 자고 싶으며 자전거는 많이 타고 싶고 삼겹살이나 배달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제가 조사한 방안 중 하나를 예로 이런 식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 조사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여행 다음 날까지 조사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전거 선생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전여행에 누가 같이 가는지 알고 있니?”

“네, 삼천리 자전거 선생님이요.”

“사전여행 전에 자전거 점검도 받을 겸 같이 가주셔서 고맙다고 전화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음… 그렇긴 하네요. 전화 드릴게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직접 부탁하고 감사함을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멘트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민준 준기 세진 자전거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잘 말한 결과 선생님께서 여행 함께 간다고 자전거 점점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간단히 마치고 복지관에 인사한 후 일렬로 공향동 삼천리 자전거에 갔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잘 나오질 않는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전거 하나하나 손을 봐주셨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과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자전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이들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만우 사장님 자전거 가게 방문

선생님이 설명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주시며 사전여행 때 보는 것을 기약하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아이들과 편지 써서 감사 인사 꼭 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만우 사장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슈퍼비전

삼천리 자전거 가게 이만우 사장님. 복지관 탁구 동아리 회원이시기도 하지요. 아이들도 이 가게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 라이딩 섭외도 감사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거들었군요.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제가 조사한 방안 중 하나를 예로 이런 식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 조사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여행 다음 날까지 조사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아이들이 여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줬군요. 잘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옆에서 잘 거들어주어 고마워요.

세 번째 모임 : 아라뱃길 자전거 라이딩

출발준비



아라뱃길 출발 전, 단체 사진

오전 6시 30분 복지관 앞에 모였습니다. 서로 포옹 인사를 나누고 준비물을 점검한 다음에 아라뱃길로 출발했습니다.

준기가 급하게 나오느라 헬멧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 여쭙었습니다.

“준기가 헬멧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는 길에 헬멧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 헬멧은 꼭 챙겨야 합니다.”
아라뱃길 가는 길 다행히 준기 집이 있어 잠깐 들러 헬멧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신경 써주신 자전거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전거 선생님이 맨 앞에서 이끄셨고 준기 재성 민준 세진 대익 선생님이 일렬종대로 달렸습니다. 자전거 길로 들어가기 전에 다소 위험한 구간이 있었지만, 안전거리 유지하며 잘 도착했습니다.

라이딩 시작

아라뱃길 자전거 길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라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자전거 선생님을 따라 시속 20km를 유지한 채 달렸습니다. 20km로 달리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해 춘천 라이딩까지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리고 나서 중간에 쉬었습니다. 아이들과 물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때? 할만해? 힘들지는 않고?”

“선생님... 너무 느려요, 조금 더 빨리 달리면 좋겠어요.”

“그럼 25km~30km로 달려볼까?”

이 말을 자전거 선생님께서 들었나 봅니다. 선생님께서 지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라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발변수, 터져버린 세진이 바퀴

확실히 시속 20km와 25km 30km의 차이는 컸습니다. 잘 달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처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잘 달리던 세진이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권대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이 바퀴에 문제가 생겼다.”

선두로 달리던 자전거 선생님께 달려가 바퀴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민준 준기와 함께 세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전거 바퀴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안쪽 바퀴가 터진 듯합니다. 자전거 주브와 펌프를 꺼내고 똑딱 고치십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돕습니다. 선생님이 고치시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다음 여행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우는 모습 대견스럽습니다. 바퀴 수리를 마치고 아라한강강문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한강강문까지 도착하니 아이들 모두 지친 기색이 보였습니다. 달아오른 얼굴로 괜찮다고 하지만 많이 힘든가 봅니다. 기준 속도를 넘어 오버페이스를 유지하니 그런 듯합니다. 종주가 끝나고 아이들과 페이스 유지에 관해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아이들 모두 중간에 먹을 간식을 챙겨오지 않아 물만 별컹컹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방을 뒤적거리시더니 직접 재배한 토마토를 주셨습니다. 자전거 여행할 때는 토마토 같은 과일이 좋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비싸니 춘천에 갈 때는 오이를 챙기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이 바퀴 점검

씩씩 비운 도시락

아이들과 토마토를 먹던 중 자전거 선생님이 아이들 자전거 잘 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속도로 달리면 못 따라온다 하는데 잘 따라오는 모습 대견스러웠는지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맛있는 도시락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뒤처지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지쳐 민준이 뒤에서 달렸고 준기가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열심히 끌어준 민준 준기 고맙습니다.

약 40분 정도를 달리고 나서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자전거 선생님께서 여기 도시락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밖으로 나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배가 고팠는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비웠습니다. 자전거 선생님이 사주신 도시락 덕분에 아이들 모두 에너지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진이의 바퀴가 또다시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께서 바퀴를 돌려싸고 의논합니다.

“선생님 이거 밖에 있는 가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 주브 문제라 생각했는데 당장 수리를 할 수 없으니 바람 넣으면서 가야겠다.”

여러 번 바람이 빠지니 아이들도 익숙한가 봅니다.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자전거 선생님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착 40분 거리를 남겨두고 수시로 바람이 빠져 주브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선생님을 돕습니다. 모두가 자전거 선생님 같습니다.

더는 바퀴에 바람이 빠지지 않았고 무사히 인근 휴식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땀과 물로 온몸을 적시고 쉬는 도중 자전거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오버페이스로 달라지 않는다면 춘천까지 충분히 라이딩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 새겨들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찬 환영식

아라뱃길을 나와 방화대교를 거쳐 방화동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할 즈음에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더 빠른 자전거 길이 있는데 왜 여기로 가는 건가요?”

“다른 길도 있지만, 여기만큼 안전한 길이 없단다. 다른 길로 가봤는데 위험하고 불편하더라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느리지만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행 가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면서 경로의 안전까지 신경 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길이 아닌 안전한 길을 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주를 마치고 복지관에 도착하니 복지관 선생님, 실습생들 모두 나와 반겨주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저도 모두 몰랐기에 당황 반 기쁨 반이었습니다. 아마 권대익 선생님께서 미리 전화로 말한 듯싶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감사 인사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과 동료들이 준비해준 환영식

여행을 마치고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다니며 아라뱃길 갔다 온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춘천에 가기 싫었는데 모두가 나와 인사해주니 좋았고 춘천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고생했다고 환영하니 기억 속 강하게 남았나 봅니다. 자전거를 잘 타기에 뒤처지는 친구에게 힘이 돼주었습니다. 묵묵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준이 고생했고 고맙습니다.

준기는 복지관에 도착하니 편안했다고 합니다. 춘천 라이딩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기는 라이딩에 있어 자전거 선생님 바로 뒤에서 달렸습니다. 춘천 라이딩에서 맨 앞에서 달리며 친구들을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발한 에너지 가진 준기 고생했고 고맙습니다.

세진이는 뿌듯하다고 합니다. 자전거 바퀴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하나 없이 끝까지 종주했습니다. 자전거를 고쳐주는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 성실히 했습니다. 자전거 선생님이 칭찬한 훌륭한 친구입니다. 도도하지만 예의가 바르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어 고맙습니다.

아라뱃길은 왕복 50km 약 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금방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고 시간도 꽤 걸렸습니다. 물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자전거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토마토가 없었다면 더욱 지쳤을 겁니다.

사전에 아이들과 의논했을 때, 왕복 50km 거리는 충분하다고 쉽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라뱃길 달리면서 세진이의 바퀴에 구멍이 났습니다. 자전거 선생님이 함께 주행하지 않았다면 복지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여행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가 가진 체력과 여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을 계획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느꼈고 배웠습니다.

사전여행 당일날과 전날 시간을 내주어 아이들에게 자전거 교육과 자전거 수리 함께 가주신 이만우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낌없는 조언 잘 새겨들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라이딩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찾아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탁구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리기에 이제는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반겨주십니다. 탁구장에 가만히 앉아 구경하던 중 주병숙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께 달려가 덕

분에 여행 잘 다녀왔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자전거 문제는 없는지 걱정 해주셨습니다. 전혀 없다고 아주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탁구도 치고 자전거도 타자고 말씀하십니다. 흔쾌히 자전거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슈퍼비전

이만우 자전거 선생님. 슈브 한 번 갈고, 바퀴 바람 7번 정도 넣고, 펑크 때우고, 많이 애써주셨어요. 탁구친구 동아리는 매주 월수금 모여요. 자주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민준과 준기 체력이 좋아요.

50km 연습 라이딩을 잘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달리면 체력에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체력을 아끼면서 타는 방법을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버 페이스 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타는 게 좋아요.

자전거 수리하는 방법 아이들이 잘 숙지했는지 확인하면 좋겠어요.

픽시와 일반 자전거 바퀴를 갈아야 할 수도 있고,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어댑터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 담당이 있나요? 필요한 용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도착하니 여러 선생님이 환영해 주었지요?

자전거 선생님도 그 모습이 보기 좋고 힘 받았다고 하셨어요. 민준이도 자기 소개서에 그렇게 썼지요. 연습 라이딩 때는 복지관 사람들만 모였지만 춘천 라이딩 때는 아이들의 둘레 사람이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성이가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면 좋겠어요.

네 번째 모임 :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네요

복지요결 공부와 격려 글 나누기를 마치고 다른 일정이 없어 아이들과 만날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민준 준기 세진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아이들에게 자전거 여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아이들 모두 방화11에서 춘천역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사해왔습니다.

화이트 보드에 아이들이 조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이 조사한 내용을 적으니 보드판이 가득 찼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이들 모두 구체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여행에 대한 열정 느껴졌습니다.

준기와 민준이 둘 다 집에 텐트가 있다고 하여 자라섬 오토캠핑장이나 인근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싶다고 합니다. 준기가 펜션에 관해 이야기 나왔는데 펜션보다는 텐트를 치고 자는 게 훨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기에 자전거를 타는 동안은 코펠과 버너를 이용하여 라면과 3분 요리를 먹자고 합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도중에 멈춰 길가에서 배달해서 먹자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묻고 의논하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여행하면 덥기에 아이들에게 중간에 더위를 식힐만한 장소에서 노는

것에 관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중간에 텐트를 치고 자거나 물놀이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놀이를 정해지는가 싶더니 세진이 물놀이는 싫다고 합니다. 민준 준기는 좋다 하고 세진이는 싫다 하니 일정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세진에게 물었습니다.

“세진아 물놀이가 왜 싫어? 더운데 중간에 물놀이하면 시원하고 좋지 않을까?”

“물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물놀이하기 싫어요.”

“굳이 물에 안 들어가고 노래를 듣거나 그늘에서 편하게 자도 돼!”

“아, 물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물놀이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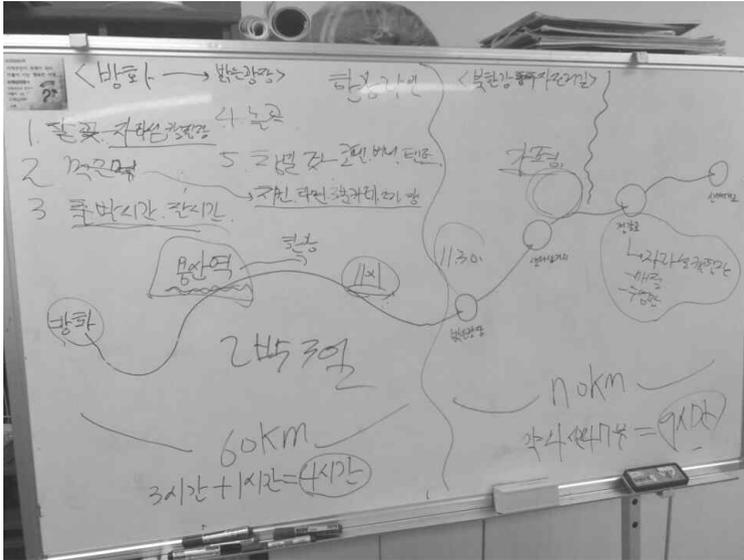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물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기 싫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세진을 쉬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야 하니까 텐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텐트는 한 개만 가져가고 껴서 자면 되지 않을까요? 두 개를 챙기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요.”

“먹을 음식과 조리 도구인 코펠과 버너가 있어야 해요, 날이 어두울 때 라이딩 할 수 있으니 형광등이 필요해요.”

“캠프장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도 많이 필요할 텐데 편의점에서 사 먹읍시다.”



춘천여행 회의 내용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전 라이딩을 갔다 오니 선생님께 보고 듣고 느낀 게 많나 봅니다. 온전히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여행이 되기 위해 옆에서 열심히 적고 의견을 모아 말해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가면서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자전거를 얼마나 탈지’에 대해서 의논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를 얼마나 탈지를 이야기해볼까?”

“선생님, 저희는 자전거만 이용해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사전 라이딩 보다 힘들고 날씨도 덥고 금방 지쳐 우리가 계획한 일정

다 소화하지 못할 수 있을 거 같아. 하루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하루는 ITX나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면 어떨까?”

“선생님 자전거 여행인데 지하철을 타는 건 말이 안 돼요! 정 안되면 2박 3일로 하고 왕복으로 자전거 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더운 날씨에 대한 어머니들의 걱정과 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2박 3일 여행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사전에 1박 2일 여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2박 3일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 금방 지칠 수 있고 자전거만 타고 간다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2박 3일의 일정을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도록 정해보면 어떨까?”

“더워도 괜찮아요. 자전거 여행이니 자전거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박 3일 여유롭게 갔다 오면 좋잖아요, 춘천에서도 재미있게 놀다 오고.”

아이들은 2박 3일을 고집했습니다. 방화11에서 춘천역까지는 약 130km입니다.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도 하루에 100km를 타는 건 힘들다고 합니다. 자전거 선생님 관장님도 어머니도 많이 걱정 하셨습니다. 되도록 무리하지 말고 잘 갔다 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 이야기의 끝이 1박 2일로 회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가는 여행인데 왜 어른들이 자꾸 간섭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고가 정지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사자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게 사회사업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과 다시 이야기하려 하니 아이들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회의를 마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거두고 아이들과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헬스장에 가서 놀았습니다. 즐겁게 놀고 집에 가는 아이들 배웅해줬습니다.

별관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에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들의 여행은 8월 2일에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놀면서 회의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과업 팀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만나자마자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마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와준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제 욕심 때문에 화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편안하게 놀지 못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철암에 갔다 오고 아이들과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합니다. 민준 준기 세진의 자기소개서를 한 번에 다 봐줄 수 없기에 시간을 나눠 아이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 관계를 다잡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서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슈퍼비전

지난 목요일 모습이 떠올라요. 2박 3일을 고집하는 아이들.

우리의 여행인데 왜 어른들이 간섭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에 생각이 정지되었지요. 재성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아이들이 자전거 여행 열정이 대단해요. 왕복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가 있으니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고 부탁하면 좋겠어요.

여행 준비가 빠듯하지요.

만나서 함께 놀고 친해지면 좋은데,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아이들도 힘들었겠어요. 복지관 상황상 일정이 빠듯하게 되어 재성에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조금 늦더라도 쉬어갑시다. 아이들과 재성의 관계가 조금씩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어려움도 그 과정일 거예요. 더 단단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임 : 새로운 다짐

지난 목요일 아이들과 회의에서 차질이 생겨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철암에 내려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주말 동안 아이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써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여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써오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일정에 대해 의논하려 했지만, 문득 아이들의 지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이 민준 준기 세진 자기소개서를 한 번에 봐주기가 힘들어서 개별로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봐주면 안 될까요? 방에서 한 명씩 봐주고 나머지 애들은 밖에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봐주는 동안 남은 친구들이 심심해하지 않을까? 시간대를 나눠서 본다면 민준이한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팬스레 마음이 촉박해집니다. 주말 내내

여행 일정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재미를 갖고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흥미를 갖도록 거들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따로 만나 자기소개서를 구실로 진지하게 대화해보려 합니다. 다행히 아이들 모두 시간대에 맞춰 개별 만남 허락해주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이해해주어 고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구실로 서로를 알아갑니다

오전 10시 준기가 자람터로 왔습니다. 반갑게 포옹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람터에 오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회의에 아이들은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짐을 풀고 아이스크림 사 먹자고 준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방화동을 걸어 다녔습니다. 준기는 게임과 놀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13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게 싫고 게임만 하고 싶다고 하지만 자전거 타는 활동은 너무 재밌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중학생 모습과 똑같다고 말하니 밝게 웃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자람터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준기는 장난기가 많아 회의에 집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친구들에게 말장난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와 세진이가 잘 이끌어

주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기가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그런지 산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써오지 않아 걱정했었는데 민준 세진 보다 이른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준기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동안 준기가 자전거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증센터를 가보고 싶다 합니다. 평소 가족과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차를 타고 가기에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전국을 다니며 아름다운 경치 천천히 누리고 싶다 합니다.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기가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반대였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싫어하는 게 아닌 정적인 회의가 싫었던 겁니다. 준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이번 여행 잘 누릴 수 있도록 거들어야겠습니다.



준기와 자기소개서 작성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준이가 왔습니다. 민준이와 산책하는 대신 자람터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중학생 2학년이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답지 않게 현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진로와 미래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민준이의 관심사로 넘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외국 힙합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발라드를 좋아한다 말하니 음악은 무조건 외국 힙합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 힙합 듣고 싶다 하여 틀어놓고 자기소개서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저도 운동을 했었기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왜 수영선수 그만뒀어요?”

“아, 강원도에서는 잘했는데 전국으로 가니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공부 시작했어.”

“그렇죠. 운동으로 나가려면 1등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전국에서도 메달 많이 따왔는데.”

자연스럽게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만두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다. 칭찬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패션 상표 창업자가 되고 싶다 했습니다. 아라벳길 가는 날 널디 티셔츠를 입었는데 민준이가 ‘선생님 널디 입으셨네요’라고 말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어봤는데 옷에 관심이 많아 자주 아이쇼핑 한다고 합니다.

패션 상표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옷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소비자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세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지요결에서 배운 경청의 중요성을 민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잘 경청하고 소통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면 민준이 어머니를 자주 뵙습니다. 민준이가 집에서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민준이와 어머니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 어느새 가족소개 문항까지 왔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소수의 의견에 경청하며 저희를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셨습니다.”

민준이가 적은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곁었습니다. 민준이가 선생님 설마 우냐고 묻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나 봅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에 관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애뜻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너무 귀하고 귀해 아낌없이 칭찬해주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머니 뵙게 되면 민준이가 한 말 다시 전해주려 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학생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뒤쳐지는 사람이 없도록 뒤에서 잘 돕겠다고 합니다. 여행하며 다짐 잃지 않고 성숙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거들겠습니다.



민준이와 자기소개서 작성

민준이와 만남이 끝나고 세진이가 왔습니다. 세진이는 활동 시간을 정확히 맞춥니다. 항상 친구들보다 일찍 오거나 정각에 맞춰 도착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습니다. 사전여행에서는 규칙을 어기지 않고 선

생님 뒤에서 끝까지 달렸습니다.

세진이는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입니다. 잘생겼다고 칭찬하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세진이 설마 부끄럽냐고 물으면 부끄럽다 합니다.

세진이의 꿈은 수학 교사입니다.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을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중학생 2학년부터 수능을 생각하고 있던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대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겠다 합니다.

세진이 부모님 모두 회사에 다니셔 동생과 자주 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고 친구들이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여행 첫날밤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하고 부모님께서 써주신 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조금 더 다 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진이와 자기소개서 작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과 개별 만남을 마쳤습니다. 개별 만남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진지하게 듣고 이해해주었습니다.

여행 가기 전 준비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 급해지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알겠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 함께 준비하여 기억에 남는 여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전

과연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거들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 훌륭한 성찰입니다. 당사자와의 만남에서 사회사업가의 예의, 정성,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잘 성찰하는 재성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람터에 오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회의에 아이들은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 맞아요. 우리도 종일 모여서 공부만 하거나 회의를 하라고 한다면 힘들 듯해요. 아이들도 계속 여러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고 만나는데 과업을 준비하면서도 회의만 한다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일대일로 만나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눴군요. 잘했습니다.

이번 주는 시간이 비지요? 아이들과 자주 만나서 놀고 대화하고 자전거 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감사 인사와 수료식 준비를 하고요.

자기소개서를 써오지 않아 걱정했었는데 민준 세진보다 이른 시간 안에 자기소개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준기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 준기에게 숨은 집중력이 있군요. 준기에게 칭찬 많이 해주었지요? 수료식 때도 이런 강점을 잘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동안 준기가 자전거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증센터를 가보고 싶습니다 합니다. 평소 가족과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차를 타고 가기에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해 전국을 다니며 아름다운 경치 천천히 누리고 싶다 합니다.

☞ 준기에게 이런 희망이 있군요. 이번 자전거 여행 이후에 또 한 번의 자전거 여행이 생길지 모르지만, 준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

겠습니다. 공부 외에도 길 위에서 만나는 배움과 성장이 있으니까요.

외국 힙합을 좋아하는 민준, 패션 브랜드 창업자가 되고 싶은 민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었군요. 이렇게 당사자와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사회사업 현장에서든 이렇게 당사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밀반찬 배달을 할 때 배달만 하고 어르신과 대화 한 번 안 한다면?
어린이 모임을 하는데 프로그램 진행 외에 사적인 대화와 만남조차 없다면?
상상만 해도 삭막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밥과 간식을 얻어먹고, 살아온 이야기 듣고,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손잡고 집에 내려다 주기.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현장을 살아갑니다.

“우리 엄마는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소수의 의견에 경청하며 저희를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셨습니다.”

☞ 아... 저도 마음이 뭉클하네요. 민준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어머니께 이 이야기 들려드렸나요?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민준에게 다시 들려주고요. 가족의 관계를 잇는 일이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진이 부모님 모두 회사에 다니셔 동생과 자주 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고 친구들이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돕고 싶습니다.

☞ 환영식 때 두 분 모두 회사 일정 조정하셔서 마중 나오셨지요. 여행 이후 부모님과 통화해봤나요? 부모님 이야기도 궁금해요. 그 날 저녁 어떻게 보냈는지도요. 가족의 관계를 생각하는 일, 중요합니다. 잘했습니다.

여섯 번째 모임 : 가끔은 진지하게 말할 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행 초안 완성했습니다

여행 출발 이틀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오전 오후 두 번 모이는 날이라 아이들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흔쾌히 허락해주었습니다.

오전 10시 아이들이 이야기방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으로 여행 일정의 초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1박 2일로 가기로 했기에 기존 회의에서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4시 복지관 앞에 모여 춘천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는 길 크게 보면 한강라인과 북한강 종주길로 나뉩니다. 한강라인의 경로는 골목 아지트 사장님을 뵙고 아이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여쭙어보려 합니다. 총 60km이며 시간은 약 4시간 걸립니다. 북한강 종주길은 밝은 광장- 샛터삼거리- 경강교- 신매대교로 이어져 있으며 총 70km로 약 4시간 47분 걸립니다.

첫날 아이들은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점심을 먹고 오후 4시에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려 했지만, 오전 8시만 되어도 해가 뜨거우므로 늦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서 자연스럽게 밤이 된다면 야간 라이딩도 하고 덥지 않게 갔다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후 4시도 더울 수 있으므로 더 늦게 출발하는 점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여행을 가면 잠자리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 여행 중 텐트에서 자는 의견이 나왔고 텐트에서 자려고 했는데 권대익 선생님과 어머니들께서 많은 걱정 하셨습니다. 장시간 달리다 보니 부피가 큰 텐트를 누가 싣고 갈지도 정하지 못했고, 더운 날씨이다 보니 바닥의 열기로 텐트에서 자기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아이들의 열정만으로 여행을 꾸릴 수 없기에 좀 더 안전하고 편한 방법을 찾아본 결과 두 번째 의견으로 나온 펜션이 떠올랐습니다. 권대익 선생님께서 예전에 알아본 펜션이 가격을 싸게 해준다고 하여 한번 고려해볼 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날씨가 갈수록 너무 더워지니까 텐트에서 자는 방법도 있지만, 펜션에서 자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펜션이요? 그냥 텐트 깔고 자면 안 돼요? 펜션 비싸지 않나요?”

“우리가 가는 길에 펜션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가격을 싸게 해줄 수 있다고 하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민준 세진 준기 텐트에서 잔다고 하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 장시간 라이딩 하는데 텐트 싣고 가면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저는 위생을 중요시하니 펜션에서 잘래요. 그럼 저도 펜션에서 잘래요.”

기관의 사정 어머니들의 걱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아이들 모두 펜션에서 자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아이들이 2박 3일 일정을 하자고 했을 때, 펜션을 정했던 방법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면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쉽게 타협점을 찾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발 시각과 잠자리가 해결되다 보니 먹거리를 쉽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늦은 점심을 먹고 오후 늦게 출발하니 굳이 코펠과 버너가 필요할까요? 원래 캠프장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쉴 때 음식을 해 먹어야 해서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렇겠네. 근데 민준 세진 준기 길가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한 번쯤은 코펠과 버너를 이용해서 라면을 먹어도 재미있지 않을까?”

“선생님. 날씨가 너무 덥고요. 사실 코펠과 버너를 챙기기 귀찮아요. 펜션에 조리기구도 있으니 사서 가서 먹죠.”

자연스럽게 코펠과 버너를 챙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니 길에서 불을 피우고 음식 해 먹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이들은 팔도 비빔면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팔도 비빔면에 삼겹살 곁들여 먹으면 맛있다고 하니 행복해합니다. 늦은 점심 먹고 밤늦게 출발하여 펜션에서 팔도 비빔면과 삼겹살 먹자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쉬면서 먹을 간식을 정했습니다. 아라뱃길 사전 라이딩 갔을 때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토마토가 맛있었나 봅니다. 오이는 맛없다고 토마토 챙겨가자고 합니다.

토마토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에 초코바나 에너지바를 함께 챙기자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좋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쯤 춘천에 도착하기에 ‘우리의 목표’인 닭갈비를 꼭 먹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열띤 토론을 했던 둘째 날 출발시각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왕복으로 여행을 마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기관과 부모님의 걱정으로 편도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아이들 모두 싫다고 하여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다 쓰고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여행이 맞지만 때로는 기관의 상황과 부모님들의 의견도 고려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 민준 준기 세진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지만, 우리를 걱정해주는 어른들 생각해서 한 발자국 양보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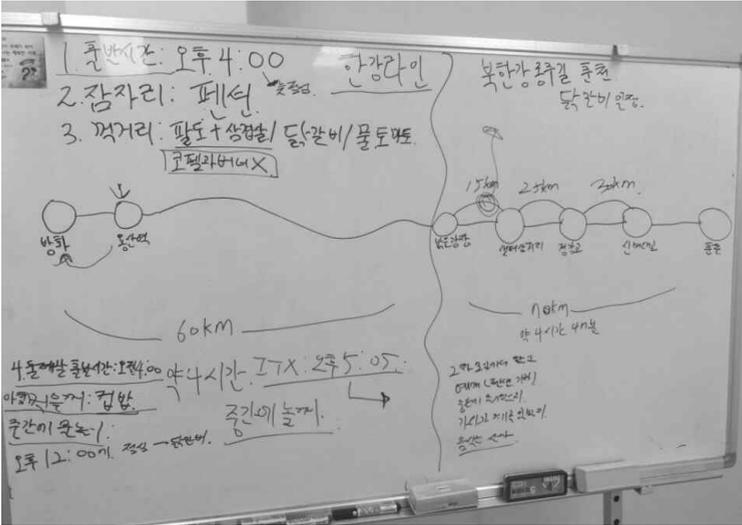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돌아오는 길 ITX를 타자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 물어보니 좋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 ITX에서 편하게 쉬고 용산에서 방화11까지 자전거 타고 오기로 했습니다.

여행 중간 가평에 들려 물놀이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와 준기는 물놀이를 좋아하지만, 세진이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늘에서 쉬겠다고 합니다. 어디서 물놀이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모두 물이 보이면 뛰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개인 물품과 자전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 오전 회의를 마쳤습니다. 준기 아버님께서 여행 떠난다고 하여 준기에게 자전거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준기는 자전거 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자전거 여행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기와 준기 아버님 고맙습니다.



1박 2일 춘천여행 일정표 완성

치킨 먹으러 골목 아지트로 가자!

“아이들 여행 떠나기 전에 치킨 한번 사주고 싶어요. 거기 사장님이 자전거를 많이 타서 좋은 정보 주실 거예요”

저번 주 회의를 마치고 복지관 앞에서 민준이 어머니 만났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회의 내용을 말하던 중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아이들과 복지관에서 회의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준비하던 중 민준이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2시에 모이기로 했다면서요? 카페 말고 치킨도 사줄 겸

치킨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러면 저희야 고맙지요.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민준이한테 말하면 위치 알 거예요. 골목 아지트로 오시면 됩니다. 대신 서프라이즈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복지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민준이를 선두로 줄줄이 골목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민준이 어머님과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들 모두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치킨을 먹는 동안 잠시 나와 어머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치킨집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북한강 종주길은 워낙 유명하니 운길산역까지만 조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 자전거길 타고 쪽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 위험한 길 있으니 신경 써서 가시면 됩니다. 날씨가 더우니 약국에 파는 마그네슘 사 가시는 게 좋아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오늘 저녁 한 번 더 들려 국토 종주하신 분께 이야기 들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민준 어머니가 사주신 치킨을 구실로 자전거 선생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여행 이렇게나 신경 써주시니 몸 둘 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모두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 또한 아이들 기억에 남는 풍족한 여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신경 써주신 어머니 사장님 고맙습니다.



골목 아지트로에서 민준 어머니의 치킨 대접

세진이 집에 왔습니다

여행 첫날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 어머니들께 손편지 부탁했습니다. 민준 준기 어머니는 출정식 때 와서 손편지를 주기로 했지만 두 분 모두 직장인인 세진이 부모님께서서는 못 오신다고 하여 퇴근하고 복지관으로 와서 편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님과 어머니 두 분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만 나누고 나오려고 했는데 과일과 빵 음료수 대접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니는 출근하시기에 세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더불어 사춘기로 인해 말이 적어진 아들이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이번 활동 통해서 세진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더운 날에 대해 많이 걱정하셨지만, 선생님 두 분 동행하니 안심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를 마칠 무렵 부모님께서 라이트 하나 빌려주셨습니다. 편하게 쓰고 돌려달라 하십니다. 편지 받으러 갔는데 되려 도움만 받고 왔습니다. 여행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넘치는 남해진 선생님

사장님께서 저녁 시간에 오시면 국토 종주하신 분들 치킨 드시러 온다고 합니다. 세진이 부모님 뵙고 자전거 여행 조언받으러 권대익 선생님과 함께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장님께서 국토 종주하신 분 방금 갔다고 하셨습니다. 권대익 선생님께서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가게로 들어가 인사만 드리고 나오자 하셨습니다.

앉아서 물 마시던 중 남해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들과 치킨 먹을 때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던 분이셨는데 골목 아지트로 사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좋아하십니다. 후미등이 없다고 하니 자기 것 때서 가져가라 하십니다.

아이들 출정식 하니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플랜카드 만들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아이들과 동행하는 선생님들 자전거 잘 알고 있어 무료로 대여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여행을 위해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행 마치고 다시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

슈퍼비전

일정, 자리, 공동준비물(코펠) 등… 날씨, 일정, 체력, 상황을 살피니 아이들이 처음 제안한 대로 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 과정을 조율하는데 재성이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설명 설득 부탁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역시 재성에게 큰 배움이었을 거예요.

중간에 쉬면서 먹을 간식을 정했습니다. 아라뱃길 사전 라이딩 갔을 때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토마토가 맛있었나 봅니다.

☞ 간식도 아이들과 의논했군요! 토마토를 떠올린 건 자전거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감사 인사 또 드려주세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여행이 맞지만 때로는 기관의 상황과 의견도 고려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 민준 준기 세진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지만, 우리 걱정해주는 어른들 생각해서 한 발자국 양보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 우와~ 어쩜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요? 아이들도 잘 이해해줬군요. 좌충우돌. 고맙습니다.

준기 아버님께서 여행 떠난다고 하여 준기에게 자전거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고 합니다. 준기는 자전거 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자전거 여행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준기 아버님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감사 인사드리면 좋겠어요. 저녁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더욱 좋고요. 감사 인사를 구실로 집에 놀러 가면 어때요? 준기 아버님께 전화해서 주선해보세요. 민준 세진이라도 준기 아버님을 만날 좋은 기회이고요. 사회사업가는 관계 주선사

세진이 집에 방문해서 부모님을 함께 만났지요. 부모님과 첫 만남이라 의미
있었습니다. 직접 얼굴 뵙고 여행 일정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시간이
되어 함께 방문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 부모님께 여행 편지 부탁드렸고, 출정식과 환영식을 설명하며 참석을 부
탁드렸고, 수료식 날짜와 일정도 말씀드렸지요. 세진이 자기소개서 내용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편안했고 유익했습니다. 첫 문턱을 넘었지요. 부모님 퇴
근 이후 감사 인사드리러 가면 좋겠습니다. 재성이 혼자 가도 좋겠지만 되도록
아이들과 같이 방문해서 인사드리러도 좋겠습니다. 일정 궁리해보세요.

일곱 번째 모임: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 삶에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옆에서 도와주세요!

오전 10시 아이들이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지 아이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시간에 회의에 참석 해주니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기에 오늘은 일찍 끝낸다고 하니 갑자기 아이들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기로 한 펜션 예약을 했습니다. 어제 기차 예매 아이들이 했으니 펜션 예약도 스스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기차 예매도 우리가 직접 했으니 펜션 예약도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

“좋아요. 빨리해요. 그냥 예매하면 되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요.”

“근데 기차 예매했을 때와 조금 달라, 펜션 사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예약해야 하는데…. 민준 준기 세진 중에서 전화해볼 사람 있니?”

“…쉽지 않네요, 그런 거 잘 못 해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멘트를 작성해서 전화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선생님이 도와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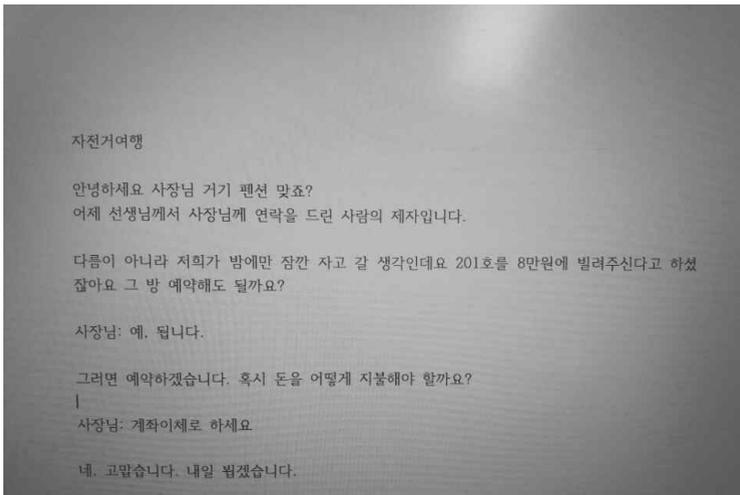
“네. 그럼 멘트 작성 도와주세요.”

민준 준기 세진과 의논 끝에 간단한 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멘트 작성 까지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쉽게 전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누가 전화를 할지 고민하던 중 준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할게요. 대신 막히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래, 알겠어!”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모두 나중에 다시 전화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펜션 예약 대본

여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물품으로 헬멧, 장갑, 자전거, 여벌 옷, 수건, 가벼운 가방, 물, 휴대전화 충전기, 토시, 가벼운 가방이 나왔고 자전거에 필요한 물품으로 라이트와 후미등, 여벌의 슈브, 펌프, 펑크 패치가 나왔습니다.

여행 첫째 날 야간 라이딩을 하므로 라이트와 후미등은 꼭 필요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모두 라이트와 후미등이 있다고 했지만, 다시 확인해본 결과 라이트가 없는 자전거도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보며 확인

하니 민준 준기 세진 집에 돌아가 꼭 챙겨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펌프와 펑크 패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준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 여행 떠나기 전 아버지께 자전거 수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챙겨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준기 고맙습니다.

상황에 맞게 가면 돼요

준비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지도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맨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사람은 세진이기에 세진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방화대교와 여의도 자전거 길이 보입니다.

“일단 방화대교 가서 한강 자전거길로 쪽 달리면 되지 않을까?”

“쪽 달리다가 여러 대교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중간에 자전거길 말고 일반 도로도 있는데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북한강 자전거길까지만 안전하게 도착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민준 준기 세진 도란도란 모여 의논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고민합니다. 선생님이 없어도 아이들 지도보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황에 맞게 가보자고 합니다. 잘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PPT로 발표해요

출정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찍은 사진이 아까워

PPT를 통해 출정식 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준기 세진은 PPT 준비하기 너무 힘들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던져보았습니다.

“PPT 만들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행 당일 날 부모님과 지역주민들 앞에서 여행에 대한 일정과 각오를 말해보면 어때?”

“오 그거 좋아요. 대신 수수료식에는 PPT를 통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두 좋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여행 전체 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준기는 어디서 놀며 언제 도착하는지 세진은 먹거리와 잠자리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멘트를 준비하려 했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생각해오겠다고 합니다. 여행 당일 날 발표할 때 조금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선생님, 장 보러 언제 가요?

회의 중간중간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장 보러 언제 가요?”

“이제 곧 점심 먹을 시간이라 집에서 밥 먹고 다시 모여서 장 보러 가면 어떨까?”

보통 오후 회의를 하자고 하면 민준 준기 세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

테 장 보러 가자고 하니 밝게 웃으며 오겠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자전거를 타고 함께 오는 모습을 보니 또 자전거를 타다 온 듯합니다. 점심 먹었냐 물어보니까 자전거 타느라 먹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열정 끝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복지관 근처 보해마트로 갔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막힘없이 필요한 물건만 딱 집습니다. 과자나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지만 민준이가 옆에서 잘 조율해줍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하기

매일 보는 친구들인데 모이기만 하면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고기가 들어있는 냉동고를 열고 냄새가 이상하다며 얼굴을 뺍습니다. 냉동고 하나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짐이 많기에 물품을 나눠 집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하지 못했던 펜션 예약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준기가 사장님께 전화를 겁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사장님께서서 받았습니다.

멘트를 펼쳐놓고 준기가 말을 하지만 생각한 대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준기가 애절한 눈빛으로 구원 요청을 합니다. 전화기를 넘겨받고 사장님께 세세하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너무 늦지만 않게 와달라고 합니다. 준기가 전화하고 옆에서 거드니 펜션 예약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슈퍼비전

펜션 예약 전화. 아이들도 부끄럽고 처음이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돕고, 부족한 만큼은 우리가 도우면 됩니다.

복지요결 84쪽 문기 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1.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기
2. 당사자가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하기
3. 대신 해준다면 그 일을 당사자와 의논하여 당사자가 알고 동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합니다.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 이게 합니다.

재성은 잘 실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자전거 여행을 한다면 아이들이 지도를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 때 네비게이션을 들고 가니 자기가 어디쯤 와있는지, 남은 거리가 얼마큼 있는지, 이동 경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헛갈렸지요.

예전에 네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운전자도 지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길을 갔다고 합니다. 네비게이션이 나오면서 휴대전화만 보며 가게 되었지요.

자전거 여행도 네비게이션을 넘어 지도를 살피며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이는 여행 전체 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준기는 어디서 놀며 언제 도착하는지, 세진이는 먹거리와 잠자리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출정식 준비도 아이들과 의논했군요. 우리 생각처럼 더 크고 성대하게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운 일은 잘 한 겁니다.

수료식 PPT 준비, 지금부터 차근차근하면 좋겠습니다.

여행 첫째 날: 우리 땅의 풍경 잘 누비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습니다

여행 당일 날 아이들 모두 사전 점검차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당일 날이라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각자 싸 온 짐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별관으로 이동하여 가방을 풀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민준 세진은 짐 가방을 최소화하여 잘 챙겨왔지만, 준기는 여행 간다는 생각에 신났나 봅니다. 수영복과 옷 한가득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공구 등 가방이 터질 정도로 꾸러왔습니다. 공구는 어쩔 수 없지만, 여벌의 옷은 한 벌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해주며 준기와 함께 짐을 줄여나갔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출정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멘트 준비 잘 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주 부끄러운 지 준비한 멘트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말해달라 하니 출정식 시작되면 그때 말한다고 합니다.

세진이가 휴대전화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게임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경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에서 세진이는 4명의 길잡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마도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많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

테니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모임이 끝나고 라이트와 후미등이 부족하여 어떻게 구해야 할지 고민되어 권대익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민준 준기 세진이는 라이트와 후미등이 다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골목 아지트존 갔잖아요. 남혜진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게 어떨까요?”

골목 아지트존에 방문했을 때 인사만 드리러 갔는데 아낌없이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남혜진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전거 여행 실습생 전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라이트와 후미등이 부족하네요. 혹시 여분이 있으시면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골목 아지트로까지 가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한 번 알아볼게요, 4시 30분에 복지관에서 뵈요~.”

여행 전날 아이들 출정식에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 문자 드렸습니다. 되도록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아이들 출정식이 아닌 라이트와 후미등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때문에 급하게 준비하시는 건 아닌지 일이 더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부터 미리 찾아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출정식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이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을 떠날

옷을 입고 오니 팬스레 떨렸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과 출정식이 진행될 강당에 가서 간단하게 총연습했습니다. 멋스럽게 말하지 못해도 아이들만의 순수함이 묻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훌륭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던 출정식

출정식 시작 20분 전 남혜진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준비는 잘 돼 가냐고 물으시며 라이트와 후미등을 주셨습니다. 전화로 부탁드려 죄송한 마음만 컸었는데 넉넉히 챙겨주셔서 아이들과 여행 풍족하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이어 이만우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전날 함께 탁구 치며 아이들 출정식에 오실 수 있으신지 여쭙었습니다. 시간 되면 꼭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여행에 같이 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탁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걱정되어 물품 챙겨오셨습니다. 더불어 여행을 하며 지켜야 할 안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운 날 여행 떠난다고 김미경 과장님께서 쿨팩 챙겨주셨습니다. 목 뒤에 붙이니 세상 시원했습니다. 한수현 주임님께서 쿨토시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팔 타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정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이 강단에 서서 부모님 실무자 선생님 실습생 선생님들 돌레 분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말했고 모든 분이 잘 경청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박수도 보내주셨습니다.

출정식이 끝나고 짐을 들고 복지관으로 나와 출발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로 부모님 앞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많은 분이 출발하기 전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 길 떠나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라이딩

방화11복지관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인 건아들 펜션까지 총 80km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진이를 선두로 재성 준기 민준 권대익 선생님 일렬종대로 달렸습니다. 아이들 모두 속도와 종대를 유지하며 방화대교에 도착했습니다.

아라뱃길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속도를 내고 싶다 하여 종대를 이탈하여 달렸습니다. 사전여행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장거리 여행이니 속도와 안전에 유의해서 가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아이들 모두 잘 지켜주었습니다.

방화대교 도착 후 여의도에서 쉬었습니다. 얼마 달리지 않았지만, 날씨가 더운 탓인지 금세 목이 말랐습니다. 물과 파워젤을 먹고 식수대에서 몸을 적신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한강 주변을 쭉 타고 달리니 아름다운 강이 펼쳐졌습니다. 자전거 여행 왜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준기 아버님께서 여행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블루투스 스피커 설치해주셨습니다. 반포대교를 달리는 도중 준기가 노래를 틀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힙합이 나왔지만 신났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흥겨운 노래가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잘 달려주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라이딩을 하고 성수대교에서 물과 토마토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준비해 온 물과 음료수가 이렇게 맛있더니 별컹별컹 마셨습니다. 조금 쉬니 강을 따라 해가 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신나 아이들에게 사진 찍자고 말했습니다. 싫은 티 안 내고 사진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반포대교 휴식

라이딩 한 시간 얼마 안 되지만, 민준 준기 세진이 얼굴과 옷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식염 포도당 챙기길 잘했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고 식염 포도당 먹어야겠습니다.

다시 출발하여 올림픽대교를 지나 구리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약 40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늘이 많고 해가 지고 있으며 민준

준기 세진 모두 페이스 유지 잘 해주어 아직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았 습니다.

구리 성서교회 쪽에 도착하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후미등을 켜고 달렸습니다. 옆에서 뒤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았 기에 라이트와 후미등이 꼭 필요했습니다. 회의에서 아이들이 필요 없 다고 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절실히 느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팔당역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경 기도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아주 어두워 라이트 켜고 달렸습니다. 약 50~55km를 달렸기에 아이들 모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뱃길 사전여행이 약 50km였기에 사전여행 거리 이상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쉬면서 식염 포도당과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했지만, 아이들 의 피곤함을 물리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간에 쉬었지만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쉴 때 폭 쉬어야 에너지가 충전되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 5~10분 정도만 쉬니 금방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출발했지만, 다음부터는 충분한 휴식 챙기도록 해야겠습니다.

팔당역에서 운길산역으로 가는 도중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아이들 모두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어지럽다고 하고 준기와 세진이는 몸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출발 했으며 휴식이 많이 부족했기에 그랬을 겁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었기에 아이들은 쉬고 권대익 선생님과 함께 인근 식당에 가서 물을 구했습니다. 권대익 선생님께 식당에 들어가서 부탁

하는 게 부끄럽다고 하니 51번 거절당한 사람도 있는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카페에 함께 들어갔지만 결국 권대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마실 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옆에서 같이 달려주세요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윤길산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민준 준기가 얼마나 남았냐고 묻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끊임 없이 가는 길을 통해 아이들 모두 지쳤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보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응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힘이라고 생각되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옆에 있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있는 힘 모아 출발해 물의 광장 근처까지 왔습니다. 물의 광장에 도착했다는 것은 북한강 종주길에 왔다는 증거입니다. 신이 나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자. 선생님이 민준 준기 세진 이랑 물의 광장도 가보고 싶어서 알아봤던 곳인데 여기쯤이면 북한강 자전거길이라 숙소까지 금방이야!”

“선생님. 진짜죠? 숙소까지 금방이죠?”

“당연하지. 선생님 믿어봐 한 15km만 가면 숙소 도착이다!”

“선생님. 빨리 출발하죠.”

팔당역에서부터 물의정원에 오기까지 아이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더

는 못 달리겠다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숙소에 언제 도착하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거짓말하기 싫어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숙소까지 16km 남았기에 조금만 더 달리면 숙소 도착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북한강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길이라 조명이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하나도 없었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세진이가 준비한 강력한 라이트가 없었다면 가는 길 꽤 고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세진 고맙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는 별이 보입니다. 나무 사이를 달리며 강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이 주는 경치 누렸습니다. 아이들 힘내라고 바람도 도와줍니다. 투정 부리던 아이들도 조용히 함께 길을 달립니다.

적막을 깨고 앞에서 달리는 세진이가 말했습니다. 속도를 내어 세진이 옆에 붙었습니다.

“선생님! 길이 너무 어두워요. 여기 절대로 혼자 못 와요.”

“왜 혼자 못 와, 옆에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 설마 지금 무섭니?”

“네, 제 옆에서 같이 달려주세요.”

“선생님이 귀신 이야기 잘 알거든? 원래 여기가 귀...”

“선생님. 그만 하세요.”

시크해보이는 세진이는 겁이 많습니다. 벌레가 스치기만 해도 큰소리를 칩니다. 옆에서 같이 달리고 있어도 무섭다고 합니다. 그 모습 너무

순수해서 놀리고 싶었지만, 꼭 참고 함께 달렸습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길을 지나고 뒤에서 준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 옆에서 같이 달려주세요. 무서워요.”

“알겠어 알겠어.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달려줄게.”

“준기야 많이 힘들어? 선생님보고 2박 3일로 가자고 했잖아 다시 가야지?”

“네 힘들어요. 2박 3일 절대 못 가요. 아니 장거리 자전거 여행 다시 못할 것 같아요.”

국토 종주가꿈인 준기는 회의에서 처음으로 2박 3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충분히 왕복으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여행을 발판 삼아 성인이 되었을 때 국토 종주 꼭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다.

시원한 터널을 지나 대성리까지 도착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민준이와 준기가 세진이한테 언제 도착하냐고 묻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민준 준기 세진 마지막 젓 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립니다.

우리들의 보금자리 도착했습니다.

“와 도착했다. 진짜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생했어~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자.”

7시간 대장정 끝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민준 준기 세진 짐을 풀고 바로 바닥에 눕습니다. 얼마나 고됐으면 씻지도 않고 자겠다고 합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하기에 씻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대성리 펜션 도착

늦은 저녁 식사로 팔도 비빔면과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삼겹살을 굽고 민준 세진이 팔도 비빔면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음에도 잘 도와줍니다. 음식이 완성되고 팔도 비빔면과 삼겹살을 처음 먹는 세진이 한마디 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쉽네. 나중에 집에 가서 어머니께 해달라고 부탁드려봐.”

“와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진이가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민준이도 감탄합니다. 줄면서 먹는 준기는 눈을 뜨며 삼겹살 수육처럼 잘 구웠다고 칭찬해주었습니다. 5봉지를 끓였지만, 순식간에 사라져 5봉지 더 끓였습니다. 아이들 모두 잘 먹어주어 고맙습니다.



식사 준비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다음 일정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르면 아침 일찍 숙소에서 춘천까지 약 50km 자전거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자전거를 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운 날 방화11에서 대성리까지 온 것만으로 대단합니다. 내일 일정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괜찮으니 민준 준기 세진이 스스로 일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여러 가지 방안을 말해주었습니다.

“자전거 타기 힘들니 가평까지 지하철 타고 가평에서 물놀이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건 어때?”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 타지를 못 하겠어요. 날씨도 너무 더워요”

“그렇구나. 그럼 물놀이하고 춘천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닭갈비 먹고 놀다 올까?”

“물놀이도 안 할래요, 그냥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놀다가 기차 타고 서울로 와요.”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춘천까지 가고 싶어 설득 아닌 설득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최소한으로 타면서 춘천까지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내일 상태 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하고 나니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여행인데 굳이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놀기만 해도 좋지 않을까?’

이번 여행의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하고 싶은 활동 하면서 즐길 수만 있다면 여행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돕고 싶어 여행 둘째 날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편지 읽었습니다.

여행 떠난다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손편지 써주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을 깔고 아이들과 둘러앉아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한 명씩 읽어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부끄러운 중학생 2학년이라 혼자서 읽겠다고 합니다.

다리를 오므리고 편지를 가리며 천천히 읽습니다. 알 듯 말 듯 한 미소를 띠며 편지를 다 읽었다고 말합니다.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자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몰래 본다고 하니 뱃속에 숨겨놓고 잔다고 합니다. 편지를 끝으로 다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피곤했는지 바로 잠들었습니다.

누워서 오늘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끔가다 세진이가 멈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맨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기에 네비가 잘못되면 다시 길을 설정합니다. 혼자 설정하지 않고 민준 준기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선생님들은 그저 옆에서 아이들이 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묻고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층 더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슈퍼비전

아직 매우 부끄러운지 준비한 멘트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말해달라 하니 출정식 시작되면 그때 말한다고 합니다. 멋스럽게 말하지 못해도 아이들만의 순수함이 묻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훌륭했습니다.

☞ 생각만큼의 출정식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옆에

서 거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옆에서 아이들과 잘 준비해주어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남혜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어요. 음식도 준비해주시고 자전거 용품도 살펴봐 주셨지요. 감사 인사 꼭 드리러 갑시다.

이만우 선생님께서 헬멧 빌려주셨지요. 장갑도 주시고 펌프도 가져와 주셨어요. 처음엔 다 사야 한다고 하셨는데 혹여나 위험할까 봐 손수 다 가져오셨어요.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을 2리터 4통이나 챙겼는데 부족했지요. 무게 때문에 더 들기는 힘들고 중간에 급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다음엔 편의점 위치도 미리 파악하고 어느 다리로 건널지도 미리 궁리하면 좋겠습니다. 강변북로 쪽에는 편의점이 없었어요. 88 도로에는 있는지 살펴봐야겠어요.

물이 없을 때 얻는 것도 재미. 주유소에서 한 번, 카페에서 한 번 물을 얻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50km 아래बाट길은 잘 탔는데 이번에 50km를 넘어서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체력은 좋지만, 지구력 훈련도 필요해 보여요.

픽시 자전거 영향도 있었죠. 엉덩이가 아프면 자전거 바지도 꼭 필요하겠어요. 첫 자전거 여행, 많이 배웠을 겁니다.

비빔면과 삼겹살 맛있었어요. 옆에서 감탄하던 민준의 모습이 떠올라요. 저녁도 안 먹고 자전거를 탔으니 무엇을 먹어도 꿀맛이었을 겁니다.

부모님 편지, 아이들이 각자 읽었지요. 초등학생들은 함께 읽어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사춘기 중학생에게는 싫었나 봅니다.

저도 지금 친구들과 여행 간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편지는 개인이 읽고 싶을

듯해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 같아요.

재성의 말처럼 편지를 읽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편지로 받으니 아이들의 마음이 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다음에 자전거 네비, 미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네비가 오류가 많았어요. 밤에 체력이 떨어지고 길을 잘 못 찾는 상황에서 제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준기는 그래도 직접 지도를 눈으로 보고 싶어 해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었어요.

여행 둘째 날: 선생님 바로 춘천으로 가요

오전 8시 아이들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모두 힘들고 이 날씨에 자전거 못 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바로 춘천으로 가서 닭갈비 먹자고 합니다. 그렇게 대성리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상당히 더웠습니다. 5분만 서 있어도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이 날씨에 자전거 탔다면 춘천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하철 탔을 겁니다. 춘천역에 도착해서 세진이가 네비게이션에 닭갈비 골목을 입력합니다. 역에서 멀지 않다는 말을 듣고 민준 준기 좋다고 합니다.



춘천으로 가는 지하철 표 예매

닭갈비 골목에 들어서자 가게 사장님들이 문을 열고 여기로 오라고 하십니다. 민준 세진 준기 당황해서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선생님 보고 정해달라 합니다. 그 모습 보고, 제가 꼴조연을 알려주었습니다. “떡자골목에 오면 보이는 곳에 그냥 들어가면 돼, 다 똑같거든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

“그럼 바로 뒤에 가게로 들어가요. 음료수 서비스로 준대요.”

망설임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약속대로 음료수도 받고 닭갈비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어디로 갈지 물어봤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이 카페로 가자고 합니다. 골목을 나와 바로 앞에 설빙이 보였습니다. 준기가 설빙에 가자고 합니다. 민준 세진도 좋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빙수를 먹으며 하고 싶은 일 있냐고 물어보니 기차가 올 때까지 설빙에 있자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춘천 시내 놀러 가자고 했지만 더워서 싫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진아 선생님이랑 춘천 의암호 잠깐 돌고 올까? 춘천까지 왔는데 아쉽잖아.”

“선생님, 진짜 이 날씨에 타면 죽어요”

“민준 준기야 유튜브가 그렇게 재미있니 뭘 보는데 계속 웃어?”

“OO 게임인데요. 선생님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카페에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용산가는 ITX 탈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하고 춘천역에 도착하여 ITX에 탑승했습니다. 준기가 비행기 같다고 신나합니다. 물어보니 ITX를 처음 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다 함께 잠들었습니다.

프로 라이더 김상진 관장님

눈을 뜨니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를 내리고 용산역에서 나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타자고 하면 힘들어서 못 탄다고 했던 아이들이 집 가는 길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민준이가 넘어졌습니다. 가서 확인해보니 자전거 바퀴에 구멍이 났습니다. 드디어 준기가 아버지께 배운 자전거 수리법을 적용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가방에서 멍키스패너를 꺼내고 앞바퀴를 자연스럽게 분해하여 슈브를 교체하고 공기 주입을 통해 튼튼한 바퀴로 만들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딱 해내는 모습이 마치 전문가 같았습니다. 준기 덕분에 무사히 바퀴를 고치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대익 선생님께서 마포대교 인근에 관장님이 응원 나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에게 비밀로 하고 조용히 마포대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관장님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격려의 인사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자전거 라이딩 완전무장을 하고 함께 달렸습니다.

방화대교 인근에서 관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음료수 사주셨습니다. 신기하게 아이들은 관장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관장님이 가진 기쁨이

남다른가 봅니다. 자기보다 자전거를 오래 타고 장비도 좋으니 신뢰가 갔나 봅니다. 장비를 제대로 갖추었다면 내 말도 잘 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음료수를 마시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속도를 올려달라고 관장님께 말했나 봅니다.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았는데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방화대교로 들어가기 전 거리에서 기다려주었습니다. 저와 권대익 선생님이 도착하고 다 함께 복지관으로 출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관장님과 휴식

먼 길 돌아오는 아이들 축복해주어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회의하고 여행 준비하느라 출정식과 환영식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이만우 사장님, 주병숙 부회장님, 남혜진 선생님 등 돌레 분들에게 연락만 드렸지 직접 찾아가서 구체적인

로 설명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환영식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했다면 아이들 기억에 평생 남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춘천에서 쉬고 있을 때 권대의 선생님께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지관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서프라이즈로 환영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해도 항상 관심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함께 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이들처럼 대해주고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달리는 아이들 뒤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멀리서 큰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둥그렇게 라인을 만들어 아이들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노래를 틀며 큰 환호성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부려주시며 여행 갔다 오느라 고생했다고 축복해주었습니다.

모든 분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주었고 민준 준기 세진은 부모님에게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대견스러워 아낌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느낀 감정 부모님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복지관 앞에서 진행된 환영식

부모님과 돌래 사람분들 앞에서 아이들이 여행 갔다 온 소감을 말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한층 더 성숙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소감을 마치고 부모님들께 큰절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한 아이들 생각하니 애뜻하고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아이들 꼭 안아줍니다. 복지관 선생님들 큰 손뼉 쳐줬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 가족끼리 헤어졌습니다. 여행을 통해 아이들의 주체성과 공생성을 늘려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가족 간의 거리도 가까워졌으

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구실로 저녁 시간 많은 대화가 오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과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주었으며 옆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신 부모님들과 복지관 실무자 선생님 들레 사람분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지치기도 했지만 '이 맛에 단기사회사업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환영식 준비 도와주신 분들과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아이들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었습니다. 아직 감사 인사와 수료식이 남았습니다. 남은 활동 아이들과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감사 인사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식 후 단체 사진

슈퍼비전

자동차 네비가 없던 시절에는 운전자는 길을 이해하고 모를 때는 모르며 찾아갔어요. 그러니 한 번 간 길은 잘 찾아갔을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도 네비에만 의존해서 가니 여러 번 길을 가더라도 네비 없이는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다음엔 자전거 네비 외에도 지도도 더 자세히 살피고 여러 대안을 미리 궁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6시에 깨웠는데 아이들이 못 일어났어요. 그때 출발했으면 춘천까지도 전해볼 만했을 겁니다. 춘천에 도착해서 재성이가 혼자 시내를 다녀왔지요? 그 날씨에 낮에 다니니 재성도 힘들어했지요. 이번 여름, 덥긴 더웠습니다.

아이들이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만졌어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아이들에게 말을 못 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청소년 자전거 여행팀 말고도 다른 팀도 사용이 빈번해요. 다음엔 스마트폰 가져오지 않는 걸 약속으로 정해도 좋겠습니다.

환영식.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처음 경험이었지요. 복지관 실무자가 준비를 했으나 주인공은 부모님이 되도록 애썼어요. 플랜카드도 부모님께서 직접 들고, 부모님께서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첫 환영식이 좋은 예시예요. 다음에는 부모님이 조금 더 준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여행의 공이 큼니다.

여행 첫째 날 : 더 놀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삼척 여행 부책임자 전재성

아이들과 수료식 감사 인사 회의를 마치고 별관으로 들어가니 유진이와 권대익 선생님께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글 쓰고 있는 도중에 유진이와 권대익 선생님께서 말합니다.

“재성, 삼척으로 갈 것 같은데 어디 갈만한 곳이 없을까?”

“아... 삼척이요? 바다밖에 없어요. 밤에 솔비치 잠깐 봐도 좋고요. 아이들이 죽서루는 싫어하겠죠? 삼척으로 온다면 제가 숙박 한번 알아볼게요.”

유진은 고등학생 설악산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아이들 사정으로 초등학생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과업보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기에 잘 돕고 싶었습니다.

“안 쓰는 집 비워두면 못쓴다. 엄마 아빠가 주택에 잘 테니 아이들 데리고 아파트에서 자렴.”

어머니께 전화하니 삼척에 이사하기 전 집이 그대로 있어 숙박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숙박 제공자 겸 여행 부책임자로 윤선다인 민준 지윤과 삼척여행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첫 만남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로비에는 다인이와 다인 어머님께서 유진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인사하고 다인에게 인사하니 많이 어색해합니다. 삼척여행팀 아이들과 만난 적이 없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니 민준 지운 윤선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양손에 한가득 짐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 보니 귀엽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이들 여행에 필요한 먹거리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이리 풍족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여행 출발 전 사무실에 들러 인사드렸습니다. 다인이가 대표로 여행 설명했습니다. 양손에 일정표를 들고 말합니다. 많은 선생님 앞에서 말하려니 부끄러웠나 봅니다. 다인의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만하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주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인이 대견스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삼척여행 소개하는 다인

인사를 마치고 차량에 짐을 실었습니다. 차에 도착하고 오르기까지 많은 선생님과 동료들이 배웅해주었습니다. 조심히 잘 갔다 와요, 저도 가고 싶네요, 도착해서 보자! 등 많은 말 해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까지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길에 오르고 나서 아이들이 준비한 여행 일정표를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치열하게 조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집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한 주소를 권대익 선생님께 말해주는 모습을 보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이라 친해지고 싶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민준 윤선다인 지윤과 삼척 가는 길 내내 게임을 했습니다. 어쩔 그리 신났는지 쉽 없이 말합니다. 휴대전화 없어도 아주 즐겁나 보입니다.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금방 풀리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가진 순수한 마음 부러웠습니다.

차에 탄 시간이 길어지니 아이들이 휴게소 언제 도착하냐 묻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하니 좋아합니다. 그렇게 내린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들리고 분식 구석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무엇을 먹을지 정합니다. 줄을 서서 직접 계산도 하고 회계 담당 민준이가 영수증도 챙깁니다. 아이들 스스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맡은 역할 책임 다하는 아이들 모습 기특합니다.

음식을 들고 휴게소 걸었습니다. 그네도 타고 원하는 곳에서 사진도 찍고 화장실도 들리고 휴게소마저 잘 누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타니 지윤 어머님께서 챙겨주신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고팠나 봅니다. 열심히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 보니 삼척여행 잘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로 가기 위한 완전무장(完全武裝)

삼척 가는 길 저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소리에 눈 뜨니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삼척 거의 다 도착했지만,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언제든 비가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비 오지 말아라’ 말을 되새기며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후진 해수욕장에 도착하고 쪽 둘러보니 바다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전 요원분들께 물어보니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바다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권대의 선생님께서 삼척시청에 전화하여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척까지 왔는데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척 오기까지 행복해하는 아이들 모습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엄마에게 전화하니 후진 해수욕장 근처 증산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증산 해수욕장을 보니 몇몇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안전 요원 아저씨께서 안전선만 넘지 않으면 뭐라 하지 않았기에 바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아이들 모두 기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구명조끼와 수영복을 갈아입고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 체조 담당인 민준이를 중심으로 준비 운동했습니다. 선생님과 지윤 윤선 다인 모두 잘 따라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맡은 역할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티 내지 않고 잘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 하나로 이리 즐거울 수 있나요?

체조를 마치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생각보다 높았지만,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윤 민준 물안경까지 쓰고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 즐겁습니다. 다인 윤선은 무섭다고 들어오기 싫다고 했지만, 지윤 민준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놀고 쉬고 먹고를 반복하며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는 힘에 부쳐 나와 쉬었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놀았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체력이 좋으며 힘이 넘칠까, 쉬지 않고 노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중에 나와 음료수 마시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야지 날씨가 너무 추워, 내일도 놀아야지.”

“싫어요, 계속 놀 거예요,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면 되죠.”

“알겠다.”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노는 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놀고 내일도 실컷 놀겠다 합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노는 것을 좋아하고 놀고 싶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민준 윤선 지윤 다인 원하는 만큼 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에 시간을 알려주니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내일도 재미있게 놀자고 다독여주니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합니다.



해수욕장 물놀이

저녁의 꽃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서 집에 가기 전, 마트에 들렸습니다. 마트 바람이 너무 차가웠는지 아이들 모두 춥다고 합니다. 후다닥 고기와 상추를 사고 집으로 갔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아이들 씻고 있는 동안 엄마가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 먹으라고 닭꼬치 사다 주셨습니다. 저도 집을 잘 모르기에 집 사용법을 알려주고 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먹을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각자 챙겨온 김치찌개 재료를 꺼내 김치찌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조리법을 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궁리하는 모습 보고 흐뭇했습니다. 일단 아이들 스스로 하게 나 두고 나중에 거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보는 중에 다인이가 저를 부릅니다.

“선생님. 다 만들었는데 지윤이가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너무 매워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봐도 될까?”

다인이가 좋다고 합니다. 한번 봐달라고 합니다. 한 손가락 들어먹으니 다인이가 맵지 않냐고 묻습니다. 제 입맛에는 맵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히 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찌개 비주얼은 좋았습니다. 다만 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아이들과의 합작인 김치찌개 완벽했습니다.

김치찌개 간을 보는 동안 민준이와 윤선이가 저녁 먹을 식탁 준비했습니다. 밥과 닭꼬치 삼겹살 목살 등 푸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맘껏 놀고먹으니 더 맛있었나 봅니다. 너무나 잘 먹는 아이들 모습 보니 행복했습니다.

책임감 강한 여행 팀원들

식사를 마치고 제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화장실도 바닥도 설거지도 뒷정리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

다. 당연히 아이들이 하기 싫어할 줄 알았습니다. 생각하는 동안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다 먹은 거 치워야 하는데 설거지 누가 할까?”

“제가요, 제가 할게요, 저랑 다인이랑 설거지할게요. 집에서도 매일 해요. 잘할 수 있어요.”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어쩔 이리 대견스러운지 종일 칭찬 해주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름진 고기판 뺨뺨 닦는 모습 보니 훌륭했습니다. 설거지가 늘어나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설거지하는 동안 민준은 바닥을 닦고 윤선이는 저와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하기 싫어하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 거부감 없이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와서 힘든 점보다 배운 점이 더 많았습니다.



모래 청소하는 민준

뒷정리를 마치고 잠깐 방에 가서 전화하고 나오니 유진이와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엄마에게 감사 편지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함께 잘 해결합니다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편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하면 되지만 편지를 먼저 쓰자는 친구와 선물을 먼저 사자는 친구로 나뉘어 토론까지 했습니다. 모든 일 아이들 스스로 잘 해결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 스스로 의견을 맞춰나가 선물 사고 편지 쓰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자기 전, 부모님께 받은 편지 읽기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초를 켜니 아이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유진이가 잘 숨겨왔기에 아이들은 부모님이 편지 써준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에서 중학생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편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초등학생 친구들은 빨리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을 끄고 다인이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조용히 낭독 해주니 다인이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유진이도 함께 맺힙니다. 아이들 모두 집중하여 경청합니다. 누구 하나 웃는 친구 없습니다. 우는 다인이 모습도 기다려줍니다. 편지를 다 읽고 모두 포옹해줬습니다. 민준 지윤 윤선 다인 모두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편지 읽기를 마치고 부모님께 답장의 글을 썼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천천히 글을 써 내려 갑니다.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받으니 감동이었나 봅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고 관계가 더욱 가까워 진듯 하여서 되려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편지쓰기를 마치고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 준기 윤선 다인 모두 마피아 하자고 합니다. 몰래 방에 들어가 자서 미안합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유진이가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모든 활동을 함께 해오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오래도록 기다리던 만큼 좋은 아이들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여행 1일 차 잘 마무리했습니다.

슈퍼비전

양손에 한가득 짐을 들고 뚝뚝 걸어오는 모습 보니 귀엽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이들 여행에 필요한 먹거리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이리 풍족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 여행 준비물도 아이들과 부모님이 나누어서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지요. 여느 이웃들의 여행 모습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집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 아이들이 재성 부모님께 직접 전화해서 여행 일정을 설명하고 주소를 여쭙었습니다. 네비게이션 주소도 아이들이 직접 알려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여행입니다.

놀이가 밥이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는 책을 읽었지요? 이렇게 신나게 놀았던 경험이 언제 있을까요?

둘째 날 물놀이 못 할 것을 예상했다면 한 시간 정도 더 물놀이할 걸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 맛있던 김치찌개가 아이들과 재성의 합작품이었군요. 부족한 만큼 거들었군요. 아이들에게 간 보는 방법도 알려주었나요? 어떻게 다시 요리를 수정했는지도 알려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미리 회의하고 계획했던 여행. 각자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모습이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선생님, 다음에 같이 여행와요

감사 인사도 똑 부러지게 합니다

아침 7시 눈을 떴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조금씩 비가 내렸습니다. 둘째 날도 바다에서 놀고 싶다는 아이들 바람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길 바랐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이들 모두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마피아 하느라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아침 8시 아이들이 잠에서 깬습니다. 이불을 개고 바다에서 먹을 주먹밥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이가 쌀을 씻고 밥을 안칩니다. 지윤 윤선 유진이가 주먹밥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이라 피곤할 법도 한데 아이들 맡은 역할 미루지 않고 잘 해주어 고마웠습니다.

밥이 완성되자 재료를 넣고 윤선이가 열심히 섞습니다. 다 섞고 윤선과 지윤이가 주먹밥 모양을 만듭니다. 다인이는 접시에 뿌려놓은 김 가루를 열심히 묻힙니다. 민준이는 다인이가 김 가루 묻힌 주먹밥을 봉지에 담아 묶습니다. 4명의 협업 훌륭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없어도 스스로 척척 해냅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 짐 정리 할 겸 집 청소도 다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감사 인사 연습을 하던 중 집에 알람이 울립니다. 엄마 차가 아파트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아이들 모두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도착하여 소파에 앉고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인이가 대표로 나와 말했습니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과 편지 준비했어요.”

“그래, 잘 지냈니? 불편한 건 없었고? 편지 잘 받을게~”

포옹을 끝으로 감사 인사 마쳤습니다. 엄마가 감정표현을 잘 못 하는 편이라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엄마가 아이들이 쓴 편지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기

있는 대로 누리고 즐깁니다

집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향해 차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안목 해변입니다. 강릉에 있는 곳으로 강릉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열심히 내리고 있어 바다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가와도 안목 해변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바다가 아주 좋나 봅니다.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발이라도 담그고 오자고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목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우비와 우산을 무장하고 안목 해변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척에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가 쳐도 근처에 발을 담그려고 합니다. 파도가 가까이 오니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다시 발 담급니다. 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다면 그걸로 족했습니다.

안목 해변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강릉 시내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던 중 옆에 맥도날드가 보였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자고 합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정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끼니를 푸짐하게 챙겨 먹지 못해 아이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생각했는데 무엇이든 다 잘 먹어줍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에서의 일정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에 다음 일정을 정해야 했지만 마땅한 장소를 떠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중 권대익 선생님께서 월정사 전나무 숲으로 가자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장소는 워낙 좋았기에 아이들과 이야기한 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즐거웠던 곳, 월정사

월정사 가는 길 강릉시청에서 윤선이는 가족 여행 일정 때문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인 지윤 유진 선생님이 윤선이 끝까지 배웅해줍니다. 윤선이보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은 들었나 봅니다. 모든 일정 끝 가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습니다.

윤선이와 헤어지고 월정사로 향하니 비가 그쳤습니다. 날씨가 정말 맑았습니다. 너무 이뻐합니다. 일본 영화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있으니 계속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아이들도 옆에서 이쁘다고 합니다. 민준이가 빨리 숲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월정사 전나무 숲에 도착하니 날이 너무 좋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릉에서 비를 내리게 한 날씨가 미웠지만 아름다운 월정사에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분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들리고 월정사로 들어가는 다리로 향했습니다.

강원도에 살면서 월정사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그저 놀라웠습니다. 서울에 사는 민준 지윤 다인이가 강원도의 풍경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아 강원도의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믿고 가는 권대익 선생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물에 발도 담그고 신발을 벗고 길을 걸으며 다람쥐도 보고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만족한 여행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월정사 일정을 마치고 차로 가는 중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주 좋나 봅니다. 손잡고 오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민준아 선생님 좋니?”

“네. 다음에 같이 여행하러 와요. 선생님.”

“그래. 그러자.”

민준이가 다음에 같이 여행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희망 나눔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분은 좋았지만 싫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민준이와 여행 한번 가야겠습니다.



월정사에서 발 담그기

만난 지 이제 이틀째인데 저를 이렇게나 좋아해 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다인도 유진 선생님보다 제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저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챙겨주었는데 짧은 시간 저와 아이들 모두

정이 들었나 봅니다. 괜히 유진에게 미안해집니다.

더 즐기지 못한 아쉬움, 다음을 기약하며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만 하면 끝입니다. 근처 휴게소가 있지만 30분 더 걸리는 휴게소를 가자고 합니다. 가서 온종일 밥 먹자고 합니다. 다음에 또 여행 가자고 합니다. 1박 2일 말고 더 길게 가자고 합니다. 여행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느끼나 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더 즐기지 못해 아쉬움 뿐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이들 모두 피곤한가 봅니다. 다인과 윤선은 깊은 잠에 빠졌고 휴대전화를 하던 민준이도 햇빛을 피하고자 눈을 가리고 폭 잡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잠에 빠져있습니다. 아이들 깨우고 지운 다인 민준 순서대로 집 앞까지 내려다주었습니다. 한 명씩 가는 길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끝내니 시원섭섭했습니다.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여행과 바다 여행이 끝나고 수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아낌없이 누린 과정 잘 남겨두고 싶습니다. 더불어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아이들과의 마지막 일정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궈낸 삼척여행 잘 마쳤습니다.

슈퍼비전

서울에 도착해서 엄마가 아이들이 쓴 편지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 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잘 기억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아침 준비와 감사 인사까지 각자 맡은 역할을 척척 잘 해내었습니다. 보는 내내 감탄했지요.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었습니다.

월정사 일정을 마치고 차로 가는 중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주 좋나 봅니다. 손잡고 오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 이 모습을 못 봤네요. 민준이 혼자 남자라 남자 선생님이 또 좋았나 봐요. 재성이 여행 부담당 역할을 잘했습니다. 다음엔 다른 선생님이 여름 활동을 함께 하겠지요.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수료식 준비

친구야 놀자 팀과 수료식 회의

이번 주 토요일 과업별 자체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과업별 사람이 너무 많기에 골목 야영팀과 여행팀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진 선생님 광재 지연 유진이와 이야기방에 모였습니다.

지난겨울 진행했던 수료식 일정표와 사진을 봤습니다. 먹거리도 풍족했고 아이들 공연도 잘해주었습니다. 수료식에 대해 서서히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지만, 수료식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과 미리 준비하고 축하 공연과 과업에 대한 발표 부모님 소감 등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해주었기에 준기와 세진이에게 수료식 준비 도와달라고 부탁해봐야겠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과 열심히 준비하여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준이가 우리의 여행이 가장 힘들었고 의미 있으니 PPT를 만들어 소개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PPT를 만들자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PPT를 만들고 발표를 누가 할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럼 PPT를 만들고 누가 발표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할래요. 오늘 세진이가 안 왔으니 세진이 발표 시켜요. 세진이 발표 잘해요.”

발표 잘하는 세진이가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세진이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세진이가 안 한다고 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발표 안 할래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선생님이 하면 재미없으니 우리 발표할 내용을 4명이 나누면 어떨까? 돌아가면서 해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요.”

간단하게 수료식에 대한 회의를 마쳤습니다.

민준이와의 만남

오늘 오전에 아이들과 감사 인사 편지 쓰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방으로 이동하던 중 민준과 세진이 연락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친구 생일파티 때문에 회의 참석 못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빠지지 않았던 아이들이라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민준이도 오지 않았기에 다음 주 일정을 다시 계획하기 위해 민준준기 세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일정을 다시 조정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떤 일정

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

“선생님. 저 교회에서 캠프 가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민준이는 괜찮다고 하지만 준기와 세진이는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캠프 간다고 합니다.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자체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도 수료식이지만 감사 인사를 다녀야 하는데 일정이 맞질 않아 머릿속이 복잡해져 권대익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준기와 세진이가 수료식 전까지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감사 인사도 전하기로 했는데 못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 인사는 다음 주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기와 세진이 참석이 어렵다면 민준이와 발표 준비를 하고 준기와 세진은 수료식 준비를 돕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과 의논 후에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숨겨진 PPT 실력자 김민준

“민준아, 뭐하니~? 오늘 복지관에 안 올 거야?”

“선생님. 나가기 귀찮아요. 집에서 편지 써서 가져갈게요.”

“민준아. 감사 인사는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아. 세진이하고 준기가 교회 수련회 때문에 이번 주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네. 남은 시간 선생님이랑 민준이랑 둘이서 수료식 발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알겠어요. 오후 2시까지 갈게요.”

민준이는 팀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기 싫다고 하지만 진지하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항상 도와줍니다. 책임감이 강한 친구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해주었습니다. PPT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오늘은 반만 만들자고 합니다.

민준이와 준비를 마치고 PPT를 켜니 표지에서부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적을 깨고 민준이가 외국 힙합을 틀면 잘 만들 수 있겠다고 합니다. 노래를 틀자마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색은 보라색으로 하면 좋겠어요. 표지 사진은… 픽시 사진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보라색 이쁘네. 선생님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생각하고 있었는데. 픽시 사진도 좋은데 우리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넣으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네요. 그럼 환영식 때 찍은 단체 사진 넣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 생각했었는데 역시 잘 통한단 말이야.”

이쁜 표지가 완성되고 발표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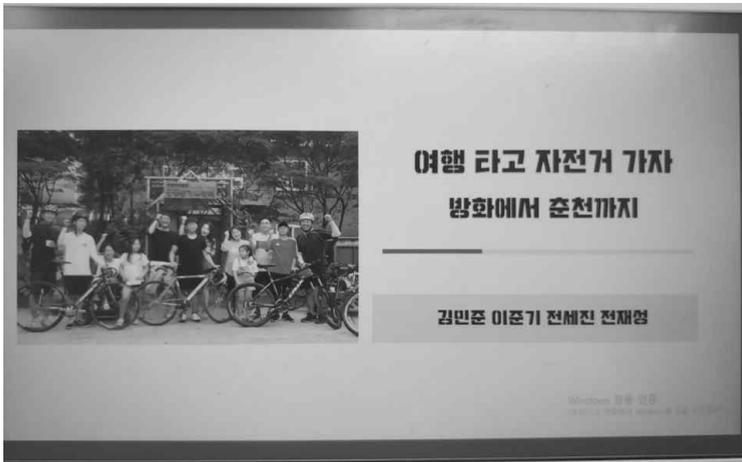
“표지는 완성했고, 다음으로 발표자 소개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전에 여행을 같이 갔던 구성원들 소개도 해주면 좋겠어요.”

“좋지. 그럼 구성원들 소개해 주고 발표자 소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지?”

각자 사진과 키워드를 넣고 구성원들 소개를 했습니다. 준기와 세진이
가 없었기에 민준이가 직접 준기와 세진이 사진과 소개 글을 작성했습
니다.

PPT 잘 못 만든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저보다 많이 뛰어나 놀랐습니
다. 다시 물어보니 초등학교 6학년부터 PPT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합
니다.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대단한 친구입니다.



수료식 피피티 표지

구성원 소개가 끝나고 발표자 소개로 넘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
다.

“선생님. 설마 제가 발표하는 건가요?”

“음... 선생님은 잘 모르겠네. 준기와 세진이가 발표 자료 함께 만들지
못했고 발표 자료 본다고 해도 금요일 늦은 밤이 될 것 같은데 발표
준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발표 좀 힘든데... 그럼 제가 발표할게요.”

민준이가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혼자서 발표하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준기와 세진에게 물어보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눠서 하고 힘들다고 하면 저와 민준이가 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는데 발표까지 한다고 하니 민준이 고생 많습니다. 부모님들과 준기 세진에게 민준이 칭찬 많이 해야겠습니다. 발표자 소개 슬라이드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내일은 여행 준비 과정과 여행에 대해 슬라이드를 만들고 자전거 여행 영상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외국 힙합을 배경음으로 넣고 영상을 틀면 좋겠다고 민준이가 말합니다. 영상은 좋지만 외국 힙합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회의 열심히 해준 민준이 고맙습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와 수료식 발표 자료 최종 완성하는 날입니다. PPT에 첨부할 사진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활동한 사진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저 사진 보며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 되돌아보니 많은 추억을 쌓아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별관과 본관을 이어주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산뜻한 바람이 불고 날이 좋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감성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혼자 생각에 잠겨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아이들과 떠들며 웃고 장난치던 모습이 떠올라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관 2층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민준에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민준에게 전화 왔습니다.

“어 민준이. 어디니? 오늘 늦게 오니?~”

“선생님. 저 집이요.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제 발표 자료 반 만들었잖아. 오늘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 반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선생님이 만들어 주세요.”

“음… 선생님 혼자 만들면 재미없는데… 그럼 선생님이 조금만 수정할 테니 금요일에 같이 다듬어 볼까?”

발표 자료 만들기가 온전히 제 몫이 돼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옆에서 거들어주며 되도록 아이들이 하게 돕고 싶었습니다. 금요일에 세진이와 준기가 서울에 도착하기에 제가 조금만 손을 보고 다 함께 마무리해보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준기와 발표 자료 마무리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준기가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민준 준기와 수료식에 쓰일 발표 자료 함께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전에 민준이와 발표 자료 반 정도 만들었기에 남은 반을 만들면 됩니다. 20분이 지나도

민준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준기가 그냥 만들자고 했습니다.

준기와 함께 민준이랑 만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준기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민준이가 만든 거 아니죠?”

“이거 민준이가 만든 거 맞는데? 왜 너무 잘했니?”

“네. 잘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긴 했어. 준기도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민준이 혼자 어떻게 만들어요.”

민준이와 어떤 방향으로 발표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준기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준기가 좋다고 합니다. 춘천여행 준비, 춘천으로 출발 목차에 넣을 사진을 준기와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진이 다 좋다고 하기에 준기가 고른 사진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전에 아이들이 PPT 만들기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 테니 같이 하자고 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잘 몰랐고 결국 내가 만들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의 힘으로 만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는 못해도 ‘아이들이 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세진이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웠지만, 민준 준기 결국 발표 자료 완성했습니다. 디자인까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발표할 내용을 직접 고르고 넣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이들 스스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자원의 탐색부터 개발 활용 평가까지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 평가까지 반드시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다 해야 하거나 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복지요결」 89쪽

“첫째, 당사자가 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를 이루는 과정을 세분하고 당사자의 강점을 살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둘째, 당사자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합니다.”

“셋째, 대신 해준다면 그에 대해 당사자와 의논하여 당사자가 알고 동의 요청하는 ‘당사자 일’이게 합니다.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 이게 합니다.” 「복지요결」 81쪽

슈퍼비전

수료식 발표 준비가 재성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좋은 구실이 되었네요. 돌아보니 좌충우돌 여러 일이 있었지요?

마음 쓴 재성, 애썼어요.

민준의 PPT 기술이 뛰어났군요. 모두 재성이 만들 줄 알았는데… 페이지마다 민준이와 함께 의논하면서 잘했습니다. 아이들과 의논하면서 PPT 잘 만들었어요. 깔끔해요.

당사자가 하도록 부탁하고, 당사자와 함께하고,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가 되도록 하기.

재성은 사회사업 방법대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성이 한 달 동안 탁구 동아리 회원분들을 잘 만났습니다.

자전거 타는 활동이 탁구 동아리 회원분들 모두 알고 계세요. 이만우 사장님과 함께 연습 라이딩하고 인사하고 감사하고 출정식까지 함께 한 걸 아시지요. 재성 덕분에 탁구 동아리 회원분들에게 좋은 예시가 생겼습니다. 회원분들의 마음 밭에 사회사업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겨울에는 탁구 동아리 회원분들과 동네 탁구잔치 사업 해보고 싶습니다. 재성 덕분에입니다.

수료식 이야기 :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른 새벽 눈을 떴습니다. ‘이 사진을 넣을까, 저 사진을 넣을까, 마무리 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샤워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영상 구도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냥 만들지 말까. PPT로만 해도 충분할 텐데.’ 아무리 고민해도 4분이 안 되는 영상에 여행 기록을 담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민준 준기 세진 그리고 부모님에게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줘야지. 발표로만 끝낸다면 너무 아쉽잖아?’ 오늘은 되돌아오지 않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노래를 입히고 사진을 추가하여 짧은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방화동 합동 수료식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이번 여름 아이들과 선생님이 활동하고 느낀 점을 부모님과 둘레 사람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수료식을 통해 지금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지역주민과 공생성이 늘어납니다. 아이들 스스로 발표 준비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그저 옆에서 거듭니다. 아이들의 자주성이 살아납니다. 수료식이 활동의 끝이 아니라 아이들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도움 주신 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료증, 발표에 필요한 PPT를 만들기 위해 서둘러 복지관으로 출발했습니다. 복지관으로 오는 지하철에서 부모님과 둘레 사람들에게 아이들 수료식 참여해서 축복해주면 고맙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면 꼭

참석하시겠다 하십니다.

PPT를 열고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혼자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 아이들 손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아이들에게 보여 줄 사진 정리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료증 만들었습니다. 전날 수료증에 들어갈 글 작성했지만, 기억보다 아름다운 추억 전달해주고 싶어 다시 한번 퇴고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한 이야기 아이들의 강점 아이들에게 고마운 점을 토대로 멋진 청소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듬고 다듬으니 어느새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준기와 회의가 끝나고 강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골목 팀과 여행팀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수료식이 진행되기에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강당을 이쁘게 꾸밉니다. 선생님들이 테이블을 펼치니 아이들이 의자를 가져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역할 잘 해주니 이쁘고 고마웠습니다.

수료식 시작 10분 전 부모님이 음식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늦은 저녁까지 진행되기에 복지관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닌 부모님이 조금씩 챙겨오실 수 있는 만큼만 챙겨와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음식도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한 자리에 세팅하니 뷔페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준비하지 않아도 부모님과 주민들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과 주민분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니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한 수료식이 되었습니다.



여행팀 힘으로 준비된 포틀럭 파티

수료식이 시작되기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민준이가 도착했습니다. 준기와 민준이가 한자리에 앉으니 역시 시끌벅적합니다. 민준이가 발표한다고 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준비를 못 했고 준기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경험한 것을 직접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초등학교 아이들 발표 준비하는 거 보이지? 우리 여행도 민준

이와 준기가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은데...할 수 있겠니?”

“선생님, 당연하죠. 할게요.”

“진짜? 준기도 가능해? 근데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살펴볼까?”

“선생님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할게요.”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아이들 발표한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에 저도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받았나 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발표하겠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 중 힘들어하면 옆에서 잘 거들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자가 되어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준비한 대로 잘 말하니 여느 사회자 부럽지 않습니다. 이어서 부모님이 챙겨오신 음식으로 포틀럭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는 준기 가족과 민준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어머니와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발표 잘하네. 너희들도 잘할 수 있지?”

“당연하죠. 저희 발표 자료도 멋져요.”

“발표 자료 선생님이 만들었겠지.”

“아니예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민준 준기가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니 대견스럽고 옆에서 잘 거들었다고 생각해 뿌듯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골목 팀 여행팀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 내용 좀 알려주세요!

골목 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숲에서 흙에서 물에서 재미있게 즐긴 아이들 모습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았기에 발표로 전해지는 아이들 마음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놀았는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3 4학년 여행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강과 장봉도에서 마음껏 누린 모습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같은 팀으로써 성미가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발표 잘 마무리했기에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5 6학년 여행은 제가 부담당자로 함께 했기에 얼마나 잘 누린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오랜 시간 끝에 다인 민준 윤선 지윤이를 만났습니다. 여행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기억에 남는 여행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는 민준이 차분히 잘 해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유진이가 열심히 준비한 모습 눈에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여행 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전 자신 있게 민준과 준기가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발표를 시작하니 슬라이드에 한마디씩 하고 넘기라고 하여 당황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달려가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이 뭐예요? 어떻게 말해야 하죠?”

무대에 올라가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긴장했습니다. 직접 고른 사진 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려 하니 말이 나오지 않나 봅니다. 아이들 마음 가다듬고 옆에서 조용히 알려주고 정리해주니 민준 준기 잘 말해주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멀리서 민준이 어머니와 준기 어머니가 흐뭇해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나 봅니다. 저 혼자 발표하기보다 아이들 스스로 발표하기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 갖고 나와준 민준 준기 고맙습니다.



여행 발표하는 민준이와 준기

발표를 무사히 마치고 아이들에게 비밀리에 선물해주고 싶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여행을 발표 자료 하나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영상으로 전하는 감동이 있나 봅니다. 민준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

발표를 마치고 수료증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행을 함께 준비한 선생님들이 글을 직접 써서 아이들에게 주는 증서입니다. 선생님이 수료증 읽는 내내 눈물 흘리는 아이들, 활짝 웃는 아이들, 축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수료증 전달식, 선생님은 수료증 낭독하고 아이들은 귀담아듣습니다. 짧은 시간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지난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함께 행복한 눈물을 나눕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한층 더 성장했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귀하고 귀해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수료증 전달과 아이들 공연을 마치고 부모님 소감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직접 해주지 못한 일을 해주어 고맙다는 아버지,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놀라웠다는 어머니, 모든 게 대견스럽고 고맙다는 부모님들의 소감을 들으니 '우리의 과업 아이들과 의미 있게 잘 해냈구나'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강점 발견과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애뜻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감문을 말하는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 떠나 주도

적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도 되었지만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 발표까지 하니 아이들 귀하고 소중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준기가 조용히 편지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회의 집중 잘하지 못해도 혼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였는데 용기를 내어 적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 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 기분 좋게 수료식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방화동 수료식 단체 사진

슈퍼비전

PPT 열고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혼자만 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 아이들 손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아이들에게 보여 줄 사진 정리했습니다.

☞ 고맙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재성에게 배웁니다. 내가 해버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아이들의 사업이 되도록 기다리고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발표 자료를 끝까지 완성한 재성. 멋져요.

무거운 테이블은 중학생 형과 선생님이 세팅하고, 의자는 아이들이 직접 채워 넣었지요. 음식준비 하나만 봐도 사회사업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복지관 예산 없이 이웃들이 함께 채웠습니다. 이렇게 사회사업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민준 준기가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니 대견스럽고 옆에서 잘 거들었다고 생각되어 뿌듯했습니다.

☞ 감동입니다. 재성이 잘했습니다.

발표를 잘 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 긴장되고 어려웠나 봐요... 재성이가 아이들과 함께 발표했지요. 멋진 콤비였습니다. 부족한 만큼 거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깜짝 영상도 고마워요. 음향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이웃들이 보고 감동했다고 했지요. 재성의 마음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부모님의 소감이 우리 활동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증언이 되었지요. 수료식에서도 가족의 애뜻함이 더 커졌을 겁니다.

감사 인사를 통해 지역사회 공생성이 늘어납니다

인사만 드리면 안 되나요?

주말 푹 쉬고 민준 준기가 자람터에 왔습니다. 세진이는 4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잘 나와주었던 세진이였기에 굳이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올 수 있겠냐 물어보니 온다고 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포옹 인사와 간단한 안부를 묻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준기는 여행 갔다 오니 피곤하다고 종일 쉬었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못 탄 이유로 힘들기보다는 너무 더워서였다고 합니다. 다음 장거리 자전거 여행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야겠다고 합니다.

화이트 보드 앞에 두 명의 회계사가 있습니다. 저는 회계 팀장이고 이번 여행의 회계 담당이 민준이였기에 함께 회계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렬식 회계정리 방법을 이용해 날짜에 맞춰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쓴 금액의 계산 결과 오차범위가 매우 커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마침내 돈의 지출을 구분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내어 오차범위가 아주 작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경비가 조금은 남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 전할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회계정리 결과를 보고 있으니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계정리 다시 보고 있어~ 혹시 빠진 게 없나 하구.”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돈 다 쓰고 오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럼 되긴 하는데 우리가 감사 인사 전할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같이 드리려고 했지.”

“그냥 인사만 드리면 안 되나요?”

여행 전 회의에서 간단하게 감사 인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사만 드리는 것 보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함께 전한다면 기억에 오래 남고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인사만 드려도 좋지. 근데 선물이나 편지를 함께 드린다면 받는 사람 관점에서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그렇긴 하겠네요. 돈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물품 사는 건 힘들고 간단하게 편지를 써서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의논 끝에 감사 인사를 전할 분들을 정했습니다. 민준 준기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고 편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부끄럽다고 편지만 전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세진이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감사 인사 다니고 마저 이야기 하려 합니다. 내일 감사 인사 잘 전하고 오겠습니다.



감사 인사 명단 작성

탁구 동아리 선생님들 만났습니다

탁구 동아리에서는 자전거 여행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드리기 전에 미리 가서 뵙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어. 그래 오랜만이야, 심심하면 탁구 한판 치고 가 피부가 더 탄 거 아니야?”

“자전거 타서 어쩔 수 없나 봐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병숙 선생님 혹시 자전거 언제쯤 갖다 드리면 좋을까요?”

“아, 그거 그냥 내 집 앞에 내두면 돼, 권대익 선생님 시켜 내 집 주소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탁구 안 치고 바로 올라가볼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탁구 동아리 회원 이만우 사장님께서서는 아이들의 자전거 선생님이자 사전여행 아라뱃길 함께 해주었습니다. 주병숙 선생님께서서는 여행에 필요한 자전거를 빌려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낌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사회사업 반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낌없이 감사할 차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니며 사업 과정에서 그때그때 감사하고 마칠 때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보람 느끼며 더 잘하고 싶어 하고 훗날 실습생들 잘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감사 인사 다니겠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감사하면 상대방은 보람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 또 하게 됩니다. 다음엔 더 수월해집니다.”

“사업 과정에서 그때그때 감사하고 마칠 때 감사합니다. 기관을 떠날 때, 부서나 업무가 바뀔 때, 두루 감사 인사 드립니다. 기관 기념일 명절 연말연시도 좋은 기회입니다.” 「복지 요결」 82쪽

골목 아지트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을 때쯤에 활동을 마쳐야 한다니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목까지 차오른 ‘다음에 만나자’ 말을 꼭 참았습니다. 희망 나눔을 진행하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언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약속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고 외치며 아이들과 만남 마쳤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문득 탁구 동아리 선생님들께 인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온 후로 회의를 미루었습니다. 민준 준기 모두 괜찮다고 합니다. 세진이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큰아버지 덕에 있다고 하여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부터 감사 인사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전하지 못한 수료증이 있었기에 준기에게 꼭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속한 시각대로 민준이와 준기가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유진 선생님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만난 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기에 그 약속 지키러 동행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던 골목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유진 선생님이 함께해서 그런지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골목 아지트로 도착하니 남혜진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사전에 연락드렸을 때 강서방송국장님이 잠깐 들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도착하니 국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잠깐 들려 인사만 하고 나가려 했는데 국장님께서 훈화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방화11복지관 실습생 전재성입니다. 이번에 중학생 친구들과 자전거 타고 춘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네. 이 더운 날에 춘천까지 가기 쉽지 않아. 내가 자전거 좋아하는데 너희들 진짜 좋은 경험 했다. 그래 어땠는지 남자답게

소감 말해봐!”

“사서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이 친구들 솔직한 게 좋네. 크게 되겠어.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거야, 훗날 더 커서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게임 조금씩 줄이고 다른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봐”

자전거 이야기를 하다 인생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당황했지만, 여느 때와 다르게 집중하여 잘 들어주었습니다. 민준 준기도 마지막 이란 사실을 알았던 걸까요. 평소 회의를 하면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 자랑스럽습니다.



골목 아지트로 감사 인사

자연스럽게 늘어난 지역사회 공생성

국장님 말씀대로 훗날 아이들이 삶을 살아나가며 힘든 일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씨앗을 품은 기억일 것입니다.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감에 품은 씨앗이 자라나고 크게 성장하여 민준 준기 세진 눈에 보이고 되돌아보며 ‘그때, 그랬었지.’ 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며 저의 중학교 2학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컴퓨터 중독에 빠져 부모님 속만 썩이던 저에게 단기사회사업의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면 어떠한 청소년이 되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민준 준기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마을 어른들께 훈화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들이 있기에 민준 준기 멋진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에 남혜진 선생님과 국장님께서 자전거 동아리에 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 6월에 동아리 사람들이랑 자전거 탔어. 나중에 너희도 어른들이랑 같이 타도 되니까 언제든지 와, 너희 동아리 친구들도 데리고 와. 강서방송국 달고 달리자.”

감사 인사만 했을 뿐인데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자고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목표 다 이루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아낌없이 주시려 하십니다. 아이들과 만남,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두루 스며들었나 봅니다.

“무너진 우물 고쳐 짓거나 새로 만들고 이리저리 물길을 내어 복지가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샘솟고 굽이굽이 돌아 흐르게 합니다. 복지가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그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들 속에, 두루 스미어 샘솟고 흐르게 합니다.” 「복지요결」 51쪽

삼천리 자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 아지트로 인사를 마치고 자전거 선생님 만나러 삼천리 가게로 향했습니다. 삼천리로 향하던 중 공항동 동료들과 선생님 만났습니다. 민준 준기 저와 유진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공항동 팀도 마찬가지로 감사 인사 다닌다고 합니다. 비도 오고 날도 더운데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서로 응원하며 헤어졌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에 도착하니 이만우 사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탁구장에도 계시지 않고 이번 주는 가게에서 업무를 본다는 소식을 들어 미처 연락하지 않고 갔는데 제 실수로 인해 그만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들분도 저희 자전거 꼼꼼히 봐주셨기 때문에 아이들과 감사 인사드리고 사장님께 헬멧과 편지를 전해달라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고 가야겠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감사 인사

감사 인사 전하고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관장님 만났습니다.

“뭘야 어디 갔다 와?”

“아, 감사 인사 다니고 왔습니다.”

“야, 내가 주말에 삼척 들렀어. 임원에서 강릉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하더라 강원도 길 왜 그래.”

“그렇죠. 먼 길 고생하셨네요. 애들아 관장님께 인사드리자!”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장님 출근 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아이들과 인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우연히 복지관으로 가는 길 관장님 뵈 수 있어 감사 인사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다고 얼른 올라가 보라 말씀 하십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강한 인상을 주신 관장님 고맙습니다.

아직 감사 인사 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 준비하며 아낌없이 응원해주신 분들이라 감사 인사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 합니다.

“소박하게 표현합니다. 소박하다면 식사나 다과 대접도 좋고 선물도 괜찮겠습니다.” 「복지 요결」 85쪽

아이들과 감사 인사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 바래다주고 딸기우유 먹고 싶어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복지관으로 오는 도중에 이만우 사장님 만났습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까 자전거 가게 들렸었는데 안 계시더라고 요… 어디 가세요?”

“어, 지금 집 가요. 오늘 가게에 가지 않아서 아쉽게 되었네요, 아이들과 준비한 수료식 잘했어요? 못가서 미안해요. 일이 있어서.”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무 잘 도와주신 선생님 덕분에입니다. 저 이제 15일 날 집에 갑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고생했어요. 활동 마무리 잘하고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 우연히 만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싶었는데 하늘이 도와주셨습니다. 상황이 맞질 않아 편지와 소박한 선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 고맙다고 전하니 이해해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길 정말 잘한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슈퍼비전

감사 인사를 다니며 강서방송국 국장님 만났군요. 여러 말씀까지 보태주셨어요. 감사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후에 골목 아지트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모임.

복지관에서 특별한 자전거 모임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동네에 있는 자전거 모임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일상에 가깝고 자연스럽습니다. 멀리 다녀보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동네 어른들과 함께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만우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다행입니다. 인사 잘해주어 고마워요. 이번 자전거 여행이 탁구 동아리에 좋은 기운을 펼쳤습니다.

관장님과 함께하는 수료식

벌써 수료식입니다

아이들과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습생들의 일정을 끝낼 차례입니다. 복지관으로 출근하면 항상 별관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10분 일찍 강당으로 갑니다. 노래를 틀고 의자를 이리저리 옮깁니다. 동료들과 강당에 올라가 줄을 서고 해맑게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자체 수료식 하는 날입니다. 기관에서의 마지막인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움직인 듯합니다. 실습생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계시는 몇몇 선생님들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수료식이 시작되고 모든 분이 착석을 마쳤습니다.

실습생 모두 강당에 올라가 복지인의 노래를 부르며 수료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빠질 수 없는 광재의 “복지요결 랩”을 들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상승하고 잘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고 싶은 랩을 하며 재미를 주는 광재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수료증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습생 한 명 한 명 관장님 앞으로 나가 수료증 받습니다.

“전재성 학생은 사회사업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에 임하기 전 다졌던 각오처럼 아이들 작은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고자 애썼습니다.”

관장님께서 수료증 낭독을 해주시면 끝이라는 해방감에 그저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앞에 서서 관장님 말씀 듣는 내내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활동해오며 좋았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지난 일 되돌아보니 짧은 시간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배운 대로 잘 실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이 처음이 아니었다면’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음 사업 더욱 알차게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동료들 한 명 한 명 수료증 낭독이 끝나고 사진과 포옹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마음이 여러신 김미경 과장님께서 또 눈물을 보이십니다. 활동 시작하며 웃는 얼굴보다 우는 얼굴을 더 많이 본 듯합니다. 실습생들 얼마나 애뜻하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관 수료식에 와주신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방화11 단기사회사업팀 수료식

돌아오지 않는 시간, 수료사 나눔

마지막 일정으로 동료들과 수료사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날 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한숨 자고 나서 일어나니 새벽 4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글자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갑니다.

아침 복지판에 도착했습니다. 틈틈이 완성하지 못한 수료사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활동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 고뇌하며 적었습니다. 마침내 수료사가 완성되었고 선생님 동료들과 함께 수료사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앞에 나와 자신이 쓴 수료사 읽습니다. 과업 해오면서 겪었던 일들, 느낀 점, 배운 점 잘 녹여냈습니다. 동료와 선생님에게 감사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꼭 참아내고 끝을 잘 맺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솔한 글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여러 왔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온 동료들 아낌없이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실습생들의 수료사 낭독이 끝나면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써준 수료사를 읽어주셨습니다. 하나의 수료사를 쓰기도 힘든데 2개 이상의 수료사를 쓰시는 선생님들 학생 하나하나의 강점을 바라봐주며 잘 해냈다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들, 받은 게 더 많은데 마지막까지 받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슬 합동 수료식

2018 무더운 여름 단기사회사업 구슬 팀 합동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화11, 선의 관악, 서초, 안산, 신은초, 서귀포 6개의 복지관이 한자리에 모여 한 달 동안 활동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합동 연수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합동 연수 내내 함께 배우고 나누며 '사회사업 이렇게 할 거야' 당당히 말하던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합동 수료식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되었습니다.

8월 15일: 합동 수료식 첫째 날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기에 전날 동료들과 복지관에서 합숙했습니다.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각자 나갈 준비를 마치고 한 달 동안 지낸 별관을 정리했습니다. 전날 실무자 선생님들께 드릴 감사 글귀를 들고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가니 천화현 선생님과 신은초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간단히 안부 물었습니다. 역시는 역시 신은초에서 활동했던 일 모두 즐거웠다고 합니다. 잘 배우고 누렸다니 다행입니다. 차에 오르기 전 어젯밤 영경이가 만든 제비뽑기로 탑승할 차량을 정했습니다. 특장차 타고 익산으로 향했습니다.

익산에 도착하니 맑은 하늘과 드넓은 논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으로만 남기기 아쉬운 장소입니다. 생각보다 익산 날씨가 매우 더웠습
니다. 아랫지방이라 더욱 그런 듯합니다. 차에서 내리니 김세진 선생
님께서 반겨주십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김세진
선생님도 자전거를 타셨는지 피부가 저만큼 탔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농촌 체험관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기관 동료들이 도착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오길 기다리며 흔들의자에 앉아 시간 보냈
습니다.

도정 체험

약속한 시각이 되자 6개의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료들과 포옹 인사를 나누고 활동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없이 반가웠습
니다. 사업 준비하고 실행하느라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기에
더욱 애뜻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준비해주신 점심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합동 수료식에는 단순히 배움만 나누는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들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중
간 자연을 벗 삼아 즐길 수 있으니 더욱 풍성한 시간 가졌습니다.

점심 먹고 체험장 선생님께서 익산이 갖는 지역적 특색에 관해 설명
듣고 도정 체험하러 갔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구경하
는 동안 바로 도정한 현미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어 몰래 2컵 더 가져왔
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집에 가져가라고 쌀 1kg 선물해주셨

습니다.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선물도 받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송림사

도정 체험을 마치고 선생님께서 익산을 제대로 누비게 해주려고 트랙터를 끌고 오셨습니다. 트랙터에 올라타 익산의 바람을 맞으며 송림사로 향했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송림사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작지만 그 누구보다 큰 송림사가 주는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기운, 재진과 조용히 송림사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 하는 재진이는 비교민속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불교에 대한 역사와 건물이 나타내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늘진 의자에 걸터앉아 조용히 대화하니 풍류를 즐기는 선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와 이야기 하니 참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트랙터 체험

기관의 매력을 알 수 있었던 추억 나눔

모든 체험을 마치고 구슬 팀이 모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방 정리를 마치고 강당으로 들어가 간단한 일정 브리핑 듣고 추억 나눔 했습니다. 방화, 선의 관악, 서귀포, 서초 4팀 6명이 한 방에 모여 인상 깊었던 활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의 관악 동료는 희망 나눔 하러 한강에 갔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도란 도란 모여 이야기 나누며 한강을 즐겼다고 합니다. 중간에 실무자 선생님이 오셔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주었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에 치여 사는 동안 이렇게 틈틈이 동료들과 산책 나오니 즐겁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의 관악, 서초, 서귀포, 방화 추억 나눔

서귀포 동료는 서울에 살지만, 제주도에서 잠깐 살았던 시간이 있어 서귀포에서 사회사업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밤하늘만 봐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활동하던 중 가파도 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신나게 비를 맞으며 걷고 문어 잡으며 놀았다고 합니다. 가파도에 도착해 선생님께서 “원래 비가 잘 안 와 가뭄이 걱정되었는데 아이들이 비를 몰고 와주어 고맙네요. 고생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비를 다 스리는 사람이 되어 즐거웠다고 합니다.

서초 동료는 경주로 여행 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책방도 들리고 밤에 보았던 안압지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책방으로 돌아와 이준화 선생님이 만들어 준 과일 차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차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책방에 이불 펴고 누우니 색다른 경험이라 했습니다.

다들 사회사업 하며 이런저런 추억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가고 싶어졌습니다.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짧아 아쉬웠습니다. 사회사업 하며 경험한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 더 듣고 싶었습니다.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소중한 추억을 듣는 서로가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간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겁고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금강 나룻배 산책

저녁 식사를 하고 금강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나루터로 향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배를 타고 금강을 누비니 감탄만 나왔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니 제 특기인 사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

하나 배우러 왔는데 이런 진귀한 시간 만들어 주니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 순간 놓치지 않고 눈에 가득 담아두려 합니다. 제 뒤에 소중한 동료들이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행복한 미소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에게 동료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며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자 선생님들의 사례 발표

아리따운 금강을 누리고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사업을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학 활동을 어떻게 이루는 게 중요할지, 아이들에게 방학 활동이 왜 중요한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단기사회 사업을 방학과 연관 지어서 아이들과 활동할까 고민했는데 합동 연수 하면서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학기가 달라지는지 학교에서 왜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싶어 논문을 찾아보고 선생님들께 여쭙봤습니다.”

천화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방학 활동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맞춰 아이들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니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활동 만들어 주고 싶어 많은 선행연구를 하시고

초등학교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사회사업 하고 싶어 하는 신은초 동료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시선에서 초등학생 방학이란 단순한 휴식 기간일 수 있겠지만 의미를 살려 오직 초등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여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신은초 선생님, 동료들과 활동한 경험이 밑거름되어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천화현 선생님 사례 발표

공유선 선생님, 김세진 선생님, 다슬이, 도희는 어르신 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슬이는 사업을 진행하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리 정했던 나들이

장소에 가려고 했지만, 할머니들께서 텅다고 자기 집에서 나들이하자고 했습니다. 다슬이는 할머니들과 묻고 의논하여 할머니 댁에서 나들이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도희는 어르신과 만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영해 주는 어르신도 있지만, 도희를 피하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도희는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찾아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희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사회사업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희는 과정을 그 누구보다 잘 실천한 학생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슬이와 도희는 할머니들의 자주성과 공생성을 잘 살려 활동했습니다. 오롯이 당사자의 것으로 모든 걸 이루고, 이웃도 초대하여 더욱 풍성한 나들이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할머니들이 가진 지혜만 바라보려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학교 다니다 보니 할머니와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할머니와 나들이 가고 싶습니다. 듣는 내내 따뜻한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소리를 울려라’ 저자인 강민지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50인의 영화제’ 제목만 들어도 사람 사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영화제를 준비하는 동안 오랜 시간 동네를 돌아다니고 인사 다니며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당사자와 아이들, 지역주민을 통해 영화제 이루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께서는 사람들 모여있는 거 구경하는 자체가 재미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회사업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공허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주신 강민지 선생님 은하 선생님 아이들 모두 고생했습니다. 사회사업의 참된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공부하고 떠나는 책 여행, 김별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듣는 내내 아이들이 얼마나 이 활동을 좋아하고 즐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정하여 공부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을 겁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부모님께서 아이들 스스로 기획하고 떠날 수 있다는 새로운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의 관악의 대표 사업 선의 원두막학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기술학교와 비슷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원두막사업은 어르신들의 부탁을 거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 강희연 선생님은 단순히 거드는 것을 넘어 모든 활동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강희연 선생님이 당사자의 눈높이를 잘 맞추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부족해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사업 하나하나 들으며 ‘나도 저 사업 해보고 싶다, 다음 사업에서는 이렇게 적용해봐야겠다.’ 되새겼습니다. 사례 나누는 동안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슈퍼비전

저녁 사례 발표가 유익했지요.

다른 기관과 사례를 들으며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 살 이를 느꼈어요. 사업과 장소는 다르지만 어느 곳이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실천하고 있었지요.

이렇듯 선행연구가 중요해요.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 여러 사례를 읽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힘이 재성이 현장에서 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강 위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아름다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몰을 더 바라보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이렇게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며 좋겠습니다.

합동 수료식 둘째 날

둘째 날 아침에 모여 두 번째 사례 나눔 했습니다.

탁구, 풍경, 체육, 호기심 학교, 최학례님 여행과 김청옥님 가정예배, 서귀포 자전거 여행, 우리가 만든 day, 방화11의 사업 많은 발표가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갔습니다.

사례를 들으면 들을수록 끊임없이 감동합니다. 실습생들이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고, 그 옆에서 아낌없이 이끌어주시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온전히 그들의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사업 이루니 더불어 감사했습니다.

이재진 학생의 호기심 학교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호기심 학교 사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재진 실습생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합동 연수에서도 끊임 없이 고민하고 발표하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을 스스로 기획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어렵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무한한 고민에 빠지지 않고 사업 잘 이루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사업 준비하는 내내 수시로 이재진 실습생의 글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지적 주체성을 주제로 사회사업과 접목하는 모습 보니 동기로서 뿌듯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상영회를 하게 되면, 큰 화면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목을 꺾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기심 학교를 진행하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이가 영상촬영을 도맡아 해주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이 이번 활동을 계기로 영상매체의 장점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나의 욕심일 뿐인 것 같다. 호기심 학교가 아니라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영상매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부담스러운 목표가 아닐까.” 호기심 학교 중

이재진 실습생은 사업을 준비하며 온전히 아이들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거들었습니다. 조그마한 활동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배려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감사했습니다. 끊임없이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사업 이루어갔습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 영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을 영상에만 투자하는 아이들의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자제하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하여 중독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깊게 생각하는 이재진 실습생의 모습 보고 배워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호기심에서 다음 호기심으로 아이들의 열정이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며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아이들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적 주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군산 맛집 정복하기

사례 발표가 끝나고 기관이 흩어져 자유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와 맛집 탐방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아쉽게도 물놀이에 관심이 적어 맛집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근처에 물짜장으로 유명한 중국집이 있다 하여 바로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군산의 맛집인가 봅니다. 도착하니 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소중한 자유여행 시간 헛되이 낭비할 수 없었기에 실무자 선생님들이 줄을 서고 실습생들만 이성당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빵집으로 보내기 위해 뒷줄에 양해를 구하신 한수현 선생님 정우량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성당까지 운전해주신 권대익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이성당의 분위기 맘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빵을 사고

다시 중국집 앞에 내려 줄을 서 있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물짜장과 짬뽕을 시켜 밥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너무 풍족히 먹어 배가 터질 뻔했습니다. 귀한 물짜장과 짬뽕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중국집 줄을 서면서 정우랑 팀장님 옆에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혼잣말했습니다. 정우랑 팀장님이 아메리카노 먹고 싶냐 묻습니다. 너무 먹고 싶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카페에 가자고 하십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카페에서 맛있는 아메리카노 먹으며 동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산 최고의 중국집

느낀 점은 다들 비슷한가 봐요

짧지만 길었던 자유여행을 끝나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바로 사례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희망 나눔에서 희망과 사례를 동시에 나누었기에 5명의 친구와 단기사회사업을 하며 느낀 점을 나눴

습니다.

처음 하는 사회사업이라 다들 느낀 점이 비슷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한 만큼 복지요결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업 진행하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옆에서 함께하는 동료와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다슬이가 시골에서 경험한 사회사업 이야기를 해주니 다들 부럽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단기사회사업 같이하자고 말하니 열심히 하라 응원해줍니다. 소감 들으니 동료들이 얼마나 고생한 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합동 수료식에서 이야기 나누니 또 다른 추억 만들었습니다.

수료식의 꽃, 수료사 낭독

합동 수료식의 꽃 수료사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적은 수료사를 낭독하고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실습생의 수료사가 귀하지만 시간상 기관별로 1명씩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사를 읽는 동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실습생이 읽을 때는 그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잘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때는 실습생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느껴졌습니다.

서귀포 실무자 선생님의 수료사 중 기억에 남는 말을 적어보려 합니다. 서귀포에서도 자전거 여행 사업이 있었습니다. 노랑 선생님과 자전거 사업을 공유하고 싶어 연락을 보냈지만, 기관의 사정으로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헤쳐나가 자전거 사업 잘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단기사회사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료사 발표 중 실무자 선생님은 실습생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합니다. 듣는 내내 마음 아팠습니다.

수퍼바이저 선생님들은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실습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최선을 다했고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할 게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하면 되고, 정 안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잘못하고 미안할 게 없습니다. 그저 실습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수료사를 통해 실습생들 귀히 여기시는 마음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화11 수료사 낭독

선의관악 수료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 마쳤습니다. 내심 끝을 기다렸는데 막상 수료사를 나누고 일정을 마치니 시원섭섭한 마음만 듭니다. 내일이면 집에 가야 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와 헤어지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퍼지기 싫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을 대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장의 추억을 마지막으로 합동수료식 둘째 날 마쳤습니다.

슈퍼비전

아쉽게도 물놀이에 관심이 적어 맛집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도 아쉬웠어요.

사례발표 풍성했어요. 시간이 많았다면 사례발표 이야기 천천히 듣고 질문하고 소감 나누고 싶었지요.

개강하면 재진 다슬과 함께 중앙대학교에서 사례발표 나눔 해보면 어때요? 현장에 관심있는 후배들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그것만으로도 학교에서 좋은 변화를 일으킬겁니다.

군산에 처음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짧은시간 맛집으로 유명한 두 곳을 방문했어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여러 관광지도 둘러보았을텐데 아쉬워요.

여행, 즐거웠습니다.

합동연수 셋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배움나눔과 희망나눔을 했습니다. 시간상 기관별로 한명씩 나와 발표했습니다. 활동을 통해 배운점과 앞으로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더 배우겠다는 열정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수료사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적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너무 아쉬워 듣고 느낀점을 토대로 저의 배움나눔과 희망나눔 적어보려 합니다.

배움

기존의 실천방법과 자연주의 사회사업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요결을 펴고 공부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잘 몰랐지만 사회사업 실천하며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사회복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하며 배운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자연주의 사회사업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사업이자 복지, 이것이 복지의 전부인줄 알았습니다.

동기의 권유로 사회사업을 하게 되었고 자연주의 사회사업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웠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 생소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둘째 사람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사회사업 방법이었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이 사회사업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복지관은 스스로 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연주의 사회사업을 멀리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사회에 비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자고 복창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지역사회의 정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방법만 배운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사회사업이 현 세대의 사회복지실천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실천 또한 실천의 한 부분이자 그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주의 사회사업도 실천의 한 부분이자 그 뿐입니다.

둘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천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가 원하는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기존의 실천 방법과 자연주의 사회사업을 동시에 배우고 끊임없이 토론하여 합리적인 중간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도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연주의 사회사업도 사회복지의 한 과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두가지 실천을 동시에 배워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점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대학생 중 많은 친구들이 자연주의 사회사업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4학년이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출발점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기사회사업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고 학교 친구들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으로 언젠가 단기사회사업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내 합리적인 도출점을 찾아내어 '사람 살만한 사회가 만들어졌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희망

다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 단기사회사업 하게 되었습니다. 배운대로 잘 실천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화11에 와서 당사자와 만나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니 저의 배움이 부족했던 탓인지 완벽히 실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으로 인해 '단기사회사업이 나에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단 한번의 활동으로 의미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번 경험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단기사회사업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여름, 일반실습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번의 도전을 통해 현장에 나가야 하는 의미를 꼭 찾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고 싶은 저로써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싶었습니다. 도전하고 도전하여 저만의 길을 찾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현장에나가 실망하기 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배우고 이해하여 받아들일 준비를 해보려 합니다.

올해 겨울 저는 어디선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며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발바닥 닳도록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방화11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 밑에서 잘 배웠습니다. 배운대로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뚜렷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되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나눔과 배움나눔을 끝으로 단기사회사업 막을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동료, 선생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쉬움 뒤로 하고 각자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가는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오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가 활동한 이 경험이 훗날 뜻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실습생과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과 함께

슈퍼비전

복지요결 방식의 사회사업이 이웃과 인정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감동감사감탄이 넘친다는 것을 이번 활동에서 경험하였지요? 우리가 말하는 현장, 즉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론에서도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일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자연주의 사회사업 방식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잘 반추하며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복지관은 스스로 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네. 사회복지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민간 위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면서 3년, 5년마다 재위탁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3년마다 질적 변화보다 실적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평가, 여러 조직적인 구조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구어야 할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며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갑시다.

복지요걸 8쪽을 읽어보세요. 복지요걸은 정부 정책, 기관 행정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조금 더 약자도 살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행정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일도 필요하고 이 일도 귀합니다.

재성의 말처럼 각자의 실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회사업가는, 자신이 만나는 당사자 분들과 마땅한 사람살이를 이해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 관심갖고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후배들에게 이 실천을 많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내리사랑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재성 재진 다슬이 함께 의논해보세요. 1-3학년 후배들에게 이번 여름방학 활동을 사례발표 해보면 어때요? 학년별 단체 카카오톡 방, 혹은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홍보하고 2-30분씩 사례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송실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신대, 충남대, 서울장신대, 인천대 등등... 재성 재진 다슬처럼 현장에 관심갖는 후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완벽한 실천이 있을까요. 재성이가 이 첫 걸음을 떼어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 모습이 없다하더라도 그 걸음까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재성이 걸어온 만큼 또 한걸음을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한걸음씩 전진하는거지요. 재성의이 이번 겨울과 내년 여름을 응원합니다. 어디선가 발바닥 닳도록 두루 다니며 이웃과 인정을 잇고 있겠지요. 또 만나요.

수료사

함께여서 든든한 사람 전재성

“재성아 단기사회사업 해볼래?”

2018년 여름, 다슬이의 권유로 단기사회사업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적 업무를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사업 하나 맡아서 계획, 진행, 평가를 한다면 더욱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학교 실습 OT 진행 중에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강 오셨습니다. 골목에서 놀고있는 아이들 모습 보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단기사회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복지관 사업을 훑어보았습니다. 기관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하나하나 모두 귀중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한다면 그걸로 족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었을 때 방화11에서 진행되는 여행 프로그램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여행을 자주 다니고 좋아하기에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학교로 향하 던 중, 권대익 선생님께서 전화오셨습니다.

“재성, 축하해요. 1차 서류 합격했네요. 원래 2명이 하기로 했는데 3명 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면접 준비 잘해봐요.”

중간고사 끝나고 뒤늦게 지원해 많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첫 면접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동료들과 개화산역에 도착했을 때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풍선들고 반갑게 맞아주던 그 모습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등학생 면접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보경 지우가 합격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중학생 면접을 마치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았 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 민준에게 전화왔습니다.

“선생님,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처음보는 선생님을 믿어주고 같이 활동하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면접 합격을 기점으로 아이들과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 만나 기억에 남는 여행 만들어 주고 싶어 치열하게 공부하고 동료들과 열정을 나누다 보니 아이들 만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식적인 첫 회의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아이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춘천까지 가려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민준 준기 세진이 조금만 집중해주면 좋겠어. 아이 들 모두 알겠다고 합니다.

삼천리 자전거 사장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아이들과 사장님이 함께 자전거 타고 이야기 나누며, 민준 준기 세진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을 뵈기 전 아이들이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멘트를 준비하며 하기 싫다고 부끄러워 했지만 막상 전화하니 진지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과 삼천리 자전거에 도착하니 이만우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아이들 자전거 안전 교육과 자전거 점검, 사전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들 모두 사장님 말씀 경청했습니다. 집중을 못하면 서로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잘 해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나이에 손주 같은 아이들과 자전거 타니 좋다고 하십니다.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의 사전여행 참여하시겠다고 합니다.

왕복 50km 사전여행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을 선두로 아이들 모두 잘 달려주었습니다. 뒤처지지 않고 잘 달려주는 아이들의 모습 이뻐는지 사장님께서 맛있는 도시락 사주셨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니 실무자 선생님과 실습생 동료 모두 나와 환영해주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아이들과 동네 정자에 앉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복지관에 도착하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사전여행 힘들었는데 모두 나와 환영해주어 힘이 났다고 합니다. 준기는 춘천 여행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세진이는 부듯하다고 했습니다. 사춘기라 감정표현이 솔직하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해주니 대견스럽습니다. 사전여행 함께 가주신 사장님과 환영해준 선생님 동료들 고맙습니다.

사전여행 마치고 춘천으로 가기 위한 여행준비 했습니다. 여행에 가려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활동비를 받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부모님께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이 집으로 여행을 가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알려주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더 가까워 졌으면 했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 개별로 만났습니다. 개별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니 함께 모였을때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걸으로 무뚝뚝해보여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 깊은 친구였습니다. 준기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나라 아름다운 풍경 천천히 누리고 싶다고 합니다. 세진이는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가족과 대화가 부족하고 그 점이 아쉽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점과 아쉬운 점 자전거 여행을 통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춘천에 가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펜션 예약하고, 경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스스로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펜션 예약 하는 도중에 준비한 대본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옆에서 구원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거들어 주니 무사히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여행준비 마쳤습니다.

여행 당일날 출정식 진행했습니다. 부모님, 여행을 도와주신 분, 복지관 선생님들 모시고 여행에 대한 설명과 포부를 말했습니다. 강당에서 출정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 큰 절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대견스럽기도 하겠지만 무더운 여름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무사히 여행 누리고 온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춘천으로 떠났습니다. 3~4시간 라이딩 하며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시간이 넘어가고 6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들 입에서 더 이상 못타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보고싶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했던 격려도 힘이 안되었습니다. 아무말 하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는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니다.

묵묵히 달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얼굴에 화색이 피었습니다. 힘든 여정 마치고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에 큰 소중함 느꼈을 것입니다. 2박 3일 여행가자고 했을 때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박 3일 절대 못간다고 합니다. 다음 여행 준비함에 있어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여행 2일차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 날씨에 자전거 타면 죽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바로 춘천으로 가자고 합니다. 민준 준기 세진 원하는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표를 예매하고 미리 공부한 지하철 이용수칙으로 바뀌는 일정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닭갈비 원없이 먹었습니다. 카페에서 쉬면서 빙수 2그릇 비웠습니다. 가만히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 상태를 알았기에 의미를 쫓아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정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지금도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ITX 타고 용산까지 왔습니다. 아이들 등에 두 날개 달렸나 봅니다. 자전거 탈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았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니 그런 듯 합니다. 덕분에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파이팅 넘치게 올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달리는 아이들 뒤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멀리서 큰 함성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들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노래를 틀며 큰 환호성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뿌려주시며 여행갔다오느라 고생했다 축복해주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전해주었고, 민준 준기 세진은 부모님에게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힘든 여정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대견스러워 아낌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고생했다고 말하십니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준 민준 준기 세진에게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환영으로 여행 마침표 잘 찍었습니다.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과 실습생 동료들은 주말에 여행 갔습니다. 광활 서초 안산 방화 2박 3일 철암에 모여 즐겁게 놀았습니다. 많은 동료들 만났습니다. 밤길 걸으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회사업에 함에 있어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서관에서 동요 부르며 별을 보고 힘들면 쉬었습니다. 정신없이 놀고 옥수수과 복숭아 나눠먹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며 복지인 노래 부르고 들었습니다. 사회사업 동료가 있어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삼척 해수욕장과 덕풍계곡 갔습니다. 더운 날이라 물놀이 많이 했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며 바위를 타고 물에서 다이빙도 했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동료와 이야기 나누며 가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막상 출발할 때 왜 가야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올라오는 밤 '좋은 동료와 이야기 나누며 서로 힘든 점을 나누고 격려해주며, 즐겁게 놀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구나, 이래서 여행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나눈 여행 잘 누렸습니다.

길지만 짧았던 단기사회사업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행준비 처음부터 끝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고맙고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권대익 선생님 소개로 이만우 사장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전여행부터 춘천여행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전여행 동행, 자전거 점검, 춘천여행 때 부탁드리지 않아도 걱정되에 헬멧과 다른 자전거 용품들을 챙겨오셨습니다. 반장감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골목 아지트로 남혜진 선생님과 민준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치킨을 사주셨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덕분에 남혜진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자전거 여행 갈 때 라이트와 후미등 빌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빌려주려 하십니다.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지극 정성 도와주셨습니다.

주병숙 선생님은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자전거를 빌려주셨습니다. 집에 찾아오면 언제든지 빌려주신다 하셨기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주병숙 선생님과 탁구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납니다. 탁구장 가기만 해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아직 감사인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늦더라도 꼭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준기 아버님은 준기가 여행 떠난다고 말하자 자전거 수리 도구와 펌프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주셨습니다. 준기는 아버지에게 자전거 수리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노래를 들으며 갈 수 있었고, 민준이 핑크 냇을 때 준기가 양손에 도구를 들고 와서 잘 고쳐주었습니다. 민준 세진 준기 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

셨습니다. 어머니들께 부탁을 드리면 항상 부탁한 것 이상으로 준비해주시고 매일 부족하게 없냐, 더 챙겨드릴 건 없냐고 물어봐주십니다. 더운 날 선생님들 항상 고생하신다고 격려해주십니다.

서울 오기 전 권대익 선생님께서 메시지 보여주셨습니다.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전해줄 깜짝 환영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해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여행도 자기 아이들처럼 대해주고 신경써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감사인사 드리러 갔습니다. 편지는 부끄러워서 차마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감사 드리자고 했습니다. 이만우 사장님 남혜진 선생님 관장님을 찾아 뵙고 감사인사 드렸습니다. 인사드리러 갔는데 되려 더 좋은 훈화 듣고 왔습니다. 나중에 같이 활동하자고 하십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감사인사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동료들 탁구 동아리 회원님들 강서방송국장님 등 고마우신 분들 많습니다. 활동 할 때는 몰랐는데 끝마칠 때 쯤 되니까 어느새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탁하는 일을 다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도움 없었더라면 자전거 여행 이뤄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기용 광재 민지 영경 유진 성미 민정 채령 지연 성은 은혜 11명의 주옥같은 동료들 만났습니다. 동료 덕분에 힘들 때 의지하고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광재 일지에 ‘평생 동료’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친구들이 왜 평생동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관계 소중히 다루고 싶습니다.

니다. 아낌없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익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손혜진 선생님 정우랑 선생님 한수현 선생님 5명의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관계가 트러질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하는 선생님들 더 고생하셨을 겁니다.

실습생들 귀히 여겨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가르침 주시고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잘 따라가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실습생들 지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생의 첫 실습이자 첫 사회사업 끝났습니다.

민준 준기 세진과 함께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자주성을 살려 일했는지 지역사회 공생성이 늘어났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한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기가 생겼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었습니다.

방화동 그리고 공향동이 인정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단기 사회사업의 끈이 이어져 어떠한 관계라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다정하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려봅니다. 온 동네가 마을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기사회사업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니 많은 분들 알게되었고 감사한 일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 밀리는 업무 등으로 스스

로를 꺾아 내렸습니다. '단기사회사업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의 활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나오고 싶은 저로써 힘들다고 피하면 끊임없이 도망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 겨울 단기사회사업 다시 도전하려 합니다. 내년 여름 일반실습도 도전하려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부딪치고 느껴보려 합니다.

올해 겨울, 저는 어디선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발바닥 닳도록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 잘 배운 덕입니다. 잘 기억해서 배운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료증

권대익

자전거 여행을 함께한 이재성 학생에게

기상관측 사상 111년만에 가장 더웠던 여름, 밤에 30도가 넘어가고 한 낮에는 40도까지 치솟는 무더위. 우리는 이런 날씨에 방화동에서 춘천까지 떠나는 자전거 여행을 도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130km, 우리는 첫 날 7시간 동안 무려 80km를 달렸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터질 듯한 허벅지, 쓸리는 엉덩이, 타는 목마름,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 무거운 배낭, 온몸을 적시는 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킁킁한 어둠, 배고픔, 눈앞을 가리는 모기와 벌레.

자전거 여행에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팔당유원지에서 자전거 네비게이션 오류로 남은거리가 40km가 넘게 나온 겁니다. 아이들은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트럭을 얻어 숙소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25km. 재성은 아이들을 독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때로는 맨 뒤에서 뒤를 받쳐주고, 세진이 가 무섭다고 할 때는 맨 앞에서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재성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재성이 노래가 듣고 싶어 일부러 재성 바로 앞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마지막엔 불편한 픽시 자전거를 서로 바꿔 탔습니다. 힘겹게 페달을 밟으며 멈추면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는 아이들과 재성 때문이었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힘겹게 속소에 도착했습니다.

재성의 자전거여행 사업도 힘난했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세 명과 함께 했습니다. 재성이 궁리하고 준비하는 모임 흐름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재성도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직접 기획해서 가는 여행인데 왜 어른들이 자꾸 간섭하는지 모르겠어요.”

가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더위에 춘천까지 지하철은 한 번도 타지 않고 2박 3일로 다녀오겠다는 아이들의 고집이자 정제되지 않은 사춘기 소년의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재성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걸언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구실로 한 명씩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의 입장과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수료식 준비와 감사인사 때도 아이들에게 걸언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며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혼자하기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조차 어려울 때는

당사자가 알고 동의한 일로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했습니다. 복지요결 대로 아이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재성은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을 정중히 정성껏 만났습니다.

재성은 자전거 여행하며 지역사회 여러 이웃을 만났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주병숙님께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탁구동아리 회원이자 삼천리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는 이만우 사장님과 아들이 자전거 정비를 해주셨습니다. 헬멧을 빌려주시고 장갑을 주셨습니다. 골목 아지트 가게를 운영하시는 남혜진 사장님께서 치킨도 사주시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사주셨습니다.

재성은 인사와 감사를 구실로 이웃을 자주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두루 다녔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은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재성은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한강 아라뱃길 연습라이딩 때였습니다. 새벽 6시 아이들은 물 한통 없이 빈 손으로 나왔습니다. 라이딩 때는 자신감이 넘쳐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길 끝에 들어서자마자 누워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좋아하고 기본 체력은 있지만 옆에서 거들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재성이 거들어 주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 아이들을 거들어서 함께 했습니다. 자전거여행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는데 거들었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이 거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합동연수에서 재성의 멋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현장 사회사업가로 살겠습니다.’ 재성은 현수막에 쓰인대로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였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했습니다. 재성은 학생 대부분이 공무원과 공단 등으로 취업하는 현실에서 현장 사회사업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성이 생각한대로 잘 되지 않았기에 사회사업가로 더 깊히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예방접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낮아졌고 존중했습니다. 지역사회를 두루 다니며 인사가왕이 되었습니다. 발바닥 닳도록 지역사회를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재성이 실천해온 걸음은 사회사업가의 삶입니다. 재성은 방화동에 사회사업 씨앗을 뿌렸습니다. 실습 기간 한 달 동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재성이 떠나면 이 씨앗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며 열매를 맺을 겁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재성이 뿌린 이 씨앗을 잘 일구어 가겠습니다.

삼척여행 할 때 재성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재성은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잠자리와 먹거리, 집안 정리정돈까지 삼척여행 팀을 섬겼습니다. 재성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실습 동료들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다지요? 그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동료들과 따뜻한 우정을 오래도록 키워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니까요.

“쉽지 않아.” 재성의 유행어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잘 이겨냈으니 이제 “쉽지 않아.” 대신 “어렵지 않아.” 외치며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성을 다시 학교로 보냅니다. 남은 학창시절 현장 사회사업가로 더 깊이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현장은 재성처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도록 거들고 발로 뛰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현장 은 재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전재성 학생을 응원하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선배사회사업가 권대익 드림

못다 한 이야기

곡성 도림사 계곡 물놀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또 다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방화11,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곡성에 있는 계곡에 가서 물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누릴 수 있을 때, 실컷 누리고 가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권대익 선생님의 에너지 원천은 어디일까?’ 생각하며 갔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찾고, 권대익 선생님이 선두로 하나둘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피곤함도 모르고 다들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워터슬라이드가 재미를 배로 해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놀이에 빠져있을 무렵에 최은희, 김용운 선생님께서 맛있는 파전과 아이스크림, 멜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어 감사했습니다. 멜론을 주신 박경희 선생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놀면서 선생님들과 실습생 친구들이랑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권대익 선생님께서 함께 놀자고 한 것이었나 봅니다.

계곡 놀이를 마치고 오후 6시가 넘어 서울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권대익 선생님이 제일 피곤하셨을 텐데 학생들 한 명 한 명 신경 써주어
감사합니다.

서울 올라 가는 길 배고픔을 달래주신 방화11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 또 쌓고 갑니다.



식사송 부르는 모습

철암 여행

고향 강원도, 그리운 철암으로 출발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철암 갈 준비했습니다.

과업 일정 보느라 여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해주신 권대익 선생님 성미 유진 고맙습니다.

여행 간다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샌드위치와 복숭아 음료수를 아침부터 준비해주셨습니다. 아직 인사드리지도 못했는데 실습생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갔다와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행간다고 도와주신 분들 정말 많고 아낌없이 격려해주었습니다. 공부를 통해 배우지 못한 점 놀기를 통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갈 정도로 놀다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백산 일출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로 땀흘리며 굳이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할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4시 출발 시간이 되어 차 타고 이동했습니다. 차에서 꿈쩍 졸고 있으니 함백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산길 걸어가니 힘들지 않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산에 도착하니 춥고 구름 밖에 없었습니다. 바위를 등지고 가만히 풍경을 바라보니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동료들

의 환호성이 들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과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되돌아 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출 보고 내려와 매봉산 자락에 위치해있는 '바람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의 언덕은 농사기간에는 차량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주인분께 부탁하여 특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굽이 진 길을 올라가니 사방이 배추로 가득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녹색지대를 바라보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림에서 나올 법한 광경을 한번도 보지 못한 저로써는 오랜시간 눈에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기억속에 평생 남기기 위해 누릴대로 누리고 왔습니다.



바람의 언덕

언덕에는 이쁜 풍력발전기들이 줄 지어 서있습니다. 풍력발전기 밑에서 다 함께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을 잡고 서늘한 바람을 타며 노래도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 지고 서로가 애뜻해지는 마음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고향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함백산 일정을 끝내고 철암으로 돌아와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라면과 밥, 시리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을 올랐기에 많이 배고팠습니다. 허겁지겁 라면을 먹고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이보다 맛있는 라면 없을겁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물놀이 하러 삼척 후진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처음 여행 일정을 봤을 때 삼척이란 단어를 보고 기뻐고 ‘내 고향에 동료들이 놀러 온다니 잘 놀고 먹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집을 내리고 자리를 잡자마자 김동찬 선생님께서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카운트 소리가 끝나자마자 다함께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일렬횡대로 다 함께 뛰어 들어가는 모습 멋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물도 따뜻해서 딱 해수욕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연이 반겨주니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습니다. 서로 물도 뿌리고 층도 쌓고 모래 벽도 만들며 놀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동료와 아이처럼 소박하게 노니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느낌 받았습니다.

정신 없이 놀던 중 어머니께서 간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파배기 호박

식혜 석류음료수 복숭아로 허기진 배 채웠습니다. 같이 놀러왔지만 제 고향에 온 동료 귀하게 여기며 대접 잘하고 싶었습니다. 훗날 삼척에 왔을 때 좋은 기억만 가득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넘치는 정 덕분에 손님 대접 잘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삼척 후진 해수욕장 물놀이

저녁을 간단히 먹고 불꽃놀이 보러 태백에 있는 하이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 비가 내려 불꽃놀이 볼 수 있을지 걱정 되었는데 다행히 그쳤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돛자리를 펴고 태권도 공연을 보며 불꽃놀이 기다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하늘위로 불꽃이 떨어집니다. 여러 색과 모양을 가진 불꽃들이 가지각색

으로 퍼지니 그 매력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불꽃놀이 처음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다가 눈물 날뻔 했습니다.

불꽃놀이가 마치고 철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암 여행 생각하면 할수록 진국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 못한 감정 이번 여행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험했던 여행 꿈속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이 있고 산세가 수려한 덕풍계곡 갔습니다

점심에 먹을 주먹밥을 챙겨 덕풍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 입구에 등글게 서서 준비운동을 하고 덕풍계곡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며 열심히 올라가니 1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권대익 선생님께서 여기서 물놀이 하겠다 합니다.

아직 물에 젖기 싫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용소 계곡 멀리 깊은 곳이 보입니다. 저기서 잠수 하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온다고 하니 참았습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조금 더 가서 다이빙 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빠짐없이 다이빙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다이빙을 다 하고 젖은 상태로 트레킹 했습니다. '1용소 계곡에 진짜 들어갈걸'이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다이빙 마치고 제 2용소로 향했습니다. 2용소에 도착하니 시원한 폭포가 떨어지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지체없이 바로 물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물도 시원하고 수영하기 딱 좋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지칠때까지 놀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지상낙원 바로 여기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2용소에서 보내고 하산하던 중 권대익 선생님께서 다이빙을 하십니다. 1용소에 설 때 제가 눈여겨 봤던 깊은 곳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어두운 곳이지만 바로 달려가서 몇 번이고 다이빙 했습니다.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었습니다.

트레킹 마치고 철암도서관에 들러 짐정리를 하고 미리 준비해주신 돼지고기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밥 2공기 먹었습니다. 서울팀 늦는다고 배려해준 광활 팀 고맙습니다. 다음에 철암에 가서 제가 끓인 김치찌개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풍계곡 제 1용소 물놀이

저녁을 먹고 부랴부랴 짐을 챙겼습니다. 시간이 늦어 너무 늦게 도착하면 집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차에 싣고 도서관 앞에 동글게 서서 작별 인사 나누었습니다.

김동찬 선생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헤어짐은 언제나 아쉬운 법입니다. 동찬 선생님 눈가가 글썽입니다. 아쉬운 마음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하며 포옹 인사를 나누고 각자 차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멀리서 광활팀이 해맑게 뛰어옵니다. 가는 길 끝까지 배웅해줬습니다. 그 모습 보니 광활에 더 있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여행 귀하고 귀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속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놀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봉도 여행

갯벌이 있는 바다가 이리 아름다웠나요?

오늘은 장봉도로 여행 가는 날입니다. 섬이자 갯벌이 있는 바다라 조금만 늦어도 배를 못타고 바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빨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출발시간보다 30분 늦게 출발하여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들께 죄송했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동료들에게는 '장봉도 사태, 장봉도 사태'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일정을 함에 있어 선생님들이 "몇시까지 모여주세요"라고 말하시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장봉도 사태가 일어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같은 실수 반복하기 싫어 빠르게 움직입니다.

허겁지겁 차에 짐을 싣고 장봉도로 향했습니다. 장봉도는 인천광역시에 딸린 섬으로 배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출발 하기 전 인천에 배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 있다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배도 처음 타보고 갈매기에게 새우깡 쥐도 된다고 하니 설렸습니다.

민정이가 준 선크림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장봉도로 향하는 배가 갈매기로 둘러싸였습니다. 새우깡 몇 개 던져주니 어쩔 이리 잘 받아먹는지 신기했습니다. 손에 쥐 새우깡이 몇 개 없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위에서 동료들이 행복해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사진찍자, 빨리 빨리 이리와봐!”

사랑하는 동료와 함께 여행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와 대화하며 가는 것도 좋지만 여행와서 경치 좋은 곳만 보면 사색에 빠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음 부터는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장봉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더 누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 아쉬웠습니다. 그늘진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기 전 배가 너무 고파 함께 밥을 먹고 에너지 충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의 온도와 높이가 적당하여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모래가 아니라 점토가 있어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점토를 던지며 웃고 즐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물이 빠지니 바닥에 있는 갯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저 신기했습니다. 태어나서 갯벌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점토를 만지고 땅을 파고, 게를 잡고 동료와 머드팩 하며 놀다가 문득 바다와 갯벌의 경계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 가지 않는 지평선을 바라보니 흘린 듯이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걷고 걷고 걷다보니 바다와 갯벌의 접점에 도달했습니다. 멍하니 서서 저 멀리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실습을 하며 어디를 가든 매일 머릿속에 일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까지 잡길만큼 장봉도

가 주는 아름다운 힘은 대단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비도 있었지만 여행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에서 여행이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 준비하느라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다시 한 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저 즐겁고 단순한 여행이 아닌 또 다른 배움을 얻었습니다.

동료의 소중한

저 멀리 동료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색을 멈추고 동료가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함께 놀다보니 휴가오신 이미진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주셨습니다. 갯벌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놀던 중 권대익 선생님이 카메라 들고 오셨습니다. 포토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갯벌과 바다를 등지고 점프샷을 찍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마저 재밌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하니 모든게 즐겁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인생샷 남겨주신 권대익 선생님 고맙습니다.

동료들은 갯벌에서 더 놀고 저와 기웅이는 일찍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다 냄새 맡으며 저 멀리 풍경 바라보니 행복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기웅이와 진지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 기웅이 보고 듣고 느낀점을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녔

기에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삶의 방식이 다른 인도에 가면 모든 게 새롭다고 합니다. 단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음으로 기용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시간 너무 소중했습니다.

여행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니 어느덧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일치기로 온 여행이라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왔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들과의 관계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동료와의 관계 평생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행을 통해 즐겁게 누리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행복한 여행 일정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와 단체사진

복지관 소개

관장님과 만남

“관장님은 실습에 관심이 많다. 실습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

단기사회사업에 합격한 후 권대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습생들 귀하게 여기시는 관장님 하루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되어 관장님께서 실습생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오셨습니다. 실습생 한 명 한 명 어디에 사는지 묻는 것을 시작으로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의 실습생으로서 누군가 방화11에 관해 물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법인에 대해 배우는 이유이다.”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은 YMCA 재단에 속해있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여 재단에 위탁한다 합니다.

YMCA는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로 시민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모든 사람과

각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운동 청소년 운동 평생교육 사회 체육 사회복지 국제교류 및 협력운동 회원 및 지도력’ 맞춰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YMCA를 많이 봤습니다. 보기만 했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관장님과 만남으로 인해 YMCA가 어떤 단체인지 알게 되었고 누군가 방화11이 어떤 곳인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상진 관장님과 만남

“이왕 하는 실습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한 발 더 뛰고 더 움직이면 좋겠다.”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자 한다면 많은 것을 얻고 그렇지 않다면 하루하루

고통스러울 겁니다.

실습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시작한 활동 잘 끝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세를 바꾸니 글 쓰는 게 오래 걸려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더 다듬게 되고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이 많아도 집중하려 하고 많이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되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마음가짐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번 실습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도와주신 관장님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관장님께서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족과 여행 가서 딸과 자전거를 타며 아빠가 많은 것을 못 해주어 미안하다 말했는데 딸은 사업가는 돈 버는 일을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니 미안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장님의 형님이 사업으로 성공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자기 자식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는지 증3 딸은 아버지의 어깨를 더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였다면 조용히 눈물 흘렸을 겁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치를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액수를 바라는 게 아닌, 지역사회에 활기를 넣어주고 진심으로 다가가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부심 느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해준 말 자랑스럽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말해야겠습니다.

김은희 부장님과 만남

첫 일정으로 김은희 부장님 만났습니다.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습생들의 이름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합동 연수 이후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것처럼 실습생들 신경 써주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방화11은 작년부터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실습도 중요하지만, 단기사회사업은 시작부터 감사까지 대학생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을 어떻게 만나 사업을 구상하는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경험과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훗날 현장에 나왔을 때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회사업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은희 부장님과 만남

방화11복지관처럼 많은 실습생을 뽑고 열정적인 슈퍼바이저가 있는 복지관은 드물다고 합니다. 방화11의 실무자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하기에 많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해주는 것만큼 열심히 배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정을 소화해오면서 선생님들의 열정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부하여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아낌없이 조언해주십니다. 이러한 기회 다른 복지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훌륭한 실무자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선생님들의 열정에 못 따라가는 거 같아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남은 일정 진실한 자세로 임해서 성실하게 배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직원 전체가 모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기에 당사자를 존중하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이 잘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 마음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미션입니다.

2004년 장애인 기능특화 복지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금으로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지만, 마을공동체, 복지 요결, 기관의 미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만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만난다는 것은 기관의 미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정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표출할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우리나라 실무자분들이 노력하여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잘 살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션과 사례를 들으면서 방화11은 미션과 가치에 맞게 실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익을 따지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느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재미와 행복을 느끼며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기관의 미션 비전 인재상을 수시로 읽으면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걷기 소통하기 곁에 있기 이어주기 팀과 만남

기존의 단기사회사업 실습은 맹점이 있는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알아가는 과정은 좋지만,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기에 부족한 부분을 매칭시켜 업무별로 인사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걷기 팀은 다른 부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원래 총무부서였지만 올해부터 함께 걷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관의 인사 조직 재무관리 직원 전문성 강화 시설안전관리 회계 교육문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관에 관한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담당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만, 어른들도 많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올해부터 공간개방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간개방 사업으로 인해 저녁에는 잘 나오지 않던 주민들이 나와 산책을 하며 운동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 대한 정책과 법이 수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행정팀은 매년 정책이 바뀌니 정책에 맞게 반영하려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도 열심히 공부하며 복지사가 되었을 때 복지 경향을 잘 숙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통하기 팀의 김수재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사업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풀꽃향기'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공동모금회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민 중심의 복지를 만들려면 당사자가 주인 의식을 갖고 마을 속에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풀꽃향기가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방화마을 행복공동체 정가든'에 관한 설명도 들었지만, 시간상 여건이 안되어 구체적으로 듣질 못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과장님을 뵙고 물어봐야겠습니다.

방화11은 실습생들이 선호하는 복지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를 끌고 나가는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하라 하셨습니다. 실습으로 도전받고 성장하며 훗날 사회복지현장에 나와 일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화11복지관은 실습생들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실습생이라 무시하지 않고 서로 배우며 존중한다고 합니다. 기존실습에서 단기사회사업 실습으로 틀이 바뀌었지만, 그 속에서 가치를 잘 발견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다운 사회복지를 잘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곁에 있기 팀에서는 김미경 과장님의 사례관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의 사례관리가 아닌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사례관리를 찾는 과정에서 김세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람 중심의 사례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화동 두 아이를 키우는 사랑 엄마 이야기’는 두 아이와 엄마가 지하방에 살고 있으며 직업이 없고, 월세가 밀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사를 대하는 태도가 공격적이었지만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구실로 자주 만났으며 진심으로 다가가고 당사자의 삶에 집중한 결과 함께 의논하여 집과 직장을 구했으며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잘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자의 마음을 얻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주기 팀은 더 많은 지역사회 사람을 만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공향동에 처음 나가 어버이날 잔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통장님들을 찾아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며 진행하다 보니 점점 같이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과로 주민들 간에 소통하게 되었고 이웃끼리 서로 관심을 두게 되어 먼저 인사한다고 합니다.

홍보/출판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의 행복기자단 분들이 작성하고 글에 실린다고 합니다. 전 소식지 내용에는 복지사 위주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었기에 지역주민분들의 참여가 저조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여시키게 되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민분들을 연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어주기 팀의 모습 잊을 수 없습니다.



이어주기 팀과 만남

단기사회사업 실습을 하면서 '나중에 현장에 나가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아셨는지 관장님과 선생님들은 실습생들이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단순히 업무라 생각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주민분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하고 계신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갖고 일을 하는 분들과 사회사업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뛰었습니다.

팀별 사업을 들으며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좋았지만 선생님들이 가진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더욱 깊게 와 닿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천했던 자세를 본받아 한 달간의 단기사회사업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햇별교실 팀과 만남

주간 보호센터를 설명해주기 위해 김현미 팀장님, 김빛나, 김국현 사회복지사님이 오셨습니다. 햇별교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로써 총 12명의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각자 가진 장점을 부각해 프로그램에 적용하려고 해요.” 도자기공예 프로그램을 보면 과거에는 12명을 다 앉혀놓고 자원봉사자를 붙여 활동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12명 중에서도 3~4그룹 나눠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색종이 접기를 하더라도 잘

접을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돕고, 색종이 접기가 싫다면 다른 활동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개별로 당사자에게 맞게 월간 계획서를 따로 만들며, 집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1:1 나들이 가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가기 전부터 어디를 가고 싶은지,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를 한 다음 실행하니 전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김국현 선생님께서는 생일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당사자 어머니께 물어봐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개별화에 맞추어 당사자가 직접 고르고 사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햇별교실 팀과 만남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장애인 시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관 인력도 부족하고 일반 복지보다 상대적으로 손이 많이 가서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개인별로 맞추기보다는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반대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같은 인격으로 바라보며 사회사업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약자라 생각하여 특별하게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은 당사자가 장애인이어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똑같은 당사자를 만나고 결국 과업을 이루게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도 같은 인격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개개인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약자일수록 더욱 그럴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양한 당사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당사자가 사람답게 사람 자체로 살 수 있도록, 약자도 같은 인격으로 바라보고 제 삶의 공간에서 주체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결에 있기 (2)팀과 만남

결에 있기 팀은 실무자 선생님이 많은 관계로 두 팀으로 구성하여 두 번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서 강의해주신 결에 있기 팀은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말을 해주었다면, 오늘은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곁에 있기 팀에서는 방화마을 합창단, 탁구친구 동아리, 일자리 창출사업, 서포터즈, 멘토링 등 지역주민의 관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정 있는 관계를 맺으며 최종적으로 복지관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관계를 돕는 일이고 관계로써 돕는 일입니다.” 「복지 요결」 57

쪽

곁에 있기 팀의 사업소개를 들으면서 복지 요결 관계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사회복지 가운데 사회사업의 핵심은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 즉 ‘사회적 복지’를 말합니다. 공생성, 사회적 복지 모두 관계를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곁에 있기 팀이 하는 프로그램은 복지 요결 그대로 관계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은 장기화하고 주민들의 강한 관계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 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고 복지를 이루는 일로써 관계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업발표

계획한 과업을 기관의 실무자 선생님들께 설명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 먹기 전 권대익 선생님과 일정표를 꼼꼼히 다시 읽으며 수정했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미비했던 점이 보였기에 실무자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는다면 여행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습생 모두 자리를 정하고 전지를 붙이고 실무자 선생님들 기다렸습니다. 앞서 합동 연수에서 발표를 해봤기에 있는 그대로 천천히 설명하면 여행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총 다섯 분의 선생님들께 여행을 소개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고맙습니다. “모임마다 여행 회의가 있는데,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건 좋지만 결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에 지침을 확실히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정 선생님

“정보를 주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활동 후에도 아이들이 강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원 선생님

“여행 재미있겠네요, 여행을 가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장님 아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니 도움받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신미영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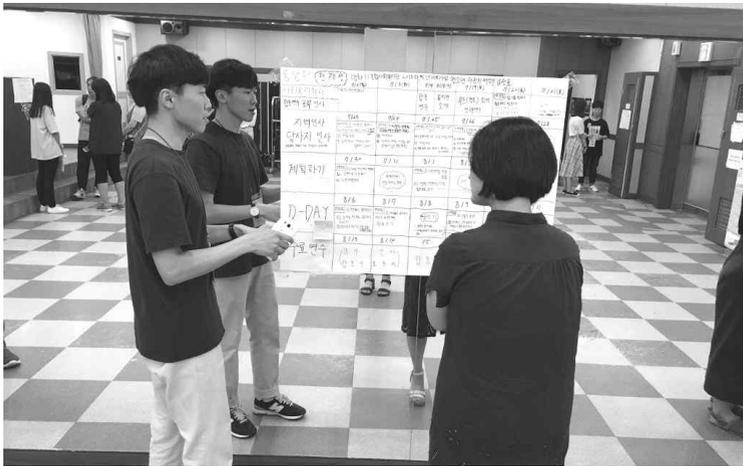
“선생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년이고 자전거 여행을 갔다 왔으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아들), 여행 재미있겠네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김은희 부장님

“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옛날에 많이 탔습니다. 자전거 선생님은 동네에서 자전거 가게 운영하시는 분께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하 선생님

합동 연수 때도 일정을 기획하고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할 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부족한 부분 하나씩 채워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여행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과 만나 계획하여 여행 떠나고 싶었습니다.

많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다 기억나지 않아 적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혼자 고민했을 때는 그 이상의 무엇을 찾기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니 확실히 부족한 점이 보이니 돕니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 더욱 풍성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업 발표

희망 나눔

복지 요걸 대신 복지인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랑 선생님의 기타연주와 준비해주신 가사로 신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해 있을 동료들을 위해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실무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은 당사자 주체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중요시합니다. 기관의 미션과 일치합니다. 사업 함에 있어 기관의 미션과 단기사회사업 목적을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전 나눔 하면서 개인 목표 한두 가지와 그 실현 계획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동료의 비전을 잘 들어 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쑥스러울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한 명씩 발표를 마칠 때마다 안아 주었습니다. 나눔 이야기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다시 한번 축하해줬습니다.

비전을 나누면서 동료가 귀하게 보였습니다. 잘 듣고 싶은 마음 생겼습니다. 응원 글 받으면서 생각하지 못한 강점 발견했습니다. 강점 잘 살려 동료들에게 힘이 돼야겠습니다.

6가지 비전을 적었습니다.

“활동이 끝날 때까지 책을 놓지 않겠습니다.”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주신 책으로 선행연구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여행

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점을 채워 아이들이 의미 있는 여행 만들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받는 책도 좋지만 스스로 책을 찾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책을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깊이 있게 읽고 꾸준함을 놓지 않겠습니다.

“인사 ‘왕’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 인사만 잘해도 반 이상 했다고 합니다. 인사 다니며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살고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둘레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활동을 마쳐도 인사하는 자세 잃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과제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성실함은 배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의 게으름으로 3일 차 일지 다음 날로 미루게 됐습니다. 반성합니다. 성실함을 무장하고 과제와 일지 미루지 않겠습니다.

“모르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습관으로 묻는 일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사회사업은 혼자 힘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습관을 버리고 슈퍼바이저에게 끊임없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을 얻고 아이들이 의미 있는 여행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려면 나부터 행복해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욕심에 의해 일정과 업무를 과도하게 잡고 스트레스에 부딪힌다면 아이들을 위한 여행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지 요걸을 읽으며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 나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고 다가가도록 하여 아이들을 위한 여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않겠습니다.”

어릴 적 추억과 경험이 삶에 버팀목이 되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기 싫습니다. 훗날 성인이 되어 약속 잘 지키는 사회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대방도 자기 자신도 실망하지 않도록 활동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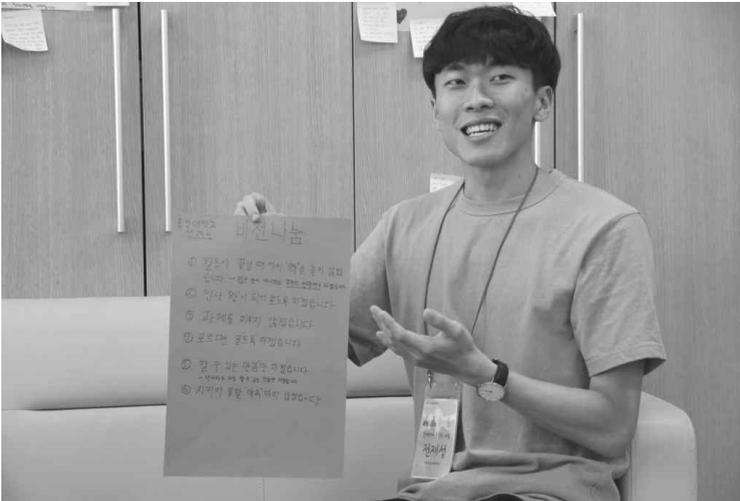
신중히 적은 6가지 비전 꼭 지키며 한층 더 성숙한 사회사업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동 연수까지만 해도 관계가 서먹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걸기 쉽지 않았습다. 함께 하는 일이 늘어나고 비전 나눔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동료의 강점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격려해주어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12명이 모여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 일정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동료들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사업을 구실로 맺어진 관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동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힘들 때 경청하고 응원하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나눔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동료의 소중함 평생 간직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희망 나눔

강점 나눔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강점 나눔

여행을 마치고 강점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나와 나의 강점을 말하고 동료들이 지지와 격려를 해줍니다. 동료가 하는 말 하나하나 귀하기에 놓치고 싶지 않아 귀담아 들었습니다. 소중한 말 한마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곤함을 벗겨내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평생 두고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기용

유쾌하고 보고만 있어도 즐겁고, 지나가는 것만 봐도 힘이 납니다. 재성 이에게 그러한 에너지가 있어 고맙습니다. 다들 각자 맡은 사업에 대해 고민이 많지만 제가 본 재성이는 유독 책임감이 강한 듯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고민하는 모습 재성의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영경

재성 오빠는 ‘쉽지 않아’라는 실습 명대사를 남겼어요. ‘쉽지 않아’는 내 삶에서 쓰이고 있는데 부정적이지도 않으면서 힘듦을 드러낼 수 있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동료들이 웃게 돼요. 전체 실습생에게 큰 힘을 주는 강점이라 생각해요. 요즘은 오빠가 뒤에서 편히 봐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삼촌이 조카 보듯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주는 강점이예요.

신광재

재성이형! 재성이 형은 아빠 같아요. 무뚝뚝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빠와 같이 친구 같고 말을 잘 들어주는 슈퍼맨 같은 존재거든요. 실제로 힘든 일해도 웃으면서 응원해줘요.

재성이 형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해요. 힘이 돼요. 우리 아버지께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봤어요. 예의 바르고 아빠 같은 형이라 생각해요. 고마워요

강민정

오빠가 자전거 여행 마치고 왔잖아요. 흥가분하게 툭툭 털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우직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기관 실습 일지도 보면서 기록 하는 거 보면 슈퍼맨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재성오빠 옆에서 같이 실습하는게 행운이라 생각해요.

임채령

티주대감인 것 같아요. 뒷집 지고 허허. 뒤에서 반히 쳐다보고... 보통 그러면 불쾌할 법도 한데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관심이 없다면 그런 자세나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켜보고 한 두마디 얹어주는 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재성오빠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꼼꼼하고 자기 일에 책임감 가지고 주변 사람 돌아 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멋있는 것 같아요.

김성미

처음 봤을 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일지 빨리 올렸는데 일지 늦게 올리는 사람이 나 말고 재성오빠도 있구나

생각해서 든든했어요. 지금은 힘들 때나 감정이 올라올 때, 오빠가 애
다루듯이 “오오~”이러면 부담스럽긴 해도 좋아요.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같은 팀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힘이 되요. 우리 팀에서 제일 날씬하지만 제일 든든한
오빠 같아요. 고마워요.

김민지

문득 재성 오빠의 어투나 습관이 나와요. 닮고 싶은 것 따라하게 되잖아
요. 실습하면서 오빠의 어투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진심이 담겨있지
만 무겁지 않아서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닮고 싶고 강점이라 생각했어
요.

격려글 나눔

활동이 시작되기 전, 클리어 파일에 활동 소개와 자기소개서를 넣고 들고 다니며 열심히 격려 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떨렸습니다. 잘 꾸미기 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둘레 사람 모두 흔쾌히 써주었습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격려글 나누는 활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웅 광재 영경이가 손을 들고 나누고 싶다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응원의 글 동료 앞에서 나누고 싶은 제 마음과 똑같은가 봅니다. 적극적으로 말해준 세 친구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흐르는 눈물 참아가며 격려글 읽어내려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애뜻한지,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격려의 글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삶의 든든한 지지자가 큰 힘이 되어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려 글 나눔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관계 덕에 행복하고 복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활동을 잘 풀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심어린 격려가 더욱 자신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지인들의 격려에 잘 보답해야겠습니다. 활동 마무리하고 클리어 파일에 격려 글이 아닌 활동 기록과 감사 글 들고 찾아가야겠습니다. 덕분에 활동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입니다.

글쓰기 특강

권대익 선생님의 글쓰기 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기사회사업에서 글쓰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습생뿐만 아니라 여러 실무자 선생님들도 오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습 시작하기 전에 여행팀은 복지관에 가서 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듣는 강의라 그런지 훨씬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오늘 배워두면 나중에 편할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존 보고서의 틀을 받고 글을 써 내려 갔습니다. 목차 만드는 법, 사진 넣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다듬어진 글에 사진을 추가하고 완벽히 수정해야겠습니다.

김성천 교수님과 만남

7월 말, 한덕연 선생님께서 전화오셨습니다.

“활동 잘하고 있나요? 현수막이 기억에 남아요. 김성천 교수님께 방화 11에 방문하면 좋겠다고 메일 보냈어요. 교수님과 같이 대화 해 봐요.”

전화가 끝날 즈음에 김성천 교수님께 메일 보내셨다고 합니다. 뒤이어 김성천 교수님께서도 연락 오셨습니다.

“힘든 일 없나요? 기관방문 필요하면 말해줘요~ 언제든지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개별로 연락한 적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해서 기관방문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료식 전날 권대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기관 수료식 하는 날 교수님이 방문한다고 해요. 우리가 준비한 것 보여줍니다.”

기관 수료식 전날 교수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재진 학생도 교수님께서 방문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했습니다. 방화11 실습생이자 중앙대 학생으로 잘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기관 수료식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기관에 도착하셨습니다. 관장님과 부장님 권대의 선생님 유진과 관장실에 들어가 티타임을 갖고 따로

이야기방으로 들어가 대화했습니다.

“현장에 꿈꾸는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 년도 휴학을 하고 겨울에 단기사회사업 한 번 더 하고 여름에 일반 실습하려고 합니다.”

“훌륭하네요, 이렇게 현장에 뜻있는 친구인지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방화11에는 없지만 많은 선배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현장에 많이 나왔으면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현장에 나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니 자연주의 사회사업도 좋지만 일반실습 해보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접목시키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교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불편하다고 권대의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기회에 교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좋지 않겠냐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과 만나고 나니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좋은 훈화 아낌없이 들었습니다. 훗날 후배들이 현장에 나오면 아낌없이 사랑해야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맺음말

약 한 달간 단기 사회사업 진행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끔 활동한 기억을 되돌아 보면 지금까지도 그 울림이 생생히 전해집니다.

첫 실습이자 첫 단기 사회사업.

처음이라 그런지 아이들과 활동하고 글 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다. 잠자는 시간도 부족했고 생활 리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늦게까지 글쓰고 일찍 일어나서 또 글을 썼습니다. 아이들과 활동한 내용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되려 글을 완성했을 때 더욱 뿌듯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단기 사회사업을 마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자료집 정리했습니다. 혹여나 다음에 실습 하는 분들이 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중해서 글을 읽고 정성스레 다듬었습니다.

방화11에서 자전거 여행은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며 활동 하나하나 귀하게 했습니다. 개화산역 앞에 인사 나왔던 선생님과 아이들, 마을 인사, 동료와의 여행 등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로 채웠습니다.

방화11에서 단기 사회사업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들, 마음으로 대해주는 동료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
어 더욱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실천하고 기록하고 나누며 사회
사업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나누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방화중학교 아이들, 돌레 분들, 권대익 선생님과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보다 자전거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 덕분에 여행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지원해주
는 돌레 분들 그리고 지금, 글 작업 하는 날까지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
신 권대익 선생님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하기란 쉽지 않지만 차근
차근 계획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책을 읽고 여러 복지관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여행 떠난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의 풍경 잘 누비고 왔습니다

발행일 | 2018년 10월 26일 초판 1쇄 인쇄

지은이 | 전재성 권대익

엮은이 | 권대익

펴낸곳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발행인 | 김상진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1길 4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07611)

전화 | 02-2661-0670~3 팩스 | 02-2661-0674

기관홈페이지 | www.banghwa11.or.kr 전자우편 | banghwa11@banghwa11.or.kr

이 책의 원본 파일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8.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by

출처표시 및 동일조건변경 허락 2.0 :

비영리를 목적으로 인용·복제·스크랩 등 자유롭게 활용하십시오.